

MAXIM



KOREA

CLUB

SEMF 애프터파티의
HOT GUESTS
클럽 갈 때 뭐 입지?

FIGHT

지구에서 제일 센 놈

도스 산토스 vs **오브레이크**
ROAD FC 006

주먹과 피떡 뒷이야기
싸움꾼의 복근 단련법

BLACK MARKET

인신매매 암시장 가격표

예쁜 게 다네!
살찐 고양이

시체 닦는 법

신용등급에 대한 오해

약물 테스트가 필요한 웹툰 작가
MAXIM 에디터의 인터넷 방송

나인뮤지스 세라



STUFF

옆집 누나 관찰 장비,
소니 DEV-5 쌍안경 캠코더
새내기 캠퍼스 필수품, 울트라북
그녀는 당신의 시계에 반한다
DUCATI 스트리트 파이터 848

SEX

소개팅녀가 나한테 반했는지
눈치채는 10가지 사인
승률 100%
작업기술 총정리
여자가 다녀간 흔적 말소하기

다이나믹 듀오
굽시니스트 카툰

www.maximkorea.net



2012년 3월호
정가 5,600원

그들이 펼치는
거침없는 쾌감질주!

DERBY DAYS

LET'S RIDE

BAD GUY를 위한
Good Choice!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Men's Classic After shave를 드립니다!

iTunes 더비데이즈에 아래와 같이 리뷰 작성
"맥심 광고 이벤트 신청" "E-mail 주소" 기입하고 "알 말" 쓰면 끝!
*참고로 경품은 사진과 완전 다를 수 있음

Available on the
App Store



대장사마를
물론히 사랑해요~



CONTENTS

30 LOVE

스개팅녀가 당신에게 반했는지를 알아채는 열 가지 시인

36 SPORTS

세계 최강의 사나이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신토스와 오브레임의 대전 사나리오

공채 장수 끝났어요?

48 MUSIC

정바비가 만난 볼 같은 여성 뮤지션 로지피피와 화이트데이 작업송 5

71 직업의 길

외모가 안 되면 연습하라.

76 ICON 다이내믹 듀오

불타는 금요일처럼 확끈하게 폭주해듀오!

98 아프리카TV의

홍대 습격

정글보다 잔혹한 인터넷 방송에 뒤어든 에디터의 차절한 체험기

82 FEATURES

나인뮤지스 세라

그녀가 MAXIM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쯤 꿈꿔왔을 오피스 판타지가 완벽하게 실현됐다.



110 ROAD FC 006 그 뒷이야기

육수와 피, 주먹질과 한호가 오가던 현장 속으로!

114 KATRINA BOWDEN

영당이가 이렇게 예쁘다니! 미드 <30 ROCK>의 세라!

122 전쟁도 비즈니스타!

전쟁도 민영화하면 10배는 잘 싸운다.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

The Luminox Steel Colormark No. 3152, 44 mm, stainless steel brushed mill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carbon reinforced case back, stainless steel bracelet,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녹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또는 세바스 벤드 미팅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

직접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미팅시계) 02-772-318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미팅시계) 02-2143-1920 / 롯데백화점 밀산점 1층(미팅시계) 031-909-3181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미팅시계) 053-660-3122 / 롯데백화점 이시리아점1층 1층(미팅시계) 053-845-2536 / 롯데백화점 부산광역시점 051-679-2039

특약점 경원 테크노마트 1층 TMI시계부품점 02-3404-1003 / 동문 테크노마트 지하1층(미팅시계) 시계백화점 02-611-1100 / 경원 테크노마트 7층(미팅시계) 02-3474-7073 / 동대문 옥계(미팅시계)011-1580-8708 / 동구 YACA 1층(미팅시계) 02-771-0277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미팅시계) 02-3300-7827 / 생리동(미팅시계) 02-955-8807 / 상계동 중앙백화점 A동(미팅시계) 02-711-0334 / 중구 세운스퀘어 1층(미팅시계) 02-2727-2888 / 미려시계동점점 02-771-7033 / 미려시계동점점 02-771-7033 / 동문 피카디리 플라자(미팅시계) 02-741-9678 / 이태원(미팅시계) 02-704-7000 / 상계동 프릭스(미팅시계) 02-205-0244 / 문정동(미팅시계) 2층(미팅시계) 02-719-9075 / 대현동 APMA 명품 1층(미팅시계) 02-637-7743 / 잠실 롯데월드 호텔(미팅시계) 1층(미팅시계) 02-419-6622 / 남양동 송계문지하점(미팅시계) 02-770-6864 / 수원 갈매리(미팅시계) 1층(미팅시계) 031-221-6997 / 고양 일산동(미팅시계) 031-716-1644 / 안양 안양동(미팅시계) 031-341-0158 / 안양 안양동(미팅시계) 031-302-1014 / 부천 삼동(미팅시계) 032-602-2026 / 고양 장항동(미팅시계) 031-031-5555 / 수원 강동(미팅시계) 1층(미팅시계) 031-201-7100 / 인천 고잔동(미팅시계) 031-481-0057 / 인천 동대(미팅시계) 지하1층(미팅시계) 02-650-8888 / 인천 송촌(미팅시계) 02-676-2002 / 대전 세미노 1층(미팅시계) 042-482-2038 / 대전 롯데백화점 2층(미팅시계) 042-001-0284 / 이태원 대 리아점(미팅시계) 042-676-2204 / 대구 신역(미팅시계) 052-255-2019 / 창원 신역(미팅시계) 051-528-2055 / 창원 기동(미팅시계) 051-412-1510 / 진주 롯데백화점 2층(미팅시계) 055-289-5532 / 진주 세바스 벤드 미팅시계점 055-287-2265 / 광주 천호(미팅시계) 062-217-8233 / 포항 남부(미팅시계) 054-601-1100 / 이태원 동구점(미팅시계) 051-483-1234 / 진해 롯데월드 1층(미팅시계) 055-642-6621 / 창원 롯데월드 1층(미팅시계) 055-645-8921 / 부산 광복동(미팅시계) 051-246-2201 / 부산 해운대(미팅시계) 051-242-012

CONTENTS

DEPARTMENTS

102

살찐 고양이

식도에 살찐질
종 해 물라?

'예쁜 게 다나'로 인기몰이 중인
살찐 고양이와의
혈당 높이는 화이트데이 데이트



14 CIRCUS MAXIMUS

사체 뒤는 범, 신용등급에 대한 오해
키가 커야하는 이유(사바),피아터의
복근 단련, 여자 속옷 브랜드 완전 정복,
여자가 다년간 흔적 말소하기, 교양인을
위한 역사 만화, ASK MAXIM

28 TRAVEL

지나치게 자세한 일본 메이드 카페
체험기

40 RATED

D집의 워킹 풀링공명 케이트 업턴,
안구 정화 TV 프로그램, 데이트를
책임지거나 망칠 오스카상 후보작,
도핑테스트가 필요한 웹툰작가

50 GAME

좀비 잡는 수영복 누님의 화끈한 칼부림
(오네츠히바리: 카구리), 호러 원조의
귀환 (비이오 해저드 6), 미스녀 게임
열전 (인스턴트 브레인), 아이폰으로
만난 천사 (아이엔젤)

57 SMOKE & DRINK

프랑스 맥주는 앙리맛? 만었던 필립
모리스의 역술 "말보로! 너도나", 적절한
콤비 디스+이레나

62 STUFF

남자의 숨은 로망을 채워주는 소니
DEV-5 쌍안경 캠코더, 새내기 캠퍼스
런웨이의 필수품 울트라북

66 WATCH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세계에 반했다.

92 MOTOR

거리의 별가벗은 피아터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848

126 STYLE

치타가 반한 신발 K-SWISS 블랙아이드
맥스, 공장에서 갓 찍어낸 따끈따끈한
신상 수츠, 클럽 갈 때 뭐 입고가? 불타는
금요일에도 타죽지 않을 새끈한 방열복
입자!

134 CLUB

SEM에서 정중 놀고 놀다 온 에디터의
변명...은 안 궁금하고 핫한 그녀들이
궁금해!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MAXIM

편집장 이영미
y@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희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s@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법정 유승민
sm@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다영
stom@maximkorea.net
장바비
juliahart@maximkorea.net
이영수
yong24@maximkorea.net

이시스턴트 조다현
hi@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인어 사원 서유정
yoon@maximkorea.net
사원 신숙희
ssh@maximkorea.net
사원 전영경
ea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trpoo@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정영
joy@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도현
hwang.s@town.com
c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심광 정기수

포토그래퍼 심광 강영석

포토그래퍼 심광 박 울

포토그래퍼 심광 김도훈

이시스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송수출관리부

대리 이영관

PRINTING / 인쇄 인쇄부

(주)리틀리프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성정리의 90-1 1층(현) 이현소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해진

www.maximkorea.net

광고/재류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0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3월호 통권 제23호 / 등록일자 2009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로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CHIEF MARKETING OFFICER: Paul LaRocca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EXECUTIVE VICE PRESIDENT & INTERNATIONAL PUBLISHER: Linda Saint Marc

DIRECTOR OF OPERATIONS: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an Pittelli

AUSTRALIA

Santi Pintado

BRAZIL

Sandro Aloisio

BULGARIA

Hirsto Zapryanov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GERMANY

Mike Bleibtreu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Roberto Giacomini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POLAND

Krzysztof Paplinsk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Nebojsa Prijic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irore Petchjamsroosuk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Stuart Mesham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맥스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맥스도 국제에서 MAXIM 한국판의 출판, 배포, 판매하고 알파미디어의 모방 및 사본을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맥스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로열티(리프라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맥스에 귀속되며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world@maxim.com

ELYSEE



Modernized Classic
From Germany



Racer

EL49082
Made in Germany

LETTER FROM MAXIM

MAXIMO 짧지 않았던 2022년 공제를 마쳤다. 무려 5개 직군에 걸쳐 두 자리 수의 신입사원을 뽑은 대규모 공제는 2년 만이다. 무엇보다 우리 MAXIM 식구들과 한술밥을 먹기 위해 박센 관문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지원자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산더미 같은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필기시험을 채점하면서 지원자님들의 열정을 감히 평가해야만 했던 어려운 작업이었기에 습관처럼 하던 밤샘보다도 훨씬 더 진땀나는 시간이었다.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두고 사투를 벌이며, 심지어 전쟁이라는 살벌한 수식어까지 달고 다니는 게 요즘 취업이다. MAXIM 역시 공채라는 취업 관문을 열고 달리는 회사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꼈거나 MAXIM을 만나기 위해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손수 발걸음을 해 준 귀한 손님들이었다. 그렇기에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지원자들이 행여나 MAXIM에 나쁜 기억을 갖게 된 건 아닐까 마음이 쓰리다.

그리고, 이제 지원자 '남'에서 까마득한 MAXIM의 막내가 된 10여 명의 신입들을 때때로 꿀 꿀일 일이 남았군. (마치 군대 입소식에서 부모님의 사야를 벗어나자마자 얼치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약막 같은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 상당한 고생길이 펼쳐질 거다. 가슴 속에 품은 콧물이야 헤아리기 힘들 정도겠지만 일단은 청소량 잔심부름부터 하면서 풀병 생활을 시작하겠지. 그래도 언젠간 다들 숙련된 MAXIM.이스가 되어 독자님 앞에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쳐놓을 거라 믿는다.

삼구가 왕창 늘어난 만큼 MAXIM 사육도 진득 확장 공사 중이다. 마감이 한창인 지금도 사무실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소란스럽다. 소음에 먼저, 병 돌린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겨울 한기까지 참아 가져 마감 작업을 마쳐준 스테프들이 정말 대단하다(그리고) 나한테 감사하다. 수고했어, 너.느님.

그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외국의 멋진 사무실은 그림의 떡'이라고만 생각했다. 예를 들면 케이벨카를 사무공간으로 만들고 사무실 위아래 층을 카타란 미끄럼틀로 오가는 그런 '구글적인 모습' 말이다. MAXIM 역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엔터프라이즈가구가 가득 들어찬 우중충한 사무실보다는, 한구석에 웅지 뿜뿜한 사운드와 영상이 구현되는 게임룸. 당구대, 에어하키대, 푸스볼(스카테이블)이 더 질 어울릴 거라는 판타지를 떠올리며 손가락만 짚고 땀이왔다.

그런데 말이다. 공사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진 직원들이 2022년 3월호를 마감하는 중 모두들 경악케한 선물이 도착했다. 회사 사무실 4층(오피스C)의 한가운데 딱하니 포켓볼대와 에어하키가 열거아지고, 5층(오피스A)엔 푸스볼과 5.1채널 홈시어터와 액박360을 넣은 멋진 게임룸이 들어섰다! 이미 포켓볼대는 아무 때나 직원들이 각자 자기 동네에서 소스적에 뿜내던 실력을 겨루는 살벌한 전쟁터가 되었다. 동네마다 풀이 달라서 종종 먹살잡이를 하고, 포켓볼대 근처를 오가다가 큐대에 찍혀 투덜대긴 하지만 말이다. 앞으로 이 근처 출판사와 각종 협력업체를 초청하여 '도장 깨기'와 비슷한 '회사 깨기'를 해볼 생각이 다. 갑자기 MAXIM에서 자존심을 건 대결을 신청할지 모른다. 흥대 부근에 있는 분들은 바짝 긴장하시길!

훗, 마지 않아 MAXIM 사무실 앞에 이 동네 회사 간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태산을 이루겠는걸?

2012년 3월 편집장

이/영/이

삼구는 여럿이
함께해야 재밌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료타입 www.eurotime.kr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 021950-2164,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 022012-0625, 위ATCH 02537-8977, 전선상사 02764-4716, 타임카운 021324-6272, 타임머신 0216388-2927, 타임사모 0216373-7743, 타임21 0213424-7043, 타임갤러리 0213132-4108, 패션존 0213398-7527, 프로워치 02779-6964, [경기] 덕수시계 031781-8194, 대성 0321325-7467, 행기출 0321626-0686, 시계상사 0311441-0158, 시론주요리 0311463-9788, 유빈 0311658-6883, 타임루츠 0311487-9057, 타임24 0311931-5555, 티라니 0311441-0158, 카시모로유 0321502-7138, [충청] 예진시계 0411640-5081, 신세계백화점 전안점 0411640-5081, 보스워치 010-5494-9915, [전남] 타임앤체포 0627222-3114, 타임퍼티 0627226-0309, 골드레너 0627410-0138,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91, [대구] 중두나라 0531256-0975, 골드호림시 0531424-4442, 그리고리 0531255-6165, 대구백화점 5층 0531254-3977, 리브 0531425-0157, 신세계몰스틱 0531566-3316, 주얼리 0531428-2668, 해피타임 0531428-3086, [부산] 영성 광복점 0511258-5315, 영성 남포점 0511253-5334, 영성 서면점 0511667-7356, 영성 신장점 0511293-5354, 월드타임 0511245-6399, [제주] 제주 중문점 0647780-7471.



Letters

에 소개팅에서 꺼였습니다. 그런데 중 친구가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의 여친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 또한 그 앱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너무 잘 맞아 살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제임게 얘기하다가 자기 회사에 놀러 가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다단계'였던 겁니다. 저는 회장실 간다는 핑계로 도망쳤고 그 뒤로 함박성 문자가 난무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날 정도 못 잤습니다. 대체 제가 전생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여력이 없을까요?

임용우, 모바일 사연

▶ “자기 회사에 놀러 가자”는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그녀의 사무실에서 펼쳐지는 격렬한 분가봉가를 예상했던 에디터의 불순함에 사죄드립니다. 저 역시 전생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맹한 시지를 가졌음에도 매일 밤마다 꿈플레이어를 실행시키고 조이스틱 질을 일상합니다. 우리가 전생애 큰 업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다음 생애는 현아. 소진 같은 처자에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을 만큼 큰 업적을 이루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출사 아는 분이 팬클럽은 전가편을 하나 출시하셨는데요. 이것을 다른 분께 소개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또 다른 분께 소개드리고, 그 다음 분이 또 다른 분께 소개...

✖ 유학생의 MAXIM 사랑

저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올해 스물두 살 남자입니다. 중국에는 MAXIM이 출판되지 않아요. 매일 부모님께서 옷, 식품과 함께 MAXIM 한 권을 보내주십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독서의 낙이자 활력소랄까요. 에디터님들의 깨알 돋는 글 제미에 배꼽 뽀하게 잘 보고 있어요. 참고로 전 북경대 학생인데, 머지않아 대륙의 학생조차 MAXIM 한국판의 위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늘 중국 친구들에게 넘치시 MAXIM을 권합니다.

유학생의 MAXIM 사랑, 모바일 사연

▶ 흑광메이? 니휘얼리마? 이로온 타지에서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개인ژی요. 학업과 병행하며 대륙의 유홍 문화를 배우시라는 밤낮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음악이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MAXIM 최보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누가 회장실에 들고 갔다 오면 한 짐씩 뭉쳐져 있지요? 건강 한 수컷의 건전한 취미에 어디 국적, 나이 구분이 있었나요? 독자님 덕분에 언젠가는 MAXIM 한국판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을법 다 둘러가며

독자 사연 보내기

✖ 남자는 왜

안녕하세요. MAXIM 오피클, 2년째 꾸준히 MAXIM을 즐겨보는 올해 20대의 꽃다운 나이의 처자입니다. 저는 지금 칠없는 다섯 살 연상과 2년째 연애 중인데요. 남자들은 원래 여자 발에 집착하나요? 제 남친은 제 발에 아주 시족을 못 씁니다. 이제 제로부터 손톱, 발톱 정리에 발바닥 관리까지 해야 하나요? 고3 시절 감질나게 드림 플랜 MAXIM에 정신 못 차리고 화려하게 재수 결정한 저에게 응원과 해답을 주세요. 시크한 산사춘, 모바일 사연

▶ “원래부터 여자 발에 집착하는 남자는 드물다.”

혹시 산사춘님 밑에서 씌은 그라나 녀새가 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간 일주일에 한 번만 발을 씻었다면 이제 하루에 한 번 비누를 해주세요.

▶ 그녀가 다단계라...

사회생활 2년 차에 접어들어 병아리입니다. 27세라는 나이에에도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해봤네요. 올해는 흑룡의 해고, 이름도 룡(용)자를 써서 2022년은 기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으나, 새해 시작과 동시



발생세 입양장면

독자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모르겠네요.

다짐 **MAXIM** 널리 MAXIM을 이용해 하라

반갑습니다! MAXIM 형제여. 본인은 인천 육권동과 연수동의 MAXIM 구매과 전염을 책임지는 자요. 송X고등학교는 본인! 부린 MAXIM으로 600명가량을 넘 나간 MAXIM 신도로 만들었소. 대학은 성남에 붙었으니 이제 본인의 고교가 성남까지 확장될 것이요. 편집장께서는 본인의 노고를 치하해주시오! 그리고 MAXIM 편집부에 위우하는 사람 있소? 지난 달 독자 편지의 지금 E-에 서 행 터졌소.

인천교구장. 모바일 사연

MAXIM 인천교구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는 바요. 매일 주소를 알려주면 담당 에디터가 갖 출사된 따끈따끈한 '도료 햇 영상'을 바로 싸주겠소(허리가 와...). 그런데 600여 명의 '넋 나간 MAXIM 신도'들이 혹시 지하 강당에 모여 손뼉을 치고 울면서 MAXIM을 외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오.

P.S 그리고 '지금 E나'를 알려준 위우 패인은 뜻밖에도 MAXIM의 이리따운 디자이너요. 예쁜 얼굴에 일도 잘하고 심지어 개성까지 들릴 줄 아는 그녀를 우린 '개돌말'이라고 부르다오.

비. 널 좋아해

MAXIM을 처음 접한 지 수개월이 지나지 않은 그날 독자로. 다 필요 없고 이영비님의 사진이 보고 싶소. 어쩔 그리도 맛달나 게 글을 쓰시는지 존경스럽게까지 하오. 나에게 매일 가장 재밌는 글은 항상 Letter from MAXIM!이었소. 다음 달엔 고양이 대신 본인 사진을 올려주길 바라오. 달력 같은 선물은 필요 없고 유용기한 차라 로션이 나 협찬 들어온 가족 보호제 같은 거나 하나 던져주소. 오늘 난생처음 명품 로피를 사러 간단 말이오!

소울풀한 신도. 모바일 사연

MAXIM 이영비 편집장님은 무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세외 세력의 숨은 고수 같은 분이오. 편집장님을 사진에 담기만 나인뮤지스를 지휘하므로 불러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오. 그녀가 카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현란하고도 황홀한 경관인지라,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로 작업하신다오. 몇 년 전, 핵 때 문에 사진 들은 우해부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하대해 힘이 풀려 그 뒤로 함께 이 신세를 지며 지금까지 재할 훈련을 하고 있다



는 전설이 있소. P.S 언제 시간될 때 새로 산 로피 신도 사무실 한번 방문해주길 바라오. 내 금요일 밤에 서를 밟았이 화근하게 발아주겠소(이디서 자랑질이야).



나를 용서하시오

내 고할 게 한 가지 있소. 군 복무 시절 내 업무는 부대로 반입되는 도서 검열이었소. 그래서 부대이하게 부대로 복귀하는 장병의 손에 들린 맥심을 모조리 압수 조치했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대에서 금지도서로 지정했기 때문이오. 장기적으로 맥심 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살살이 뒤져서 수

백 권의 맥심을 적발하기도 했대오. 그래도 부대에는 맥심이 끊이지 않더라. 어쨌든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맥심 판매량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준 것 같아서 미안하오.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앗소. 내 사과하리다. 최근에는 매일 맥심을 구입하는 열혈 독자가 되었소. 물론 앞으로도 꼭 그러할 듯하오. 맥심, 사랑하오.

하루. e-mail 사연

MAXIM 군대에서 가라민 까야지 별 수 있겠소. 이제 군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소. 다 이해하고 용서...하긴 개를 다 얹어버라겠소.

"아무리 기다려도 MAXIMO! 오질 않아요"라며 MAXIM의 행방을 찾는 군인 애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잇달아 친단 말이오. 애독자가 된 독자님께서는 감사하지만, 그간 도서 검열방식 및 간판한 장교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거품은 게 좋은 거리고 너무 뻑뻑하게 글지 말고 설명설명 들어가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텐데 말이오.

MAXIM 독자 조공 **독자 사연 응모**



MAXIM을 위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음료와 카스텔라를 한가득 인겨주시고 수줍게 사라진 취미 성을 가진 독자님. 그 훈훈함에 MAXIM 편집부는 눈물비더가 되었답니다. 사. 사랑해요 ♥

- ▶우연 접수: (121-841) 서문시 마포구 서교동 448-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i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발문 접수: MAXIM은 독자들의 방문을 너무도 좋아한다. 안 데리니까 재발 좀 들었다 가리구
- 자극자극한 눈주머니를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다. 독자사연을 보내라 3월 독자사연 선물은 **렌즈 클렌징 스티커팩트트 아이섀도우**이다. 송충기 같은 눈웃음을 갖고 싶다면 **푸쳐행영**



SMILE MAKES YOU HAPPY
CRAZYBONE MAKES
YOUR BUSINESS HAPPY



OPEN BUSINESS WITH CRAZYBONE UNDERWEAR COMPANY

최고의 수익률과 판매율을 보장하는 CRAZYBONE UNDERWEAR 대리점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CRAZYBONE 대리점 안내	차별화된 시스템				
	CRAZYBONE의 모든 임직원은 대리점 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기존 프랜차이즈의 틀을 깬 언제나 점주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영 마인드로 점주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며 성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Professional 교육				
	CRAZYBONE은 점주와 함께 성장하며 대리점은 CRAZYBONE의 미래라는 이념을 가지고 예비 창업자를 위해 반드시 성공 할수 있는 대리점이 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험이 없으신 분도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조건 및 비용	지속적인 사후관리				
	언제나 대리점의 성공을 위한 사후 관리 및 실적 개선을 위하여 매달 본사에서 전문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꿈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던 창업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십시오.				
	거래형태	마진율	평수	담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100% 위탁판매	37%	10평 이상 / 전면 3m 이상	현금 1000만원 / 부동산 3000만원	평당 250만원 (간판, 전면공사 및 철거비용 별도)

대리점 개설 시 창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문의해 주세요!

24 HOURS WITH YOUR SKIN
AND MAKE YOUR BODY COMFORTABLE 



CRAZYBONE PREMIUM UNDERWEAR COLLECTION

대리점 개설문의 / 고객센터 080-911-8979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11 KOON빌딩
www.crazyboneshop.com / www.icrazybone.com

CRAZYBONE
UNDERWEAR COMPANY

CIRCUS M

시체 닦는 법

시체 닦는 알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며?
염습의 기본부터 배워 보자!

BY 김희성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숙희



STEP 1



목욕을 시킨다

그동안 "발 닦고 지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지겨웠지?
하지만 인간은 죽어서도 목욕을 해야 한다. 알뜰업체도 사망한 바로 그날
씻어야 하는데, 먼저 죽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아이 부끄) 시
체를 이불로 덮는다. 한나무 닦은 물이나 섹을 삶은 물, 혹은 일교를 중에
서 취향에 따라 목욕물을 선택한 뒤 수건에 물을 적서 몸 구석구석을 닦
으면 된다. 깨끗하게 닦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순서를 지켜야 하는
데 가장 먼저 얼굴을 닦고 다음에 손을 닦아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이불
을 걷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몸을 구석구석을 닦아주면 된다.
주요할 건 상처와 하체 씻는 물을 따로 써야 한다는 것. 수건도 따로 써야
한다. 그나저나 죽고 나서도 씻어야 하디나... 아, 귀찮...

STEP 2



다시 목욕을 시킨다

다시 이불을 덮고,
시체를 닦고, 남은 물
과 수건을 구덩이에
버린다.

손발톱을 깎는다

목욕 재개로 한걸 팔방해진
시체의 얼굴을 무명천으로
덮은 다음 (혹시 얼굴에 핏가 봐
그런가?) 손톱과 발톱을 깎는다.
목욕과 마찬가지로 손톱 깎는 데도 순서가 있다.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순으로 깎아 각각
다른 주머니에 담아 둔다. 손톱을 깎다가 이내 수염이 빠지면
주머니에 따로 행거두었다가 나중에 관 속에 넣어주면 된다.
시체 닦기는 순서의 분류가 생뎡!

STEP 3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STEP 4

옷을 입힌다

자, 이제 깨끗이 씻었으니 옷을 입어야겠지?
속옷위에 겹옷을 입히면 안 되고 겹옷 안에 속
옷을 미리 넣어 한 번에 입혀야 한다. 혹시 무
서우니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
겠으나 이 때도 역시 순서가 생김!
순서는 아랫도리 먼저, 윗도리가 나중이다.



STEP 5

입안에 쌀, 돈, 구슬을 넣는다

물에 불린 쌀, 돈, 구슬 3종 세트는
시체의 입 오른쪽, 왼쪽, 중간에 넣는다.
살아서 못 쓴 돈 맛, 죽어서라도
실컷 보는 간가?



STEP 6

사신의 모양을 네모지게 만든다

목욕이 끝나고 나면 뼈가 굳어서 시체가
관 안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무사무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어찌 보이는 밑로
'소렘'이라는 걸 해야 한다. 베로 만든 요 위에 시체를 눕히고
빈 곳을 청호지나 흰 옷으로 채운 뒤 종이 등으로 사신의 모양을 네모지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관 속에서 사신이 썩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베 조각 일곱 개로 시체를 양 옆으로 싸면서 묶어 시체를 결박(?)한다.

관에 처넣는다

자,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 동안
시체가 되실아니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입관만 남았다.
사신을 관 속에 넣을 땐 사신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거나 모로
놓이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자가
시을 면에 부딪,은 깨질,
재수가 드럽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 소중히 다루도록.

STEP 7

MAXIM ONLINE STORE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별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입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이들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겐 너무 길다던? 해외에서
주문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사라진 MAXIM 과월호가
철민되었다면?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잠시 속 영상과 함께 생생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원 적립**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원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 진정 MAXIM의 마니아인가?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자!

- 1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2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 3 집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4 할망님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공개
- 5 장차 없는 미공개 화보
- 6 다들 다들 MSS MAXIM을 당신의 직접 감상할
수 있는 MSS MAXIM 온라인 콘서트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3,600원	▶	할인가 30,600원	3만원 할인 + 1000원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7,200원	▶	할인가 60,200원	7만원 할인 + 2000원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34,400원	▶	할인가 119,400원	15만원 할인 + 4000원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201,600원	▶	할인가 171,600원	3만원 할인 + 6000원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68,800원	▶	할인가 218,800원	5만원 할인 + 8000원 적립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바쁘다, 바빠!

시간을 확인
하러 가기





연극 (라이어) 티겟



마누스 그래픽렉션



맨즈클래식 더블이펙트 아이세럼



소유 스킨 순수 남성 청결제
쓰들린 클렌저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 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박=1원)





남자의 키가 커야 하는 이유

에디터는 그저 웃지요.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현영호 DESIGN 현영호



귀여운 태양.JPG



키 작으면 여름에도 더 덥다. 췌장.

9%는 너무 하잖아! 희망이 고작 1.7%리니... 대상
 키가 작으면 많이 먹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덜
 좋은 브라운 옥스퍼드를 살 만한 친구가 없다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같이 걸고 싶은 남자 키 -

130cm 이하	0(0%)
140~150cm	44(4.2%)
175~180cm	22(64.2%)
180cm 이상	68(69.8%)
합계	61(7%)

실인자보다 키 작은 남자가 더 나은 놀이랍니다...

행동	성공률	그중도	백당
키 작은 남자보다 키 큰 남자	90%	90%	90%
키 작은 남자보다 키 큰 남자	90%	90%	90%
키 작은 남자보다 키 큰 남자	90%	90%	90%
키 작은 남자보다 키 큰 남자	90%	9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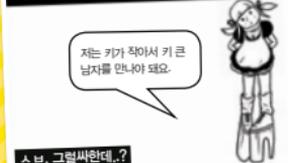
키 크면 직거래 시 싸게 살 수 있음



어디 키 큰 남자한테 죽도록 맞아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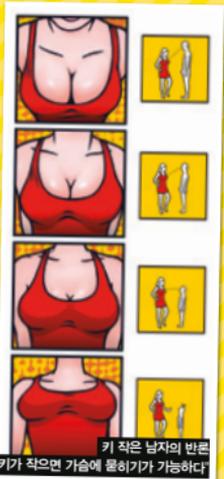
저는 키가 커서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저는 키가 작아서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사녀, 그럴싸한데...?

- 그 남자의 성격이나 비전 따위는 필요없다.
- 1위: 키도 커 이것은 돈도 많고 키도 크다는 뜻
 - 2위: 키는 커 이것은 돈은 많고 키는 크다는 뜻
 - 3위: 키만 작아 이것은 돈은 많고 키는 작다는 뜻
 - 4위: 키도 작아 이것은 돈도 없고 키도 작다는 뜻



키 작은 남자의 반은 키가 작으면 가슴에 붙히기가 가능하다



실전 응용



짜꿌은 앞서서 먹는 약이 아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형무로 투입되는 것들은 대체로 다 무책임한 것이지만, 짜꿌만큼 반드시 아래로 인정해야 한다. 짜꿌을 넣고 있는 코팅은 종종 동성애 아주 강한 것이 있어 위장을 뽐낼 수도 있다. 모르면 종종 예쁜 약사 누누에게로 예약 지도를 받도록.



동등한데 머리까지 나쁘다니
 원더걸스에서 소리가 밀려오는 상상만큼이나 슬픈 소식 기쁨이 많은 고지형식을 먹으면 뇌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 몸이 가벼워 썬 돼지가 되면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파괴되어 뇌에 영영이 생길 수 있다. 참고로 비만한 사람은 감기도, 기타 영등도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발역어...

NOW, YOU ARE SMARTER!

FITNESS FOR FIGHTERS

펀치력 올리는 복근 운동

매집도 키우고 펀치력도 올리고, 게다가 계급애들이 당신의 복근을 보고 깽깽떨 테니 일석삼조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ROAD FC(www.roadfc.com) DESIGN 전은영



> 낯영이처럼 단단한 몸통 만들기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를 단련하는 운동이다. 배에다 비누칠하고 빨래질 좀 한다는 소릴 들으려면 역시 복근 단련이 필수지. 김석모 선수의 말에 따르면 "이 부위를 단련하면 펀치력과 상대방을 밀어내는 근력이 강해진다"고, 잘생긴 형이 말하는 거니 틀릴 리 없어.



옆에서
보면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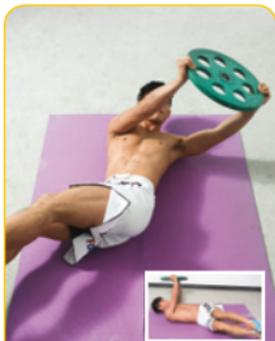
1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원반 또는 망발을 들고 팔을 쭉 뻗 뒤 다리 올리고 들어올린다. 다리가 하늘에 닿도록 올릴 필요는 없다.



2

머리 위로 손에 쥔 원반을 원쪽으로 넘긴다. 다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보낸다. 배에 힘 뭉치고!



3

원반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꾼다. 이렇게 반복. 과정 내내 배에 닿은 부위는 엉덩이뿐이니, 복부에 계속 힘을 줘

> 금금해요, 김 선수!

질문 하나에 한 대답이다.



Q1. 보통 남자라면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야 하죠?

A1. 20대 초만이라면 5~20kg 사이가 적당하지. 1세트에 10~30회로 3~5세트는 해줘야 남지래.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야 해. 너무 쉽게 느껴지면 무게와 횟수를 늘려가도록.

Q2. 다리는 왜 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A2. 그럼 다리는 가만히 두고 팔만 움직여봐. 어디 중심 제대로 잡을 수 있나 한 번 보자.

Q3. 이거 하다가 죽진 않겠죠?

A3. 쫓. 원반이 머리를 박살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할. 주변인들에게 당신의 두개골을 얼어보이고 싶지 않다면 말야.

도움 준 수컷

종합격투기 선수 김석모

소속팀: 원모스 체력 183cm 77kg
 생년월일: 1986년 3월 10일

2010년 프로 데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활약 중. 그는 얼마 전 로드리 FC 경기에서 금수를 공격받아 고통을 호소했지만 끝내 상대 강경민으로부터 승리를 거뒀다. 맞은 거는 권투야? 그거 만가져서 복근 운동 백날 해야 소용없어.



눈길에 띄우게



미국 워싱턴 대학은 현재 미래임을 곧장 콘택트 렌즈에 착주어 읽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이제 르노노도 노예다 바로 꽃아주는 사비 스가 개발될 날이 머지 않았구나!



1,000만 원대 피자

1,000만 원짜리 피자 들어봤어? 이번 밸런타인데이에 피자캐이 내놓은 세트 메뉴다. 10달러짜리 페퍼oni 1피자에 반치, 꿀다발, 불꽃놀이, 리우진 샷시, 사신 활영 등의 이벤트를 추가 포함으로 없어서 탄생했다. 그래, 피자는 어찌봐도 동안 분만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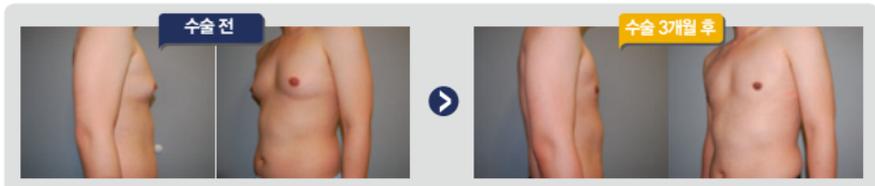
정직한 삶을 살아도 어쩔 수 없다면!

남들은 거짓말 하면 코가 커지는데, 난 왜 가슴이 커지는 것인가? 왜? 왜? 왜! 박 경민

▶ 세월이 지나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의 찌든 때가 묻어간다.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능청도 떨어보고, 그런데 말야! 그럼 당연히 뭐 코가 커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가 커져야지... 왜 난 가슴에 후덕하게 살이 붙지? 나이를 먹을수록 절망이다. 오랜 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여성형 유방증(유머서 유방증)을 치료해 봤다. 당신이 몰랐던 여성형 유방증의 A TO Z를 시원하게 공개한다.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유방에 유선과 지방 조직이 쌓이면서 여성의 유방처럼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은 소아 비만이거나, 여성 호르몬 과다 방출이 주된 이유이다. 즉, 여자의 가슴을 남성 이 지난 형태로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등 공공 장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남성에게는 기법지 않은 증세라 할 수 있다.



다른 병원과의 차이점, 무엇인지 알아봤다.

많은 수술 케이스와 경험은 신뢰를 갖게 한다.

실루엣 여성형 유방증 전문 클리닉은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추고 있다. 또 최첨단 의료 방식을 도입해 너저분한 실 대신 인체용 봉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한 것도 특징. 유두에 3mm 이하의 구멍을 내어 시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방흡입에 적용했던 거드랑이 방식보다 유선 조직의 제거가 더욱 확실한 느낌이다. 수술 후 사위가 가능 하고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다.

여성형 유방증 전문 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이유

실루엣 여성형 유방증 전문 클리닉이 운영하는 여성형 유방증 클리닉은 국내에서 여성형 유방증의 관심을 증폭시킨 명소이다. 압 구정 역 근처에는 많은 성형외과가 있지만 평일 낮에도 주차장이 미어 터지는 몇 안 되는 병원 중 한곳이 실루엣 여성형 유방증 클리닉이니 사실일 듯 하다. 진전이 무료라는 점도 성형 수술하면 부담을 갖기 쉬운 환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을 듯. 또 재 발은 매우 드물지만 혹여 재발하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많이 찾는다니 믿음의 간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검사가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자신감을 마음에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을 펴지 못하고 다려낸 살을, 부장님이 사우나를 가치고 했을 때 주저리주저리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야 했던 짐부 때는 경한, 공중 목욕탕은 고사하고 워터파크, 해변, 수영장에도 놀러 갈 수 없었던 사리들 기억들, 당신이 여전히 없었던 이유가 과연 성격 탓일 까? 백문이 불여일견 평생 가슴 한 번 쪽 펴지 못한 채 옹크리 채로 방안에 처박혀 젊음을 허비할 생각인가? 당일 수술, 당일 퇴원으로 쓸데 없는 가슴일일 간단하게 날라버리고 따듯한 양지의 세게로 나오자. 알아버린 자신감은 당신의 작은 용기로 되찾을 수 있다!

다음주 신 분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 유방 증, 힘줄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 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한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진료의 수료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Know Your Lady: 어젯밤 본 그 속옷은 어디서 살 수 있나

어저를 알아야 뭐 이해하건 친해지건 할 것 아니다. 일단 네 어저의 랜제리를 알아! BY 송종민 DESIGN 변영



뭐? 그녀가 데이트에 팔메니 브라자 같은 걸 차고 온다고? 뭐? 아직도 그녀 영영이에 그려진 꿈돌이와 조우하며 직책감(?)에 사로잡힌다고? 그녀의 보인 속살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 이 같은 황당한 광경 때문에 수그러들었던 지난날은 이제 안녕. 그녀에게 색시 랜제리를 선물해서 나만의 유미 아시아평으로 만능재 센스 있는 선물로 점수도 따고 성욕 증진도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그런데 대체 그 속옷은 어디서 사나고?

모던 & 심플 캘빈 클라인



1990년대 후반 내러 입은 청바지 위로 살짝 보이는 CK 밴드가 패션왕의 지위를 뽐내던 때가 있었지.

대상 내 여인의 가슴이 당당해라도 타질 것 같아!

글래머러스한 몸매에는 꾸밈이 필요없다.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나이만 들어 보일 뿐 심플한 솔리드 컬러 CK 하나면 충분 (현악한 분들의 가슴은 더욱 심플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

레이스 & 클래식 에블린



고풍스럽고 귀족적인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에블린. 로맨틱시즘이란 테마로 여성의 로망인 레이스를 담글록해 녹여내고 있다.

대상 코스프레는 나의 힘!

달타남을 유혹하는 밀라디의 예뻐픽한 몸짓을 느껴보고 싶다면 에블린이 답. 블랙 코르셋과 블랙 레이스로 17세기 유럽의 요부를 품어 안아보자. 색시만 가 티벨트는 덤.

섹시 & SM 아장 프로보카퇴르



오조속너도 고급 끌끌로 변신 시킬 수 있는 랜제리의 핵 당신의 팬타지를 채워줄 하드코어한 섹시 랜제리가 모두 있었다!

대상 내 여인이 달라졌어요.

여성에게 사설 백인들 베푼 감동들 선물한다는 속옷 중의 속옷. 매장에 같이 가서 속옷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단, 당신과 그녀의 관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면 상반대로 몰릴 수 있다.

리블리 & 섹시 빅토리아 시크릿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성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섹시의 기준을 보여준대즉 입면 입연 자기가 섹시하고 예뻐 보인다고 생각한다.

대상 처음 시작하는 연인을 위해

필 산물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고? 티파니의 민트색 상자처럼 빅토리아 시크릿의 핑크색 포장지는 실패를 모른다!



뭐 이런 게 같은 경우가...

미국 덴버의 미친 프로그래밍 생활속 도중 여자 영커가 얼음이 언 호수에 빠진 40kg짜리 두견과 개 주인을 구한 소방관을 초청해 인터뷰하던 중, 개를 쓰디쓴다가 물러 입과 코를 가려버리나 해해야 했다. 너 이놈 복날까지 가더러라.



이건 도 무슨 게 같은 방송이야

미국 샌디에이고에 개 주인이 아닌, 순수하게 개들을 위한 방송만 내보내는 '도그 TV'가 생겼다. 24시간 내내 개의 시각에서 보는 광활이 영상 같은 걸 내보내는데, 주인이 없을 때 심심해할 개새끼들을 위한 거라고.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

*면봉

물론 남자도 면봉을 쓴다. 하지만 여자는 면봉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당시는 귀에게 정도로 쓰는 게 고작일 테지만 여자들은 화장할 때나 화장을 수정할 때도 면봉을 쓴다. 특히 눈 화장을 고칠 때 면봉을 많이 쓰는데 무심코 쓰레끼를 버리려 간 여친이 우연히 마스크카가 묻어 있는 면봉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변명고 술수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네 것이라고 우겨봐야 소용 없어. 포기해.



예뻐책

흰색 면봉 대신 검정색 면봉을 사두면 마스크카가 묻어 안 보인다. 어머, 이런 시간 아해



*기름종이

간과하기 쉬운 그녀의 흔적 중 상위에 랭크되는 게 바로 기름종이다. 중·고딩 때 교실 바퀴바퀴나 대학 강의실 곳곳에 떨어져 있는 기름종이를 본 적 있을 거다. 기름종이는 여자들에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재질이 얇고 가벼워 쓰레기통에 버려도 여학생이나 하터 바퀴에 날아가기가 쉽고, 사용 후 통그렇게 묻쳐 무심결에 아무데나 버려두기가 쉬운 아이템. 버린 기름종이도 다시 보자.



*머리카락

여자가 사는 집에 가장 흔한 건 머리카락이다. 당신의 집에 가장 남기 쉬운 그녀의 흔적도 머리카락이다. 별거 안 해도 여기저기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치운다고 치웠는데도 꼭 안디신가 한 두 가닥씩 나타나 당신을 곤란에 빠뜨릴 거다.

다른 건 다 잘 치워놓고도 긴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라도 발견되면... 입이 열 개라도 한 마디도 못하는 거다. 특히 여친이 단발머리인데 긴 머리 여자를 집에 들였거나 여친은 생머리인데 피마한 여자를 들였을 경우, 그리고 염색한 여자를 집으로 고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현관문 앞에서부터 머리에 땅이라도 쓰게 해야 하나?

*항수

눈에 보이는 걸 완벽하게 치웠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집을 나가면서 그녀가 무심코 뿌린 항수가 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여자 사람과 헤어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친이 돌아왔다면 이미 집안에 퍼져 있는 여자 냄새를 그녀가 오코미 맡게 될 테니까. 조수석에 여자를 많이 태워본 수컷이라면 그 향이 생각보다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 더 잘 알 거다. 간밤에 운운지정을 나는 그녀가 당신의 집을 나가며 항수를 뿌리려고 한다 면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제압할 것. 아야,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항수여...



*직감

그리고 이젠 진짜 무서운 건데, 뇌에서 '직감'을 담당하는 부분은 남자보다 여자 쪽이 더 크고 예민하게 발달했다. 태어날 때부터 뇌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 미평한 해결책도 없다.

자취방 완벽 점검에 성공했다고 해도 여친에게 안 들릴 확률은 반 밖에 안 된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냄새를 감지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을 내뱉겠지.

"너 나한테 할 얘기 없어?"



그중 후조라는 나라의 황제 '석호'가 악명높았음.

먼 훗날 석호편이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런 거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죽이는 통에 절망한 신하들이 정경고 자살하는 일이 속출



by 굿시니스트

MAXIM 독자들에게 온 편지와 사연 중, 인간 우리가 아니면 답해줄 수 없는 절제절명의 의무감을 안겨준 몇 가지 질문을 추렸다.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아? BY MAXIM 편집부 DESIGN 전은영

질문은
이곳으로



Q. 여자친구가 최미테이 선물로 판다 공 인형을 사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판다를 좋아하죠? 신성희, 이매일 사연



아, 귀여운 표정 지어, 인간 노예들이 좋아해.

▶ 판다 팔자가 레알 상팔자다. 국제자연보호연맹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동물은 판다 말고도 많긴 합니다. 전 세계에 약 2,500마리뿐이라지만, 인간이 판다를 오냐오냐하는 정도는 정신 나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쟁쟁. 판다 곰이 그렇게 귀여워? 어쨌거나 판다가 인간 당분보나 나는 이유는...

1 술치이 줄 귀엽잖아

우리도 눈에 익힐 줄 하면 이렇게 예뻐해줄 거냐고~.

2 최근까지 좌우편 돈도 받아

이 곰 새끼들은 개울에서 꼬미도 잘 안 한다. 눈앞에 아웅(꼬미하는 동물 영상)을 틀어줘도 말이다. 일편 동물원에 있던 판다가 짝짓기를 하도 안 해서 중국에서 암컷 수컷을 꼬미용으로 임대해 오는 데만 약 96만 달러를 쳐벌했다.

3 어딜 가나 귀빈 대접

얼마 전 인간들은 판다 2마리를 운송하려고 '판다 익스프레스'로 이름까지 지은 보잉 777 화물기를 대령했다. 두 짐승은 비행기 안에서 퍼자거나 대나무를 씹으며 빈둥댔다. 개울리서 짝짓기도 안 하는 짐승이니, 없어서 스텐더박스들을 존나게

행방이 시켰
겠지.



작년 말 중국의 한 항공사는 새끼 판다 '스퀴스키'의 이송을 위해 미국형 비즈니스 클래스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무런 봐도 안타깝 '구라' 피라시 같은데, 어쨌거나 누가 더모양을 바꿨을까. 셀카를 찍었애 하는 허접한 연애 피라시보다 낫지 않다.



중국에서는 판다 곰을 관리하는 연구원들이 판다 곰 분장을 하고 우리에 들어간다. 이 녀석이 아무한테 해준 게 대체 뭐래? 우리도 한 60~70년 있으면 죽을 운명이란 말이다.

이 녀석이 애는 안 보고 또 어딜 갔어?



Q. 사랑은 정말 마친 것인가요?

늘은 준리, 모바일 사연

이 농락 같은 머스마



우릴 단채로 줄게 만드는 화이테이 선물 러시를 눈앞에서 보고

도 물러서 묻나? 사랑은 진짜 마친 것이다. 미국의 신경학자 루이스 브라운은 '강렬한 사랑에 빠지면 마약에 중독됐을 때와 같은 뇌 영역이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중독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줄어들면서 '항제 애크를 짜지르고 키우자는 무사무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유대감'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웨딩마치는 흡사 유배-관우-장비의 의제제 도원급같은 거지 꽃 같은 여자친구가 정점 관우나 장비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다 보면 자연스레 그게 중독증도 나를 거야. 걱정 마.

Q. 방귀로 진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김동준, 이매일 사연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 위험이 있지만 그냥 방귀로는 사람

울 못 죽인다. 상상 방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찰스 크루스필드는 박사과 학위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립스터 등 해산물로 배를 채운 뒤 바지를 벗은 채 밀폐된 작은 방에서 일대기 성분을 품은 가스를 배출한다. 마침 해산물 밀레미가 있는 친구 앞에서 구경하러 과민반응으로 죽는다.' 그, 글썽... 너무 폭풍해서 그 친구를 죽이거나 자살할 수 있었지?

112,000,000:1

다음번에 지판기에서 영로수를 꺼내 마실 때는 생영랑화리도 들어놓도록, 당신이 저판기 사르로 사 망할 확률은 1억2천만분의 1로, 상가거 줄이 죽일 확률 2억5천만분의 1보다 높다.



너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싸가지 없는 판다가 있다. 판다 곰 '구구'는 우리로 뛰어들 15세 소년의 두 다리 실질을 물어뜯어 뼈가 드러나게 하는 등 3차례나 사람을 공격한 악명 높은 놈이다. 오냐오냐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후 구구가 '식욕을 잃었다'며 호소장을 냈었다. 하지만 굳이 내색을 깨닫는 망명한 성격만 버린다면 판다는 크게 위험한 동물은 아니다. 당신이 대나무 잎이 아닌 이상애...





메이드 카페 체험기

에디터의 도쿄 입성기 2탄. 덕후의 천국 아키하바라에 입성한 에디터.
메이드 카페를 방문하게 되는데... BY 김희성 DESIGN 서윤정

그렇게 메이드 카페는 내게 다가왔다

에디터가 아키하바라에 발을 내딛던 날은 울겨울 중 손에 꿈을 정도로 추운 날이었다. 각종 애니메이션과 게임숍에도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가장 신기했던 풍경은 그 추운 날씨에도 허벅지다리를 내놓고 메이드 복장으로 전단을 나눠주는 언니들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에디터에게도 불췌, 전단을 내밀었다. 알 수 없는 인사말과 함께, 그렇게 전단을 받아 들고 나니 호기심이 발동했다. 갑자기 아키하바라까지 와서 메이드 카페를 안 가본다는 건 겁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를 갈지 망설이다 마침내 에디터가 향한 곳은 메이드 카페계의 바퀴베네 어어어어한 체안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 메이드 카페였다.



메이드 카페의 메뉴판은 이렇게 생겼다.



그녀의 환영

메이드 카페는 빌딩 6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1층 빌딩 입구부터 메이드 복장을 한 여자 사람이 카와이한 미소로 에디터를 맞이해주었다.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었으나 정황으로 보서는 "혹시 메이드 카페 오셨나요? 너무 잘 오셨어요 -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가시면 되어요. 까!" 정도였던 것 같다.



메이드 카페의 손님 대부분은 남자다. 대부분은 혼자 온다. 에디터가 간 날도 남자 두 명이 온 테이블 하나를 제외하고 다 혼자 온 손님들이었다. 평범한 일본인들은 잘 가지 않는다는 이곳 TV에서 보던 레벨 일본 여후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덩치가 큰 남자가 수줍게 불을 쬐이며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오모리야스를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메이드가 "맛있어서라는 주문을 함께 외쳐봐요" 라고 하니 매우 부끄러워하며 주문을 외치고 아주 오래도록 오모리야스를 음미하며 먹었다.



입국

공간 인테리어를 모방한 듯한 하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기자기한 내부가 펼쳐져 있었다. 프런트에서는 몇 명이서 물어보고 이용 방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 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를 덧붙였다. 메이드 카페에서는 주문한 메뉴 이외에 머릿수에 따라 입장료가 따라붙는데 메이드 카페에서는 이를 '입국료'로 부른다. 하아, 그렇게 부르면 화를 낼 수도 없잖아!



메뉴 선택

메이드 카페답게 고양이 얼굴 장식의 오모라이츠, 핫초코, 색소 맛이 날 것 같은 형광색 편지와 엘른 소다 등 아기자기함을 뽐내는 메뉴들로 구성되었다. 세트 메뉴도 있었는데 어느 카페처럼 '아메리카노+케이크 세트' 이런 게 아니고 '음료+메이드 브로마이드 세트', '음료+모에모에 라이터 세트', '커피+메이드와 플라로이드' 촬영 세트'가 있었다. 에디터가 선택한 메뉴는 마지막 세트. 그리고 10분 뒤 이 결정을 한 걸 후회하게 된다.

드림 칵테일

던지 칵테일을 시켰을 뿐인데, 메이드는 칵테일과 함께 마이크를 들고 왔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카페 안 손님들을 향해 "이 테이블에서 드림 칵테일을 주문하셨어요, 박수!"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칵테일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구호 같은 걸 외치고 울음까지 하면서 카페 안 손님도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그 구호를 따라했다. 덜덜덜. 다음 순간 갑자기 메이드가 하는 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마법의 레시피를 함께 외쳐야 드림 칵테일이 완성된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에디터에게 머무르고, 일어나서 구호를 외쳤지만... 뭔가 점점 박수가 더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 웨이브를 몇 번 하고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참고로 여자는 에디터 혼자였다.

메이드와의 플라로이드

그리고 대망의 플라로이드 촬영. 내가 내 돈을 내고 플라로이드를 찍는 거지만 포즈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손가락으로 브이를 만들어 양 손을 머리 위에 올리라고 했다. "여기엔 강제로 시키는 매력이에요."



메이드 카페 응어 완전정복

일본어 따위는 몰라도 된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만 알면 당신도 귀요미 메이드 알바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냥

메이드 카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자랑하는 응어는 바로 '냥'이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거다. 손님이 주문하기 위해 메이드를 부르거나 메이드가 대답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메이드 카페에 있는 내내 여기저기서 초하이픈으로 "냥!"이라고 대답하는 메이드들의 앙증맞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땀이 귀여워 보인 에디터는 편집장의 호출에 "네" 대신 "냥!"이라고 큰소리로 대답했다가 편집장님에게 목청을 따질 뻔했다.



오이시쿠나레

"맛있어지라"는 뜻으로 이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주문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면서메이드가 "자, 이제 맛있어지는 주문을 외울 거예요. 따라 해주세요. 오이시쿠나레!"라고 외치면 "오이시쿠나레!"라고 따라 하면 된다. 손으로 마법 가루를 뿌리는 듯한 손동작도 따라 해야 한다. 도무지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 멍 때리고 있거나 일단 알아만 땀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반복해서 얘기해준다. 따라 할 때까지 집요하게 시키니까잡는 거야 오 따위는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모에모에쿵

이건 당신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지? '모에모에'를 정확히 대체할 만한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딱 두세계에서 귀여워서도 자신의 취향을 지키는 걸 뽐낼 때 사용한다. '쿵'은 '가슴에 꽃한다'는 뜻. '모에모에쿵'은 일본 애니(케이온) 17세 등장 일본 열도를 들쭉이게 한 표현이다. 메이드와 사진을 찍을 때 메이드가 "모에모에쿵"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종종 메이드들이 '냥'과 더불어 응어 혼잣말처럼 "모에모에쿵"을 중얼거리기도 한다.

소개팅녀의 다리를 관찰하러 여자가 다리를
피는 건 성격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는 신호다.

어디서 많이 본
다린데...



LOVE

그녀는 당신에게 반했...나?

소개팅녀가 당신에게 반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확실한 사인들. BY 김희성 DESIGN 신숙희



소 개팅너의 번호를 알아내서 밥 먹고 차 마시기까지는 무사히 완료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 한잔하며 소개팅이 술술 마무리 되어가는 타이밍. 이 때까지 파도 안 나고 코스까 이어졌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쯤부터 가장 많은 고민이 생긴다고 수컷들은 말했다.

“분위기는 꽤 좋았던 것 같은데 소개팅 이후 내 연락을 땡겨더라”
(28세, 소핑물 운영)

“분명히 내 말에 잘 웃어주고 호응도 좋았다. 이후 네 번 정도 더 만났지만 사귀자는 나의 말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해 데미지가 컸다. 아아, 내 돈!” (25세, 복학생)

“여자들은 잘 모르나 본데 남자들도 은근히 소심한 구석이 있다. 당당하게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절 당할 까봐 두렵다!” (30세, 기자)

이외에도 소개팅에 대한 백만 스를 한 가지의 고충을 에디터에게 털어놓았다. 분명히 분위기도 좋았고 소개팅너도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좀 무리해서 데이트 비용을 지불했다! 어느 순간 돌아오는 건 그녀의 사늘한 거절뿐이었고, 그럴 거면 애초에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예상치 못한 어택을 가하느냐는 게 소개팅너에 대한 수컷들의 공통적인 불만이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소개팅너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쓸데없이 카드를 긁어대면서까지 그녀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을 텐데, 그치?

보통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의 여자를 만났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상대에 대한 예상 거절을 잘 못하고 면전에 대놓고 싶은 소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앞에선 뽕글뽕글거리고, 당신의 애프터 제안에도 몇 번 ‘만나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컷들에게 있어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가진 여자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대놓고 싶은 소리를 못하는 그녀라도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미리 간파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신에게 반했다

그녀의 사인
“당신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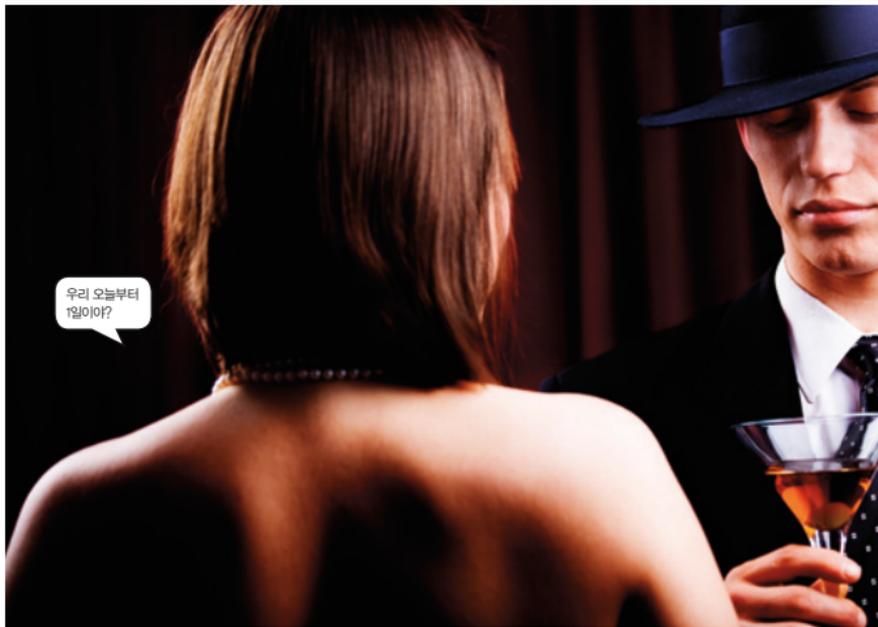
당신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첫 만남에서부터 바로 “우리 다음에 영화 보러 갈래요” 같은 발언을 하는 함으로 쉽지 않다.

대다수의 여자들이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쉬운 여자로 보이기는 죽어도 싫다**”(21세, 대학생) “**성격 같아선 확 그냥**” “**우리 오늘부터 사귀엘래요**” 라고 지르고 싶지만 이후에 내가 더 매달리게 될까봐 참는다”(24세, 모델)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꺼린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일수록 다음에 만날 확실한 계기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으니가 아마도 당신에게 첫 눈에 똘간 그녀라면 “만나자”는 말 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음에 만날 빌미를 만들 거다. 가장 흔한 대화 패턴이라면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을 공유하다가 “**앗, 저도 그 책 읽고 싶었는데 학교 도서관에는 계속 대출중이더라고요. 혹시 다 읽으셨으면 저도 빌려주세요!**”(직적인 여자로 보일 수도 있으면서 책 빌릴 때 한 번, 반납할 때 한 번 총 2회의 만남이 무조건 예약되는 확실한 방법). “**와아, 나도 보드 타는 거 좋아하는데!** 다음에 혹시 친구들이랑 가면 저도 꺼줘요. 나하하하”(자연스런 스킨십도 옵션으로 예약같은 멘트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좀 더 고단수인 그녀라면 당신에게 내기를 하자고 제안할 거다. 대화 중에 영롱한 걸 꼬투리 잡아 “**아닌데, 진짜래. 그럼 우리 내기할래요? 내 말 맞으면 어떡할래요. 아이,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후회하게 될걸요? 어차피 난 들릴 일 없으니까 우리 내기 할까요? 센 거 할래요? 소원 들어주거 아메요, 소원? 응? 응?**” 할 거다(진짜 이렇게 말하는 그녀라면 고단수 오보 더 고단수. 연애라면 만렙을 찍었다).

‘내기’는 바로 당신의 승부욕을 호하게 자극하면서도 결국엔 내기에서 당신이 이기게 되므로 당신의 기도 살면서 그녀에게 당신의 소원을 하나 일하게



우리 오늘부터
일이야?

되는 상황. 여자는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절대 소원 들어준다는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녀의 사인
“답문에 일정한
주기가 있다”

남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답장을 아예 늦게 하거나 바로바로 보내거나 둘 중 하나다(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소개팅이 끝난 이후 그녀의 답장이 10분, 15분 정도씩 간격을 두고 도착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반한 게 확실하다. 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하루 중 일 상대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티날까봐 사실은 문자가 도착한 즉시 내용을 확인했으면서도 일부러 답장을 늦게 하는 거다”(22세, 대학생), “내 일

이 바쁜 차가운 도시 여자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28세, 홍보대행사 AE) 하지만 답장을 보내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진짜 이유로는 많은 여성들이 “센스 있으면서도 매력적이고 현명한 여자처럼 보일 수 있는 답변을 쥐어짜기 위해서”(26세, 백화점 근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히려 남자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거 보다”(28세, 연구원)고 오해를 한다고들 하는데, 그건 굴러 들어온 돌을 땀 걸어서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다 속이 쓰리네.

그녀의 사인
“ㅋㅋ로 시작해
?로 끝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문자가 안 끊기냐는 거다. 아직 그의 애프터 신청도 받지 못했는데 벌써 문자가 끊긴다면 정말 실연보다 더 슬프거든(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수록 ㅋㅋ로 시작해 ?로 끝나는 패턴의 문자 개수가 많아진다”며 “나중에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보면서 쪽팔렸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24세, 대학생)는 고충을 토로한 여자들이 많았으니 아직 서로의 간을 보여 연락을 주고 받는 소개팅녀가 있다면 그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번 체크해 보도록.

그녀의 사인
“소개팅날과 다른
컨셉의 의상을
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만약 그녀가 두 번째 만남에 소개팅날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나왔다면 이전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에게 돌아올라 있을수록 두 번째 만남에 자신의 다른 매력을 무한 발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밥이나 먹지 뭐?'하는 심정으로 집을 나선 그녀라면 첫 날과 비슷한 분위기가거나 무난한 옷차림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소개팅 날 다소 안전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나왔던 그녀가 짧은 치마에 아슬아슬하게 가슴골이 보이는 색시한 옷차림을 택했다면 이전 100%다.

이 날 당신은 그동안 카드에 스크래치를 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날은 당신이 수컷 본능을 좀 더 발휘해도 좋다.

"보통 걸옷을 색시하게 입고 나오는 날엔 속옷까지 더 신경 쓰고 나온다"(27세, 회사원). "겨우 두 번째 만남이지만 속시원히 싶은 마음에 속옷에 제모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간 적이 있다"(23세, 대학생)는 여자들의 증언도 있으니 질러도 좋다.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카톡편

“그녀의 사인: 카톡을 보냈는데 대답이 반나절, 혹은 하루 이상씩 걸린다”

솔직히 씹고 싶지만 이미지 관리상 당분간은 적당히 답장을 해주자고 마음먹었을 경우, 주선자 얼굴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답장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 카톡 주고받기가 귀찮아 일부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반나절이 지나거나 하루 정도가 지난 다음 '앗어요', '비뻤어요' 같은 핑계가 담긴 초단답형 메시지를 보낸다. 아요. 귀찮아!

“그녀의 사인: 답문이 바로 바로 오지만 이모티콘이 없거나 초 단답형이다”

카톡을 날리자마자 그녀가 확인도 바로 하고 답장도 바로 왔다고? 혹시 답변이 매우 짧거나 이모티콘 같은 건 눈에 씻고도 찾아봐도 없나? 그렇다면 그런 여짜다까 카톡 확인을 해버려서 "에잇, 땀!"을 외치며 보내는 답장일 가능성이 높다. 답문이 바로 바로 오긴 오지만 그녀의 말투가 동명스럽거나 내용이 초간단 하다면 당신에게 매미 눈물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거다. 그러니 뭐라고 보낼지 내용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답이 빠른 거다. 그리고 확인을 해놓고도 답장을 안하면 '왜 답장 안하냐고' 물어보는 카톡이 날아와 더 귀찮을 수도 있으니 귀찮음 예방차원에서 답장을 하는 것. 포기하면 편하다.





MAXIM LOVE 상담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연애와
섹스에 관한 고민은 MAXIM 여자 에디터에게.
BY 김희정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이영희 DESIGN 서운영

빠빠로 데이에 생긴 일

× 먼저 항상 수고가 많은 MAXIM 편집부에 격려의 말을 전한다. 나는 삼십대 초반의 수컷 이다. 소개팅 2주일 후가 빠빠로 데이라 소개팅녀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녀에게 잘 보이 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고가의 빠빠로를 사서 보냈는데... 다음 날 차였다.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전화해서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말주변도 순발력도 없어서 호지부지인데다 더 열 받는 건 빠빠로 구매 사이트에서 리뷰를 남겨 달라기에 '제품은 좋았어요. 그런데 빠빠로 데 이 다음 날 차였어요'라고 하니 "ㅋㅋㅋ 날 불쌍하삼" 같은 리플이 여럿 달렸다는 거다. 생애 처음 빠빠로 데이 선물을 준비해본 거라 가슴은 더 미어지구요...

사실 크리스마스, 설 선물까지 미리 구입해 놓은 상태였다. 각 반응별로 분기점을 만들어 성공을 향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첫 번째 분기점에서 배드 엔딩이구나!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뭘 지 아니? 그 일이 있던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다. 어떡하면 좋나?

서울에서 무지(키 176.5cm)

× 고가의 빠빠로가 안 먹힌 이유

고가의 금품도 아니고 고가의 빠빠로라니! 대체 고가의 빠빠로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참으로 궁금 하...는커녕 관심이 없다. 그녀가 평소 지극한 빠빠 로 마니아라던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빠빠로는 다 같은 빠빠로일 뿐. 고가의 빠빠로라고 해서 그녀에게 특별할 건 없을 거라는 거다.

아마도 당신은 빠빠로 데이를 맞아 아심찬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었겠지. 일단 빠빠로 데이(= 빠빠로)를 골랐을 거고, 서운이 넘은 남자의 선물 치곤 그냥 빠빠로를 주려면 가요가 안 사냐? 빠빠로 중에서 가격도 비싸고 포장도 그럴싸한, 당신의 표현을 빌리자 면 '고가의 빠빠로'를 주문했을테지

당신의 마음씀씀이와 센스에 폭풍 감동을 받을 거다.

× 여자들은 다 'ONLY 빠빠로만 있는 선물'을 싫어한다 말인가?!

당신이 소개팅녀의 나이를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으 나 30대 초반인 당신과 소개팅을 했다는 걸 보니 대략 20대 중후반 정도의 여자일 것 같다. 이 나이대 여자들은 그런 실속없는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 하지만 중고당이나 이제 막 스물을 넘긴 여자들은 예전 오히려 그런 게 더 먹힐 수도 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크기의 휘황찬란한 빠빠로를 선물로 다룬다. 주위 여자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다 쳐다볼 테니 이 얼 마나 자랑스럽나!

× 그녀가 원하는 건 빠빠로 폭탄이 아니다

빠빠로 데이를 일차원적으로만 해석했던 게 가장 큰 패인이었던 것 같다. 빠빠로 데이(= 빠빠로), 화이트 데이라고 사랑을 덤씩 안겨주는 건 주는 건 우 리에게 별 어려움이 없는 선물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기분이 쉽게 될 거다. 당선은 초콜릿 5만 원 어치를 보낸 여자와 초콜릿 1만 원어치와 4만 원어치의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보낸 여자 중 어떤 여자와 더 사귀어 보고 싶나?

× 회심의 일격

자, 이제 곧 화이트 데이다. 위에서 얘기한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한 화이트 데이 선물을 그녀에게 건네 보자.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번과 같은 반응이 돌아 오면 문제는 선물도 아니라 당신이다.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들어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미안해 선물을 핑계를 댄 것뿐이니까. 화이트 데이에 한 번 더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할 작정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

× 빠빠로 데이 200% 활용하는 법

이제 서로를 탐색하는 중이라면 무순무순 데이만큼 좋은 것도 없다. 아무 사이다 아는데 선물을 생겨주기로 애매하잖아? 이때 각종 데이를 빌려와 당신의 센스를 보여주자는 거다. 가령 당신이 빠빠로 데이에 5만 원 어치의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빠빠로는 명목 상 1만 원어치만 사고, 2만 원으로 케미 전문점 상품권, 2만 원으로 귀여운 속옷이나 장갑을 사서 상자에 담아 건네는 거다.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 같거나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초시스하면 그녀는 뜻하지 않은

× 비싼 선물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사 연을 읽어보니 크리스마스와 설 선물까지 미리 준비 해봤다고? 여자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자들은 선물을 받는 걸 정말이 지 좋아리하지! 그녀가 진짜 좋아하는 게 당신이 주는 그 선물인지 당신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다. 그러니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라. 자, 이제 곧 설인데도 당분간 다가왔다. 화이트 데이. 건투를 바란다. ☺



사랑 투척하는 법

LOVE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MAXIM 여자 에 디터가 이젠 MAXIM 독자들의 고민을 일대 일로 상담해 준다. 그동안 LOVE 기사를 읽 다가 더 궁금했던 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 았던 지난날 여자의 행동 등 어떤 고민이라 도 좋다.

1. 설명, 가령, 별명, 아명 아무거나 다 상관 없다. 당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연애와 섹 스에 대한 고민을 털어내라. 뭐든 좋다.
2. 사연 보낼 곳은 alice@maximkorea.net 이다. MAXIM LOVE 상담소는 독자님들의 사연을 먹고 살아요. 흥흥흥.
3. 사연이 채택되어 지면에 실리게 되면 물론 선물도 있겠지? 단, '교환이 불가해요', '시 도 때도 없이 거기'가 서요' 같은 각종 의학 관련 상담은 받지 않는다. 에디터에게는 아쉽게도 의사 자격증이 없다.

고민 상담하러 가기



HEAVYWEIGHT CHAMPIONSHIP

대격돌! 세계 최강의 파이터

‘최강의 격투가’란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다. 과연 그게 누구인지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에 가장 근접한 자는 누구일까? 딱 한 명만 지목한다면 그것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UFC 헤비급 챔피언이다. BY 작곡: 김민호, 디자인: 이윤수, DESIGN: 진문경

JUNIOR DOS SANTOS VS ALISTAIR OVEREEM

*이 글이 표기 원칙에 따르면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는 알리스타 오버리임이 맞지만... 그렇게 부르는 아무도 못하겠어. 여기서 끝까지 산토스 오버리임으로 간다. (가까는 거 아예... 코앞자님)

내가 세계 챔피언!

산토스(사실은 ‘도스 산토스’가 성이다)는 현 UFC 헤비급 챔피언이고 오버리임은 타이틀 도전권을 확보한 상태다. 날짜는 미정이나 대전은 사실상 확정 상태다. 5월 27일 UFC 146에서 대전한다는 루머가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강에 프리뷰와 소문이 유난히 무성한 이유는? 그만큼 대박이니까.

UFC 헤비급은 ‘세계 최강의 파이터’를 논하는 남자들의 리그다. 그리고 지구 상 가장 강한 단 2명만이 그 자리를 놓고 겨룬다. UFC 데뷔전에서 산토스는 현존하는 가장 까다로운 파이터 중 1명이자 후에 표도로에게 최초의 1패를 안겨준 ‘킹 슬레이어’로 등극할 파브리우 베투를 꺾었다(라운드 KO). 그리고 UFC를 대표하는 수문장 가브리엘 곤자레스를 해치웠고(라운드 KO), ‘불사신’ 카민을 전원할치의 판정승으로 제친 후, 표도로의 뒤를 이을 황태자이며 불과 9년 만에 UFC 헤비급을 석권한 천재 파이터 케인 벨라스케즈까지 1리운에 참재우면서 UFC 헤비급의 왕좌를 차지했다.

1990년에 데뷔한 오버리임은 무려 48전의 레코드를 보유했다. 36승 11패 1무로 총 전적이 아직 15전에 불과한 산토스에 비해 경험이 매우 풍부한 코베리임이다. 그의 패배는 대부분 라이트헤비급(-93kg) 시절에

당한 것인데, 2008년경을 기해 헤비급으로 전향하면서 육체 개조를 단행했고, 사이즈와 함께 경기력도 급상승했다(일리에서는 이 변신에 어떤 ‘금단의 마법’이 동원됐다고 추측한다. 오버리임의 특별한 점은 MMA 파이터면서 K-1의 WGP를 석권한 데에 있다. 세미 솔츠 역시 MMA에서 K-1 WGP에서 우승했지만 K-1에 내려앉았다. 오버리임은 그러나 WGP의 월계관을 쓴 채 MMA로 복귀한 것이다.

산토스 역시 UFC에서 굉장히 힘든 대전을 돌파했다. 기구의 보호를 받던 어떤 ‘가디’라고 하면 선수와 달리 엄청난 벽센 스케줄을 뚫고 타이틀을 쟁취한 그는 진짜배기 챔피언이다. 오버리임은 K-1을 제패하고 MMA계로 돌아와, 표도로를 꺾고 주기가 급상승한 베투를 돌려세웠다.

둘의 진격로 주변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강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다. 두 선수의 대결에는 챔피언 벨트 이외에도 MMA 최고 스타라이카라는 칭호와 ‘모두를 능가한 지의 영웅’이 걸리게 될 것이다.

두 괴물의 인간 사립 이야기

오버리임(1960년생)은 외모와 달리 신사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지메이카 출신 부친과 네덜란드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오버리임은 만 6세 때 부모의 이혼 직후 네덜랜드로 이주한다. 학창 시절에 각종 스포츠에

재능을 보인 그는 형 빌렌타인의 인도로 격투기에 입문하게 된다. 초창기엔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MMA 선구자 바스 루트고 만난 이후 동기 부여가 확실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버리임은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트의 소개로 네덜랜드를 대표하는 명문 ‘골드 글로리아’의 일원이 됐다. 오버리임은 2000년 12월 파터 바슈렌겐에 급발 명색을 하고 나섰다. 그 모습이 (레슬리언 맨)의 웨슬리 스나입스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데블리언 맨파이터’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산토스(1984년생)도 편모 슬러에서 자랐다. 선전국인 네덜란드에서 자란 오버리임에 비해 산토스의 유년기는 다소 처참한 구석이 있다. 모친은 청소일을 하며 먼 달에 겨우 200달러를 벌었다. 산토스와 2명의 동생은 부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액수였다. 어린 산토스는 음식을 장만할 돈조차 떨어지자던 어느 날, 숨어서 눈물짓는 모친을 본 이후 “표도로보다 한발 먼저 날아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16세가 되자 산토스는 살비도르라는 도시의 식당에서 접사사로 일했다. 그리고 온 지역 의 거친 청소녀들에게 무료로 복싱을 가르치던 루이스 도리아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의 도장에서 산토스는 복싱의 정수를 배운다. MMA 왕국 브라질이라는 토양에 맞게 격투 스킬은 주차승은 이어졌다. 유리 칼들의 주지

수 도장 동료들은 길고 답수룩한 산토스의 헤어스타일을 보며 '시기도(집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주짓수 수련 과정에서 '영웅' 노게이라의 눈에 띈 산토스는 그의 도움으로 MMA라는 낯선 파라다이스로 들어서게 된다.

물풍선은 누가 낫나?

체격이라는 것은 작으면 불리한 것이 당연하고, 너무 크면 둔하고 느리게 미룬다(체급 한계 체중인 120kg을 넘어서도 안 되고, 현재 MMA 헤비급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중은 오브래임스위치가 가능한 오스톡스도스) 할 수 있다. 신장 196cm, 체중 120kg에 근원도 여아이다이다. 경기를 보면 스피드와 힘이 120kg이라는 한계체중 안에서 이상적인 밸런스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힘에 비해 빠르고 스피드에 비해 힘이 강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특별한 선수가 바로 오스톡스이다. 심지어 리치도 203cm로 매우 높고 오스톡스이다.

이에 비해 신장 191cm, 체중 109kg 리치 196cm의 산토스(오스톡스)는 전체적으로 오스톡스보다 작다. 근육량이 다소 떨어질 테니 그만큼 힘에서는 한 수 아래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민첩성은 체중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 이 정도 체격을 지닌 선수가 산토스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 크기에 비해 가장 빠른 선수 부문 역대 위로 놓아도 손색이 없다. 산토스는 빠르지만 힘이 없는 편이 아니고, 오브래임은 체격과 파워에 비해 빠르다. 스피드는 산토스, 파워는 오브래임.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다. 하지만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두 선수 모두 스피드와 파워의 밸런스가 무뎠아서가 뛰어난 고수들이기 때문이다.

전적 및 통계

48전 of 오브래임과 15전 of 산토스 전적 및 통계를 비교하기는 무리다. 경력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브래임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했기 때문이다. 오브래임의 통산 전적은 30승 11패 1노컨테스트 15KO 18사브미션(승률 75%, 이긴 경기 파니시율 94%), 만약 오브래임이 풀타임 헤비급으로 전향한 2007년 6월 이후 전적만을 본다면 14전 12승 1패 1노컨테스트 9KO 6사브미션 승이다. 승률은 85%(크로킵트의 노컨테스트를 빼면 92%), 이긴 경기에서의 파니시율은 91.67%.

산토스는 15전 14승 1패 10KO 2사브미션(승률 93.3%, 이긴 경기 파니시율 88%), 경험은 오브래임이 뒤처진다. 헤비급에서 대전한 상대의 수준은 산토스 쪽이 위다. 산토스는 훨씬한 길을 달려왔고 오브래임은 다소 쉬운 상대와의 대전 경력이 옥의 티라는 것. 오브래임 전적 중 12승 정도는 의미를 두기 힘들 정도의 약세를 상대로 거둔 것이다. 그렇

다고 할지라도 헤비급 기준 90%를 넘지 않는 승률과 파니시율을 기록하고 있는 두 선수가 붙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다.

특기와 약점 및 공격 포인팅

산토스의 경기 특징

1. **빠른 스탭**: 상대의 로직 간격 가정자에서 신중하게 기회를 보다가 타이밍을 잡으면 곧 폭발할 사이에 레인지(거리)를 잡아먹으며 들어오고, 또 상대의 공격이 나올 때 순식간에 레인지 밖으로 사라지는 압도적인 기동력이 산토스의 강(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예민한 타이밍 감각**: 경기에선 공격과 수비 타이밍이 번갈아 찾아온다. 타이밍 감각이란 상황에 맞춘 최면하게 대응하는 능력인데, 산토스는 공격 타이밍을 매우 빨리 잡아채며, 수비 전환도 빠르다. 산토스 앞서 자칫 실수라도 하면 큰 것 한 번을 먹게 된다. 반면 산토스 본인은 여기에 잘 당하지 않는다.

3. **뛰어난 격투 센스**: 상대의 움직임이나 의도를 엿보는 능력이 탁월함을 보인다. 흔히 말하는 격투 센스가 뛰어나. 한마디로 눈치가 빠르다.

4. **인사이드&아웃사이드 펀칭**: 스탠딩 공격 습성으로 로직과 앞치기를 가끔 내지만 주로 펀칭을 많이 쓴다. 산토스가 선보이는 인사이드 펀칭과 아웃사이드 펀칭, 상단과 하단의 고근 공격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 각각의 방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사이드 펀칭은 양팔의 카버링 사이로 들어오는 경우도, 아웃사이드 펀칭은 양팔의 카버링 바깥쪽을 때리는 주먹이다(그림 1 참조). 산토스의 왼손 폼과 오른손 이퍼컷은 인사이드 펀칭, 왼손 후과 오른손 오버헤드는 아웃사이드를 공격한다. 이는 펀칭의 기본이기에 속하는지. 복싱이나 임식 격투 기에서는 8온스, 10온스의 큰 글러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버링이 다소 쉬운 반면 MMA에서 쓰는 4온스 오픈핑

거 글러브는 작아서 방호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산토스가 재빠르게 움직이며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섞어 콤비네이션을 구사하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많은 뉴 피터들이 산토스의 이러한 안-아웃 콤비네이션을 먹고 녹아내린 바 있다.

그리고 산토스는 앞 무릎을 굽혀 체고를 낮추면서 던지는 보디 찰과 보디 스트레이트를 자주 구사한다. 복싱의 레벨 체인지 판칭이라는 건데, 보디 공격과 동시에 머리는 디징 오션이 나오는 공방 일체의 재미 있는 기법이다. 잘 들어오면 보디 공격이 성공하면서 상대의 카운터가 머리 위로 차가게 된다.

하지만 이 기술은 무에타이계에서는 일종의 금기다. 무릎을 손처럼 쓰는 낙무아이는 니킵으로 이것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오브래임은 기본적으로 니킵으로 공인 낙무아이를 속출을 자르기도 한다. 산토스는 이 경기 예사만큼은 이 기법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약점은 어디에**: 약점은 사설 파악이 안 된다. 펀칭 시 오버블로(손바닥)가 깨기 자주 나는 건 스킵 경기 가 아닌 이상 약점으로 꼽기 힘들고, 오픈블로로도 충분한 데미지를 전달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공격 옵션이 단조로우 보이지만, 펀칭의 변화가 심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점으로 보지는 않는다. 체력도 매우 좋고, 오브래임과 맞붙는다면, 크로킵과 크리운드 통산 스탠딩에서 맞선서 크로킵의 특기인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여러 대 얻어맞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벨스과 카번의 무거운 펀치를 허용하고도 끄덕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떠올려보라. 물론 크리운드에 약할 거만 예상치 않지만 확실히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의 테이크다운 시도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이나, 테이크다운당한 직후 재빠르게 일어나 상대를 항하게 만드는 장점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브래임의 기묘한 초크를 생각해보면 역시 크리운드 싸움에 다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오브레임 준비 완료

뒷발이 앞으로 나오며 (스위치 되어) 거리를 좁힌다.

클린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왼쪽 니킥 일발 장전

단단하게 붙잡으며 니킥 발사

흑~

숨통이 턱 막히는 순간



주니어 도스 산토스의 레플 체인저와 래프트 흑의 연계

다. 이유는? 오브레임은 가끔 스위치 스탠스를 취한다. 여기서 오브레임의 선택은 흥미롭다. 상대가 오소독스만 사무스로 스위치할, 사무스로 상대로는 오소독스를 유지한다. 킥 특히 니킥의 활용을 높이는 선택으로 보인다. 스탠스 위치상 서로 다른 손끼리 대전할 때 뒷손과 뒷발을 쓰기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2 참조.**

하지만 산토스를 상대로는 스위치가 좋을 게 없다. 산토스의 오른손 펀치는 MMA를 대표하는 결정 병기이고 왼손잡이 자세를 취하면 산토스의 오른손 오버핸드의 여파까지 위력을 더해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두 선수가 서로의 경기 구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사소한 중 일부를 아끼면서 싸우야 한다. 산토스는 하단을 노리는 레플 체인저를 고이 잡아놓았다가 외외의 타이밍에 깨내야 하고, 오브레임은 로직을 사용하되 임하기 쉬운 타이밍에 내선 안 되며 스위치 스탠스로 산토스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

경기가 그리드론 내레갈 가능성도 물론 있다. 타격전을 피하고 싶은 오브레임이 트랜지션을 걸거나, 산토스 역시 그리드론에서 구르다 보면 글란 힐이 빠지는 오브레임의 체력을 공격하기 위해 그리드론을 선택할 거란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산토스의 그리드론 능력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기가 힘들므로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클라게 '그냥' 보도록 하자. 그리드론전 예상은 데이터가 부족해 힘들다. 다만 그리드론의 공격력은 오브레임이 다소 우위로 예상되며, 그리드론에서 소모된 양상이 벌어지면, 오브레임의 체력 문제 때문에 산토스에게 더 유리한 전개가 될 거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경기 초반 즉 두 선수가 100% 풀 차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포인트들이 중요할 것이다. 오브레임의 니킥이나 산토스의 편칭 모두 UFC 해비급을 대표하는 무사운 병기다. 이 중 하나가 타지던 승부의 축은 한쪽은 크게 기울게 된다. 경기 초반은 일종의

지뢰밭이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초반은 백중세, 예상 불가능이라 할 수 있다.

2. 중반 이후
산토스 역시 인라인과 리드온보다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 갈수록 느려지고 편칭 위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오브레임에 비해서는 다소 우위에 있다. 오브레임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강격도 급격히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약점은 육체 개조 이후에도 여전히다. 배우동과의 경기 3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다. 문제는 집중력이 바로 떨어지면서 타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산토스를 상대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타이틀 매치는 5라운드를 달린다. 산토스 역시 3라운드 이상 뛰어난 경험은 없다. 3라운드 이후는 두 선수 모두에게 미지의 영역이다. 경기가 이렇게 길게 갈 가능성이 극히 작긴 하지만, 여기까지 갔다면 산토스에 조금 더 유리해질 것이다.

3. PED 변수
오브레임은 UFC와 계약에 따라 레스너전 이후 6개월 동안 2회의 불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토스와의 대전을 준비하는 동안 인제네 체득위원회는 오

브레임 검표를 방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브레임이 본인 주장처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기타 여러 가지 강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즉 순수한 트레이닝만으로 몸을 키웠다면 검사 가 두 번은 다섯 번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의 육체 개조가 약물 덕분이면 이 불시 테스트 때문에 약을 투여해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오브레임의 체구와 능력은 유지되기 힘들다. 경기는 해보나 마나. 이 포인트는 앞서 늘어놓은 모든 잡설보다 중요하다. 결론은 여기서 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없지는 않다. 특히 래프트 오브레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등장해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이길 간절히 바란다.

4. 현지 도박사들의 예상
BETUS의 배팅 라인을 참조해보면 현지 도박사들은 산토스 160 대 오브레임 2.35로 산토스의 승리 가능성을 다소 크게 보고있다. 개인적으로도 산토스가 두 약간 우세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선택에 자신감은 없다. 그만큼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고, 늘 그랬듯 과수들의 싸움 결과는 지극히 예상하기 힘들다. **W**

주니어 도스 산토스		알리스타 오브레임	
연 복	14승 1패 10KO 23UB	36승 11패 15KO 190UB	
피 타 시	86%	94%	
주요 승리	배우동, 곤자가, 카일, 벨라스케즈	배우동, 레스너	
역 점	서독 해비급 평형 1위	서독 해비급 평형 3위	
성 향	타격 위주의 스탠드업	각 분야의 밸런스가 좋음	
특 기	원손 엘 윈스, 흑, 라이트 오버핸드, 라이트 아퍼컷	클린치 최우 니킥, 기요틴 킥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저 끈이 끊어지도록 힘쓰고 계시는
지구 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 보면
남자가 아니야



IMPORT THIS GIRL! KATE UPTON

케이트 업턴을 수입하라!

IMAGE Getty Images/Multibits DESIGN 서윤경

케이트 업턴. 33D-25-36. 1992년 6월 10일 생. 미국 유명 매거진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의 수영복 홍보 모델이다. SI의 수영복 이슈 하면, MAXIM만큼이나 여체를 보는 데 까다롭기로 소문난 안목과 긴 역사를 자랑하는 화보다. 게스와 빅토리아 시크릿 등 찻질하고 아름답게 여체를 표현하는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한 케이트 업턴은 올해 제대로 이름값을 압하고 있다. 미국 남자들이 꼽은 최고의 이상형인 그녀는 지난 2월호의 수영복 이슈의 커버 모델을 뺀채로 송승정구하는 중. 4월 개봉 예정인 <바보 삼총사>에선 D급 가슴을 수녀복으로 광공 싸고 나와 사랑을 더 미치게 만들 거다.

BEST MOMENT IN YOUTUBE HISTORY



1. 2011년 LA 클리퍼스 경기장에서 춤을 추는 장난스러운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녀. 조회수는 지금까지 약 370만에 달한다. <http://youtu.be/FcJSBUlEX4>

2. 2011년 한 수영복 패션쇼 런웨이를 걸을 때 쓰나미 같은 규모로 몰락날락하던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 곡선을 담은 '빅키니닷컴'의 영상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다. 조회수는 약 264만. <http://youtu.be/U62stubaal4>

소설과 영화의 위대한 감동



DOCTOR ZHIVAGO

A NEW MUSICAL

닥터지바고

소중한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

뷔페 패키지

VIP석 1매 + 롯데호텔 월드킴 라세스 뷔페이용권 1매

~~214,700원~~ → 172,000원 (1인 기준)

※ 구입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소중한 사람과의 유쾌한 시간

펍 패키지

R석 2매 + 롯데호텔 월드킴 메가씨씨 펍이용권 1매
(장동하우스맥주 500CC 2잔 + 안주 1매)

~~272,391원~~ → 215,000원 (2인 기준)

※ 구입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뮤지컬!

사롯데씨어터 Now Playing

닥터지바고
티켓 받기!



출연 조승우 홍광호 김지우 전미도 최현주 강필석 서영주 김봉환 임선애 외

주최 SBS | 후원 OD 오디뮤지컬컴퍼니 | 후원 LOTTE ENTERTAINMENT | 후원 오픈리뷰 | 후원 KVM | 후원 LOUNGE

예매 인터파크 | 오픈리뷰 | 롯데닷컴 | 11번가 | 예스24 | 옥션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지금은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처자들이 떠나거지로 나온다고? BY 박한빛/두레 DESIGN 신소희



KBS2 <춘천볼배 시즌2>
토요일 밤 11시

원래는 본격 안구 정화 심층 미소 프로그램의 단연 TOP였지만 시즌 2로 바뀌면서 시청률이 애국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최 예능의 길을 잡지 못하는 지현우, 존재감 없이 그냥 예쁘기만 한 수지, 양버는 아직도 여자들 사이에 있는 게 익숙지 않다. 그래도 걸그룹 예시들을 한 시간 내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니 안타까운 마음 반, 호뭇한 마음으로 채널을 고정한다. 야근도 효연이가 이렇게 예뻐했어? 역시 소녀시대는 어디에 단재년도 중간 이상은 가세 그라

MAXIM SAYS 한이름 데리안



XTM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수요일 밤 12시

레이싱 모델부터 아니너까지, 각각각색의 12명 모두가 마음에 속 드는 게 채널을 돌릴 수가 없다. 남자 출연자는 12명의 여자출연자 중 '나에게 반한 그녀'를 찾아내야 한다. 남자를 완벽하게 속인 여자는 상금 200만 원을 획득한다. 자기가 진짜 반한데도, 왜 내 마음을 몰라주며 더 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던 처자가 물벼락을 맞고 순식간에 돌변하는 순간이 가장 재밌다. '남친이 자기와이래서 상금 타려고 나왔어요.' 심지어 '남편이 자기와이어서' 등의 드립을 놓는 순간, 여자가 참 싫어할 수 있으니 삼참할지 않게 조심할 것.

MAXIM SAYS 결혼한 여자는 나오지 마



OBS <김구라 문화준의 검색녀>
목요일 밤 11시

<세바퀴> 중편 버전 '검색녀'라고 해서 뭔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검색어를 두고 퀴즈도 풀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다. 프로그램은 <검색녀>인데 출연한 여성들보다 남자 게스트들만 썰 부는 모습이 영 찡찡하다. 방부제(재동인), 스캔 (순식간에 남성을 파악, 품질보증녀명명대생), 아영녀(밤에 잘 돌아다니는) 등 이슈에 목마른 출연연인 급 처자들의 수위 조절 안 되는 토크가 깨알 재미다. 근데 OBS도 나름 공중파인데 방송 효용이 케이블보다 증권방으로 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MAXIM SAYS 카메라 감독님 번서은 좀 더 잡아줘요.



Comedy TV <알팡시대 시즌6>
토요일 밤 8시 50분

쥐도 새도 모르게 시즌 6까지 나와버린 프로그램 본방송 사수하는 일은 드물지만 채널 돌리다가 가끔 봐주면 쓸쓸한 재미가 있다. 나이를 먹은 건지 눈이 이상해진 건지 방송을 보면 '일본인 데리고 뭐하는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들의 셀카 사진을 보면 '저러서 알팡인가?' 하고 바로 수긍해버린다. 돌풍이 가 요동칠 만큼 초급 처자들은 어...야도 이제 갖 수 살아 똘똘한 귀여운 모의덕에 어느새 심층 미소를 짓게 된다.

MAXIM SAYS 괜히 나와서 안티 만들지 말고 집에서 셀카나 찍어

쇼핑을 홍보는 이제 그만!

자구에 화성인이
뒤 이렇게 많이 살아?



한밤 패션녀

영화 20대 한파에도 카탈미트와 배급미를 입고 다니는 처자. 적은 가슴 볼륨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고 사계절 내내 노출이 심한 옷을 고집한다. 아주 바람직한 처재(?)지만 이런 너무 조악 남새가 풍기잖아 제작자, 지금 남새에 예를 벗겨 놓으라 침 조마다.



모바일 빈대녀

모바일 어플 '하이데어'를 이용하여 별도 연막고 술도 먹는 현대판 거지. 나 흥대, 크림파스타 사주실 분? 글을 올리면 월 병신일이 10분도 안 되서 밥 사주겠다고 식당으로 찾았나. '나 지금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 하실 분, 흥대에서 남 예쁜 반지 발견 갖고 싶다' 이런 식으로든 한 루 안 돌이고 의사주(?)를 해결한다. 너 진짜 짱인듯.



화장 성형 6인방

응? 누구시요? 화, 인생 중경하고 싶어주세요

FX
남자의 모든 것

힘 꽤나 쓰는 형님들이 온다!

FX 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The World's Strongest Man
2012 세계 정력맨 챔피언십
매주 [월-수] 밤 10시 30분

t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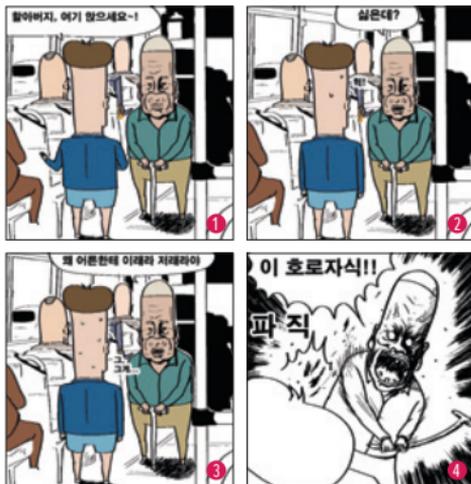
FX Channel | SKY | SKY+ | SKY+2 | SKY+3 | SKY+4 | SKY+5 | SKY+6 | SKY+7 | SKY+8 | SKY+9 | SKY+10 | SKY+11 | SKY+12 | SKY+13 | SKY+14 | SKY+15 | SKY+16 | SKY+17 | SKY+18 | SKY+19 | SKY+20 | SKY+21 | SKY+22 | SKY+23 | SKY+24 | SKY+25 | SKY+26 | SKY+27 | SKY+28 | SKY+29 | SKY+30 | SKY+31 | SKY+32 | SKY+33 | SKY+34 | SKY+35 | SKY+36 | SKY+37 | SKY+38 | SKY+39 | SKY+40 | SKY+41 | SKY+42 | SKY+43 | SKY+44 | SKY+45 | SKY+46 | SKY+47 | SKY+48 | SKY+49 | SKY+50 | SKY+51 | SKY+52 | SKY+53 | SKY+54 | SKY+55 | SKY+56 | SKY+57 | SKY+58 | SKY+59 | SKY+60 | SKY+61 | SKY+62 | SKY+63 | SKY+64 | SKY+65 | SKY+66 | SKY+67 | SKY+68 | SKY+69 | SKY+70 | SKY+71 | SKY+72 | SKY+73 | SKY+74 | SKY+75 | SKY+76 | SKY+77 | SKY+78 | SKY+79 | SKY+80 | SKY+81 | SKY+82 | SKY+83 | SKY+84 | SKY+85 | SKY+86 | SKY+87 | SKY+88 | SKY+89 | SKY+90 | SKY+91 | SKY+92 | SKY+93 | SKY+94 | SKY+95 | SKY+96 | SKY+97 | SKY+98 | SKY+99 | SKY+100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 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도핑 테스트가 필요한 웹툰 작가

이들은 약 빨고 작업하는 게 확실하다. 보통의 정신 상태로는 이런 만화를 그릴 수 없을 테니 말이다. BY 박한누리 DESIGN 권은경



열혈 초등학교 - 귀귀

원초적 개그 만화. 어쩌나 단순 무식한지 얼마 전 돌잔치에서 연필을 집은 조개(박동희, 1세)가 보고 뺨 터져서 초유를 못 먹었다. 하지만 2012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뒤, <조선일보>한 데 리어 네이카드 초크를 맞고 강냉이 달린 귀귀는 연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폭력이 아무리 이슈리지만 신문 1면에 대문짝만 하게 디스할 정도로 그렇게 폭력적이었나 싶기도 하다. 덕분에 최근 몇 화를 제외한 모든 작품이 삭제된 상태. 쟁전. <말만대장강만금>이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잃은 기분이다. 끼어끼어

레전드 작품: 백 원



김탁봉만화 - 김탁봉

웃대에서 '탁탁하다' 오줌싼 농'이라는 낙네임으로 활동하며 그림판에서 고적거린 그림이 잉여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본적인 틀이나 개념 있는 내용 따위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규제 따위는 옛이나 바뀔면이라는 식으로 난무하는 욕설과 패륜적 스토리가 태양초 오추장처럼 우리 입맛에 짝딱 달라붙으면서 리니지 못지않은 중독성까지 있다. 얼마 전 은퇴를 밝혀 많은 팬의 눈물을 자아냈지만, 워낙 그림체가 허접스러워 그를 추종하는 몇몇 잉여가 그림판으로 마우스를 휘두르며 그 명맥을 이가고 있다.

레전드 작품: 진품 명품 만화



“당신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의 여행”

Musical The Story of My Life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스캔하고
티켓받기



아름다운가게 동승동 헌책방과 함께하는 책기부 1만원 할인

R석 6만원 → 5만원 / S석 4만원 → 3만원 (티켓1매당 책 1권 기부)

※ 자세한 내용은 예매처에서 확인하세요!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Now Playing

연출 신춘수 출연 이석준 고영빈 이창용 정동화 조강현 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후원 S LOUNGE

공연예매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BCLOUN.G 1577-4388 맥스티켓 1544-0113 롯데닷컴 1577-2365 공연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아니 이런 바비 인형처럼 생각지 않겠어?

정바비가 만난 봄 같은 여인 로지피피

입춘이 지났다. 응당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남자의 도리 아니던가.

BY 정바비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로지피피(Rossy PP)는 작년 10월에 데뷔 앨범(Aloha Oe)을 내고 활약 중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다. 타이틀 곡 '고양이 외의 대화나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조관-기인 테마로 쓰인 'Falling In Love'처럼 로맨틱하고 세련된 곡들을 듣다 보면 평소 그녀의 생각이나 앨범의 뒷얘기가 궁금해지는 것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데뷔를 왜 일찍 했죠? 2006년이니까... 그리고 소속사를 몇 번 옮겼고요.

처음 있던 곳이 도레미 미디어였는데, 희의를 하고 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이사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픽업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회사를 나가고 난 다음 좀 애매하게 됐죠. 다행히 또 다른 분이 계약 해지를 도와줘서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프로듀서 방송철 씨께서 연결해주신 또 다른 회사랑 미니 앨범을 냈어요. 정규 1집으로 가기 전에 홍보를 좀 하자는 취지였는데 불행히도 이후에 회사가 파산이 됐죠.

소속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던 편인데, 현 소속사인 울드 레코드랑 계약하면서 세운 기준이 없었나, 결정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먹고사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음악 자체를 하느냐 미느냐를 고민했죠. 사람이 많이 만나려고요. 결국 다른 길 떠나 제 음악을 온전히 하는데 서포트가 되는 회사인지만 봤어요. 금전

적 자원이라든지 행복한 매니지먼트 같은 건 필요 없고, 사실 돈은 먼 데서 벌어도 되니 음악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예전 소속사 동료인 마이뮤의 소개로 울드 레코드 대표인 용원 씨를 만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용원 씨 본인도 뮤지션(엘로우 몬스터즈)이잖아요. 가서 공연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그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용원 씨는 레이블을 만들고서 외부 아티스트로는 로지피피 음반을 첫 번째로 한 거죠? 처음엔 울드 레코드라는 게 엘로우 몬스터즈의 음반을 내기 위한 창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가 제작인데 레이블 이름만 단 거라고 말이죠.

사실은 저를 만나고서 한번 제작을 해보려던 차에 본인이 회사 운영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밴드 앨범을 먼저 하면서 경험을 쌓아보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호가 앨범, 2호가 저, 3호가 최근에 계약한 타루먼 거죠.



그녀의 음악 세계로



<Aloha Oe>가 정규 1집이지만 예전에 발표한 곡의 비중도 상당해요. 정말 1집이다, 데뷔한다는 실감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걸 일관되게 짓는 다는 느낌?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미 로지피파라는 이름으로 오래 활동했는데 예전부터 들어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느낌 1집을 내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활동이 대중한테 거의 노출이 안 된 편이죠.

활판된 음반도 있다라고요.

그렇 거예요. 사실 저도 세 음반이 없어요.(웃음) 이번 에 나온 앨범도 부모님 드리고 누구 주고 하다 보니 저한테는 한 정도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Aloha Oe>와 예전 작업을 비교해보니 예전엔 흑인 음악 색깔이 많던데요. 지금은 인디팝이나 예시적인 인 색깔이 강해졌고요. 음악 취향의 변화를 반영한 건가요?

이런 지런 스타일을 두루두루 좋아하는데, 흑인음악적인 접근이 예전에는 더 편했어요. 혼자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다해야 하는 환경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번엔 세션 연주자도 쓰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죠. 그러면서 동일성을 거둘 수 있죠. 고민했어.

개인적으로 'Love Fixer'란 곡을 좋아해요. 보컬 별로 다른 것인데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흑인음악이 갖고 있던 밝은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그 느낌을 무척 좋아해요. 70년대 흑인과 백인이 섞인 보컬 그룹, 여자들이 울음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말 신나죠. 마음 맞는 분들 만나서 그런 사운드를 구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재미도 있을 거 같고요.

여자 싱어라이터 중에서 로지피파의 감성은 리듬감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도 비트에도 관심이 많으신지요?

곡을 쓸 때 리듬도 굉장히 중시해요. 리듬과 멜로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곡 색깔을 막 상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완성해나가는 것 같아요.

'고양이와의 대화'는 곡 자체는 편안하게 들리지만 리듬이 매우 독특하고 강해요.

그 노래는 초기 데모 느낌이 거의 마지막 버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곡을 라이브에서 같이 연주해보자고 하면 다들 좀 낯설어하셔요. 그래서 조금은 상처도 받았죠. '내가 곡을 잘못 썼나?' 하고.(웃음)

흔히 쓰지 않는 비트를 곡 전반에 걸쳐 잘 어울리게 사용한 걸 보고 비트에 관심이 있는 싱어라이터구

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리듬이 강조된 음악도 많이 들어나요?

삼바나 쿠바 쪽 음악을 무척 좋아해요. 예전에는 머라 이어 캐리 스타일의 팝이나 뮤직 소울차일드 같은 부류의 신나는 걸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쿠바나 브라질 음악을 많이 들어요.

재미있는 편곡 시도도 눈에 띄어요. 'Falling in Love'의 롤루트 편곡이든가, 'Love Fixer'에서 기타 연주도 인상적인데요.

기타리스트 노경환님의 연주인데, 멜로의 한정된 피스스로 앨범에 참여하셨어요. 세션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고. 'Love Fixer'의 기타는 저도 굉장히 맘에 들어요. 원래 메탈 음악을 연주하던 분이요. 그런 사운드를 내는 장비를 따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 이상을 내주셨죠. 아주 끈적하게(웃음) 무엇보다 연주자 자신이 정말 신나서 연주하셨어요.

자주 읽는 의상이나 이번 앨범 재킷 이미지를 보면 시각적으로 좀 힤피적인 느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60년대 히피들이 못 읽는 스타일과 색깔을 쓰는 방법. 그들의 미인도 같은 걸 좋아해요. 히피가 되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니지만요. 지금 세상에 원하는 히피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 그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시도했던 건 의미가 있죠.

음악적 취향과 시각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갖고 있는 취향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서 흥미롭네요.

시절이 지나서 뭔가 더 우리나라는 게 있으면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모든 것이 처음이고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ㅎ**



사실 이날 아주 예쁜 차마를 입고 왔는데 아침게도 지엔다는 생선산 샐만 들어가 가슴이 미어지더. 로지피파의 아름다운 자태와 매력적인 목소리가 곡 금하신 문은 그녀의 홈페이지(www.rossypp.com)에서 공연 소식을 체크할 것!



뒤에 청광등 10개 켜놔요.

MAXIM 독자들을 위한 화이트데이 작업소 5

보너스로 화이트데이를 맞이하는 남녀를 위한 감미로운 음악을 로지피파에게 추천받았다. 정말 하나같이 실상 녹는 마시멜로 같은 곡이니 일어서든 살전에 응용하시길!

유저서 이름 / 곡목
Maxwell /

Whenever Whenever Whatever
Babyface / Mad Sexy Cool
Robin Thicke / Lost Without You
Elvis Costello / She
Michael Buble / Everything

제 노래 중에서는 '뽕뽕'을 고를까 해요. 다른 곡과 달리 이 노래는 막 시작되는 사랑의 느낌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지피파 노래를 들으며 작업을 걸어도 될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시도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흐흐.

작업소 토라 있으면 4S 해주시나요?

오네찬바라 Z: 카구라

대체 미소녀와 좀비는 무슨 관계이길래?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눈으로 봐야
진국



오네짱(누님)+찬바라(칼부림)는 괴상+지랄 맞은 제목 그대로 어여쁜 누님이 나와서 신명 나게 좀비에게 칼부림을 선사하는 게임. 지난달 소개한 <올리브 체인소우>와 궤를 같이하는 심플&화끈 액션 게임이지만 미소녀 좀비물의 원조라고 하면 단연 이 작품이 언디다. 그 시작은 비록 싼 맛에 즐기는 심플 2000시리즈(2,000엔에 판매되어서) 6번째 작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유의 폭력 묘사와 피가 물에 닿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일족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키니가 남성체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역시 폭력과 섹스 어필은 언제나 먹히는 최고의 흥행 코드. 물론 B급 문화를 즐기는 일부 마니아에게

만 환영받는 수준이었지만 이를 모티브로 한 게임도 줄줄이 발매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리비아 아이들을 동원한 영화가 제작되는 등 이쪽에서는 꽤나 인정받는 작품이다.

이번 최신작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아야가 내려가고 새롭게 기혈족과 흡혈족의 혼혈인 카구라와 사이야 자매가 히로인으로 등장한다는 것. 주인공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비키니 검사+채슬가 여동생의 조합은 변한 게 없으니 큰 위화감 없이 즐길 수 있다.



비키니 검사 카구라
 사용 무기: 쿠로 바치 카이
 하이드라 블레이드, 역시!



도도한 표정이지만 온근 캐릭터.



《플리밍 체인브우》의 즐리전과 좋은 라이벌이 많았



여고생 중비 발육중 사이야
 사용 무기: 제이슨 전기톱
 오우거 핸드, 모닝스타



이번 구매지에 의해 주어진
 이슬이슬 수명막
 노출도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신묘한 게임의 법칙

IDEA POCKET 이대!



전작의 아이, 사기 지매가 적으로 등장!
 물론 DLC로 그들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D3 퍼블리셔 대표작



데이인

남국의 섬으로 그라비아 활영을 떠난 아이들 후타바 리코가 외계인 때문에 갇히기 거인

로 뵈면 본의 아니게 도심을 파괴하고 있다. 등장 뛰어나가서 저 괴물, 아니 저 미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왜 소리 사이즈를 측정하라고 그러냐, 사기니까 한디만. 호호...



드림클럽

오직 신사들을 위한 풍속점 드림클럽에 초대된 당신. 평일에 배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이곳에 때려 넣으면 예쁜 언니들이 당신의 앞 상대가 되어준다. 호감도에 따라서 춤도 쳐주고 데이트도 해준다. 본격 룰상용 사물레이션



지구방위군3

외계 침략자들에 맞서 지구를 지켜라! 거대 게이머 로봇, 비행접시들이 도시를 초트환한

다. 거대한 적에게 풀지 마라. 지구방위군의 막강 화력 앞에 적들은 콤포트 앞의 비키발레일 뿐이다! 그런데 어째 우리 동네가 더 망가지는 것 같아.

바이오해저드 6

3년 만에 부활하는 서바이벌 호러 시리즈 최신작,
최고의 호러 엔터테인먼트에 도전한다.

BY 게이머즈 편집부 DESIGN 권운경



트레일러
보기



Xbox 360 / PS3

- 서바이벌 호러 ● 공포
- 2012년 11월 23일 발매예정(해외)

©CAPCOM CO., LTD. 2012 ALL RIGHTS RESERVED. ※ 화면은 개발 중의 것, 로고는 영문판의 것임(국외).



STORY

무대는 라쿤 시티 사건으로부터 십여 년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바이오 테러는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은 '라쿤 시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단한다. 그러나 강연 당일, 강연장에서 대규모의 바이오 테러가 발생, 대통령의 친구이자 라쿤 시티 사건의 증인으로서 강연에 참가한 레온·S·케네디는 좀비로 변해버린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

한편,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벌어진 바이오 테러 중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대항 조직인 'B.S.A.A.'가 출동, 대장인 크리스 레드필드도 현장에 향하게 된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바이오 테러...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헬레나 하퍼(Helena Harper)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 강연 도 중 발생한 바이오 테러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던 후 레온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된다. 레온에게 테러 사건이 자신의 뜻이라고 밝히는데...

자신 때문에 대통령이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헬레나. 그럼 넌 사형.



레온 S 케네디(Leon S. Kennedy)

《바이오해저드 2》, 《바이오해저드 4》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사내. 미국에서 개최되는 강연에 라곤 시티 사건의 증인으로서 참가했다가 헬레나 대통령 암살범으로 몰려 헬레나 하퍼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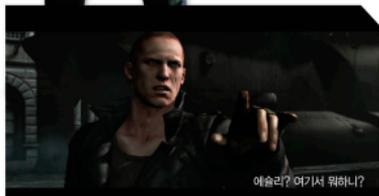
대통령들과 자꾸 엮이니까 적 바꾸어 갈잖아...



레온과는 최초로 같이 등장

크리스 레드필드(Chris Redfield)

시리즈 초기 주인공으로서 최근작인 《바이오해저드 5》에서 B.S.A. 대원으로 활약.



애슬리머가서 뭐하니?

제3의 주인공(Secret)

‘세계를 구할 자라고 불리는 의문의 남자. 이름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 상태. 금발의 여성과 함께 제3의 지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 3명의 주인공과 파트너

《바이오해저드 6》에는 서로 다른 주인공이 활약하는 3개의 메인 스토리가 존재한다. 게임 초반에 플레이어가 어떤 메인 스토리부터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주인공에게는 파트너가 붙어 있다. 시작하는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3개의 스토리가 교차할 것임이고, 《바이오해저드 2》의 재평가 시스템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과연 주인공들은 어떤 식으로 마주치게 될 것인가.

+ 준비 또 다시

《바이오해저드 4》에서는 가나도, 《바이오해저드 5》에서는 마지나... 그동안의 시리즈에서 중지를 감추었던 준비. 이번 《바이오해저드 6》에서는 바로 그 준비가 부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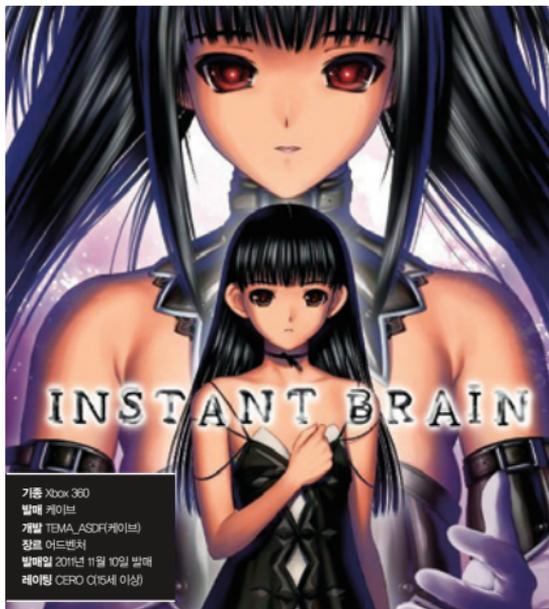


슬라이딩으로 준비를 저격 도미어 조작하지 못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수 있을까.

+ 쥬야보

트레일러 영상에서 쥬야보가 재생을 한다는 언급이 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준비 이상으로 놀라운한 존재라는 것 밖에는.





기종 Xbox 360
 발매 키워브
 개발 TEMA, ASD(키워브)
 장르 어드벤처
 발매일 2011년 11월 10일 발매
 레이팅 CERO C(15세 이상)

미소녀게임열전: 인스턴트 브레인 (INSTANT BRAIN/インスタントブレイン)

게임 영상
 보기



과거를 찌는 카메라로 추리한다! BY 스틸로케이(가미야즈) 김경은 기자 DESIGN 신숙희

그 카메라는 '과거를 찌는다'
 미래 도쿄, 주인공 '바리타키 젠야'는 도쿄 بند루
 리의 잡거빌딩에서 살고 있는 피파라치. 최고의
 파트너인 카메라 '엑스포저(엑스포ージャー)'
 와 함께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생활을 보내
 고 있는 가난한 남자다. 하지만 밖에서는 '평범한
 인간은 절대 촬영할 수 없는 스쿠프를 손에 넣는
 전설의 르포르타지'라고 불리며 대단한 취급을 받
 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엑스포저라는 카메라는 '과
 거를 찌기 때문'이다.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마음

속에서 떠올린 순간, 물건이나 장소에 과거의 사념
 이 떠도는 순간, 엑스포저는 그것을 포착한다. 일
 종의 초능력에 가까운 이 엑스포저의 특징... 이것
 이 바로 그를 전설로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바리타키 젠야는 허전보다 이전의 기
 억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채, 엑
 스포저와 메이드 타입 안드로이드, 동침 '시'와 합
 개 스레키징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년 후, 우연한 계기로 의뢰를 받은 '돌
 아이들의 뒷스토'를 조사하는 동안, 엑스포제가

우연히 같은 소녀의 모습을 연속으로 포착한다.
 젠야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는 과정에서, 연에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과거의 사건과, 이를 둘러
 싸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기 시작한다.



게임의 정리는 최근 유행하는 연애 어드벤처 방식
 이 아닌, 원년에 유행했던 추리물을 표방한 텍스
 트 어드벤처. 그렇기에 히로인을 공략한다는 개념
 은 없으며, 사나리오는 고정된 외길 루트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총 7장으로 이루어진 사나
 리오는 각 장마다 '발단 파트', '추사·추리 파트',
 '해결 파트'의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주인공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 엑
 스포저 때문에 리얼리티보다는 SF의 냄새가 강하
 게 온다. 주인공은 인물이나 물건에 사념을 포
 착하여,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을 재현해주는 카
 메라를 통해 얻은 증거로 범인을 유추하지만, 이
 카메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제약 때문에, 손에 넣은 증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
 으로 범인을 지목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추리물에
 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전개를 보여준다.



* 주의 이 코너에는 게임에 대한 소문과 관련된 내
 리, 개발라기 등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계획하신 분은 잘 판단하시기 바
 람니다.재천 못 합니다.



바리타키 젠(原蒲ゼンヤ)

'광범한 사람은 절대 활영할 수 없는 스퀘프
'를 손에 넣는 전설의 리프라이더'라는 엄청난
명령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세는 2년째
체납 중. 가스, 수도, 전기는 곧 끊기 직전...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는 시니컬한 성격에
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



자코 클로에(黒黒クロコ)

만영 최대 TV 방송국인 '채널 ∞(원비우스)'의 인형 프로듀서. 할
아버지가 채널 ∞의 회장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은 그녀가 부모가
족의 특혜를 받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센
스와 실력으로 경쟁사회를 뚫고 올라온 실력파 업계 최연소 프로
듀서다. '시창틀의 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방송의 숫자
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작품의 사건은 대부분
그녀의 의뢰에서 시작된다. (CV: 사와시로 미유기)



안드로이드 - 시(アンドロイド・シ)

형식번호 H4667C의 메이드 타입 안드로이드. 통칭 시(C). 젠야와 마찬가지로 6년 전 이전의 메모리가 남아간 상태이며, 어디서 만들어졌고 누가
사용하던 것인지는 불명. 본인이 말하길,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커스터
마이즈 기종이기 때문에 시중에 내다팔면 근처의 고급 매너 한나 정도는
살 수 있다고약 1억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젠야는 언제나 그녀를 끌어올
까 생각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 굶어 죽을 거라 한 반박을
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다. 초반 및 중반에서는 주인공 시프트 이상의
역할은 없는 캐릭터이지만, 실은 이번 작품 전체를 이루는 스토리의 핵
심 인물 중 하나. (CV: 노토 마미코)



킨쇼쿠 미쿠리(篠崎ミクリ)

제국수도경찰 수사과에 소속된 신참 형사. 매사에 열심인 노력파이지만,
지나치게 진지한 성격에 융통성이 0.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
고 강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잘 타며,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편.
첫 시간부터 젠야를 만난 취급하면서 대치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을 젠
야가 훌륭히 해치워버리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풀이 죽어가
는 그들의 모습이 이 게임의 볼거리 중 하나다. 오오 후카와는 친구 사이
(CV: 이노우에 마리나)



오오 후카(王城フーカ)

제국수도경찰 과학수사반에 소속
된 감식관. 다소 딱딱한 분위기의
직업과는 달리, 중증의 마담 아이
를 오타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방송국 출구에서 대기하거나 성
지순례까지 강행하는데, 대부분이
사건 현장을 몰래 빠져나오는 일
종의 망명이기 때문에 미크리에
게 혼난다. 코드 시투리를 사용한
다. (CV: 타카하시 치카키)



아이폰에서 천사를 만나다

천사를 찾아 싸바~ 친구 찾아주는 증강현실 러브 메신저
by SHONUM DESIGN 서윤형

증강현실이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영상에 3차원 그래픽 가상 영상을 겹쳐 현실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고성능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속박당하니
당신은 꼭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까?

원치 않을 것 같아



여당도 중립성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꼭 지켜야 할 일을 꼭 지키는 일입니다.



기 기계에게 위로
받았다... 으앙~

"이 천사를 잘 부탁 드립니다. 예쁘게 키워주세요"

'당신 아이예오' 갓난쟁이를 안고 갑자기 찾아온 천 여친만족이나 충격적인 이벤트와 함께 게임이 시작된다. 하늘에서 내려준 이 천사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이 게임의 시작. 12간지로 구성된 천사들은 그야말로 성격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쥐띠 천사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겁이 많고 경계심도 많다는 식이다. 이 외의 시간에는 동물로 변해 자빠져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띠에 따라 생산하는 보석이 다룬다. 인기 보석을 생산하는 녀석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못 생겨서 선택하기 까리는 천사들의 보석이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된다. 그래 이런 재주라도 있어야지.

육성 게임인 줄 알았더니 트위터네?

그렇게 입양된 초보 천사는 다짜고짜 팬지를 물어오기 시작한다. 뭐야 천사권전장에서 팬지를 나르는 비둘기였어? 아이엔젤은 (프린세스 메이커)류 육성 게임의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SNS 소셜 게임에 가깝다. GPS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유저들이 보내는 팬지를 무작위로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쓰며 주변 유저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분을 유도한다. 하지만 대체 무슨 글을 써야 하지? 고민고민하지 마~ 마치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 딸내미처럼 주변 사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유도하는 천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팬지를 쓸 수 있다.

기술과 감성의 결합

천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팬지를 쓰다가 보면 어느새 나의 생활과 생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주절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천사는 당시의 대담을 흘려 버리지 않고 당신을 점차 학습해나가면서 좀 더 당신의 상황에 맞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준다. 성실히 답변했다면 기술과 감성의 접점이라는 카피 문구가 가슴 깊이 와 닿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물론 페뎀을 피르는 광고와 만날 확률이 더 높지만.

튀하고 놀지?

1. 증강현실 사진 찍기



2. 곳 갖아 입히기 놀이

이빠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으면 돼요. 하지만 공짜는 아니라는 거.



3. 옷 살 땀 번거비 기회!

2월 28일까지 게임메카에 천사와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면 화보집과 함께 하트 1,000개를 준다. 천사의 이 증강현. 천사 보는 같은 화보집이 아니라 아삼다.

맛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유대리가 일반 유월보다 짙어 술은
나물레용 차킨, 차킨, 차킨, 차킨...



세계 맥주 기행: 프랑스 편

프랑스 맥주는 무슨 맛일까?
카스에 바게트와 푸조, 에펠탑을 갈아 넣은 맛?

BY 이윤복 |  대표이사 / www.wasbar.co.kr | DESIGN 서윤정

얼마 전 티아라 소연이 프랑스 취재진 앞에서 “아리가토 고 자이마스”를 외쳤다는 인터넷 뉴스가 뜨면서(괜찮아, 예쁘니까) 전국의 네티즌이 ‘또 봐’가 프랑스어로 “아비양토”라는 걸 익혔다. 프랑스 하면 또 ‘무도 멤버’ 양리와 ‘대머리독수리’ 지단을 빼놓을 수 없다. <베르시유의 장미>에 나오는 황제 다이어트 전도사 마리 앙투와네트, 사회 부적응자 외계인을 다룬 SF 사이코드라마 <어린 왕자> 모두 프랑스 출신이다. 그리고 프랑스 하면 역시 와인이다. 하지만 당신, 프랑스 맥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프랑스

프랑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가본 적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랑스는 더없이 친근한 곳으로 느껴진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프랑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파리와 에펠탑으로, 여성은 패션과 향수로, 영화광은 레오 카리와 누벨미주로 그리고 드물게는 68혁명과 좌파 등의 급진주의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상징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음식으로 말하면 프랑스는 미식가의 식탐을 자극할 만한 고급 요리와 색이 고운 와인이 떠오른다. 프랑스 요리는 대부분 요리 화보잡이나 잡지의 좋은 눈요기로 제공할 만큼 호텔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고급 요리다. 서점가에는 요즘 와인과 관련한 책들이 봇물처



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급 양장에 비싼 종이를 써서 외형도 화려하고 값도 비싸지만 날개 돌린 듯 팔리는 것을 보면 프랑스 와인에 대한 관심이 어찌간히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프랑스 역시 맥주에 대해 뿌리 깊은 전통을 갖고 있다. 프랑스인의 선조 각인 갈리아인은 라틴어로 에일을 뜻하는, '세르부아즈(Cerveoise)'의 위대한 양조가였다.

프랑스의 맥주 전통

프랑스에서 언제부터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와인보다 한참 전부터 만들었다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고

프랑스의 맥주 산업

하지만 산업화의 결과로 거대 양조장이 속속 등장하면서 영세한 양조장은 수백 개씩 문을 닫아야 했다. 농촌에 뿌리박은 소규모 양조장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1870년대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었던 세 차례의 전쟁은 그나마 남아 있던 양조장들마저 합출어버렸다.

거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맥주 산업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역마다 스페셜티는 기구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던 맥주는 북부의 공장을 중심으로 첨단 기기와 현대적인 제조 공정,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질 관리를 거쳐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전통 맥주는 흔스러운 것으로

업의 지력과 역동성은 그 역사의 전통에 이미 내재해 있다. 비에르 드 가르드르의 일종인 튀크(Duyck)의 창명(Jerlan)이 거둔 국제적-상업적인 성공은 그 예라 할 수 있다. 창명의 성공은 무엇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통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그 신지인 북부의 노르파드칼레(Pas-de-Calais/Region du Nord)를 미래 맥주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했다. 현재는 10여 개의 업체가 비에르 드 가르드르를 생산하며 맥주에 호화롭고 같은 소비자 단계로부터 열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 고유의 맥주 맛이 되살아나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프랑스에서 언제부터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와인보다 한참 전부터 만들었다는 것이다.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건 로마인들이 이곳에 들어온 기원전 1세기 무렵이었다.

맥주와 와인. 이 두 가지를 프랑스인은 상호보완적으로 즐겼던 것 같다. 그래서 혹자는 포도 수확이 좋지 못할 때 맥주가 와인을 대신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될 무렵만 해도 프랑스 전역에는 약 3,000여 개의 양조장에서 맥주를 만들고 있었다. 맥주를 단지 와인의 대체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치로, 프랑스에서 맥주의 위상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맥주의 중추국으로 불리는 독일이 오늘날 아름집이 1270개(2000년 기준)의 크고 작은 양조장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좋은 성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이나 농가 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식물을 위해 맥주를 만들었다. 한여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맥주이민균 갈증을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보통 오펜지 과즙 같은 상쾌한 맛에, 덤(Sugar)이 맥주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폴 바디(Full Body)의 맥주였다.

당시 맥주는 보통 겨울, 늦게는 봄에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여름에 마신 까닭에 비에르 드 가르드르(Biere de Garde) 또는 계절(Season)으로 불린다. 비에르 드 가르드르의 저장 맥주(Beer to Keep)를, 새옹은 계절 혹은 절기(Season)를 의미한다.

차부되었고 세계적인 유행을 좇아 황금색 라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훈 냉매와 지역 고유의 특징이 거세된 프랑스 맥주는 이제 전통 음료로서 명성을 와인에 넘겨주어야 했다. 와인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일한 전통 음료로 자리를 굳힌 것은 이때 이후다.

2000년 기준, 프랑스의 양조장은 20개다. 총생산량과 총소비량 면에서 EU에서 각각 5위와 4위를 차지한다. 맥주 산업의 규모가 여전히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총생산량 가운데 89% 이상이 상위 4개사(크로넨버그, 하이네켄, 인터부루 등)가 생산한 것으로 지역 기반의 소규모 양조장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의 부활, 새로운 도약

오늘날 프랑스 파리의 카페에선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은 맥주를 와인보다 선호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혹자는 프랑스의 강력한 음주 운전 단속 때문이라는 주석을 달기도 한다. 내수 침체와 함께 최근에는 칠레산 와인 갈은 자가 와인 공세에 수축하자 위축되자 와인 산업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만으로 성급히 프랑스 맥주 전통의 부활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제로섬이 아닌 이상 와인의 쇠퇴가 맥주 산업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프랑스 맥주 산



환상의 콤비

디스 플러스가 담배 업계 최초로 남성 패션 매거진과의
합작품을 탄생시켰다. 그 이름도 감지 못할 호르는
디스 플러스 아래나 옴 플러스 이름이 좀 길면 어쩌냐.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천은경



SMOKE&DRINK



BEST DESIGN OF THE MONTH

이 달의 가장 멋진 담배는 마일드 세븐이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마일드 세븐의 심플한 디자인이 화려하게 변신했다. 갑작스레 온 디자인 변경 탓에 어질증이 들지 않도록 특유의 푸른 색깔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토네이도가 연상되는 마일드 세븐의 로고를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그간 비교적 소비자 연령대가 높았던 마일드 세븐이 판매점 진열대에서 20대의 눈을 사로잡을 채비를 마쳤다. 호불호를 별로 타지 않는 담배 마일드 세븐, 맞아 다 인정하잖아?



표지 모델의
간지 촬영
후면 영상



여느 날처럼 회사 앞 웨비라미트에서 '카멜 노란 가랑 주세오'라고 말하다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녀석이 있었다. THIS PLUS가 궁극의 럭셔리 패션 잡지 (아레나 옴 플러스)와 콜라보레이션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아레나답게 디자인 또한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남다른 감각의 디자이너나 이윤애·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나침반과 보울을 패키지 디자인에 새겨넣었다. 원래 THIS PLUS에 있던 멋진 고래도 뒷면에 남아있다. THIS PLUS의 성장인 흰수염고래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콘셉트다. 게다가 3주간만 한정 판매한다는 말에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에디터가 짜우지도 않고 꾸준하고 있는 한정판 담배 컬렉션에 스페셜 버전을 하나 추가해야 하니까. THIS PLUS와 (아레나 옴 플러스)의 조합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다. 감각적이면 서도, 저렴한데 정에서 THIS PLUS와 (아레나 옴 플러스)의 콘셉트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해외 브랜드가 판치는 담배와 매거진 시장에서 국산의 자존

심을 지키고 있는 신토불이 담배 THIS PLUS와 토종 패션 매거진 (아레나 옴 플러스)가 뭉쳤다는 것도 유의미하다.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향한 충성심이 강한 20~30대 남성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KT&G의 이러한 시도는 참으로 신선하고 기발하다. 이미 하나의 브랜드 아래 구분되어 있는 소비 집단을 그대로 THIS PLUS 소비자로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레나 옴 플러스) 독자라면 과연 이 유니크한 스페셜 에디션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의 탄탄한 지지를 등에 업은 브랜드 (아레나 옴 플러스)와 콜라보레이션으로 KT&G는 아레나의 독자들을 손쉽게 THIS PLUS로 만들었다. 오늘날 3주간 THIS PLUS를 피우는 남성들은 서로를 알아볼지도

모른다. "셈이 당신도... 아레나 옴 플러스 보는 남자?"

이런 건 어떻게 안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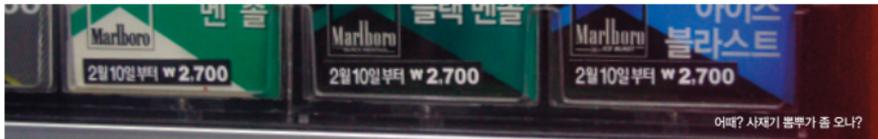
한국에선 뭐든 비싸야 잘 팔린다며?

말보로가 2월 10일부터 가격을 2,700원으로 올렸다.
이제 만 원 내면서 '말보로 라이트 네 갑이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다.

BY 유승민 PHOTOGRAPH ARCSTUDIO ILLUSTRATION 찬영준 DESIGN 서유정

지난 해 단짠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당한 재앙을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제 다들 2,700원을 대세로 받아들일 거라 여긴 건지 어쨌든 말보로는 그렇게 2,700원짜리 담배가 됐다. 흡연인들의 반발이 악랄 거라 생각한 거라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말보로 가격 인상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불매운동으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말보로의 가격 인상에 격분한 한 시민은 필립 모리스(말보

로 제조사를 규탄해야 한다며 이순신 장군으로 분장하고 서울 명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패나 말보로를 애용하는 이순신 장군인 듯)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자사 제품의 가격을 올리든 말든 그런 회사 마음이다. 그 가격 인상으로 받게 될 타격이나 소비자의 반감 또한 어차피 스스로 짚어지고 가야 할 참이니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말보로의 가격 인상에 흥분하는 걸까?



어때? 새끼 필름부가 좀 오나?

뒤통수를 후했어

작년에 수입 담배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 줄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며 우리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갈 때, 필름 모리스 담배는 2,500원을 고수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그 덕분에 외산 담배 1위이던 단합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수입 담배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는 상황에서 말보로의 가격 등걸에 큰 위인을 얻은 소비자들은 심지어 단합에 대한 배신감을 말보로에 대한 지지와 구매로 표출하기도 했다. 그 덕에 말보로는 빠른 시간 내에 단합을 제치고 외산 담배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크다. 왜냐고? 굳이 비유하자면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상처입은 여자를 꼬드겨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한 후, 1년 동안 그녀의 몸과 마음을 처묵처묵하다 단합만 쪽 잡아먹고 버리는 것과 같은 꼴이런 얘기다. 두 번이나 버림받은 이 여자의 분노는 처음의 분노와 차원이 다를 수밖에.

한결같아

둘째, 가격을 올리면서 뭐 하나라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작년에 단합을 비롯한 가격 인상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맛매를 맞은 외산 담배들도 아무 변화 없이 가격만 달랑 올리지는 않았다. 패키지 디자인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담배 가루가 새지 않는 밀폐식 케이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이 변화를 200원 인상에 대한 합당한 변화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말보로는 달라진 게 없다. 언어도 너무 없다. 어떤 의미에선 참으로 '한결같은' 말보로다. 이런 가격 리뉴얼만 빼고.

일락하잖아

셋째, 너무 속보이는 일락한 전략이 소비자들의 심기를 뒤흔트리고 말았다. 단합의 1위 자리를 빼앗고 잊지 못할 황금기를 보낸 말보로인 걸 다음 달기에 처음부터 '경쟁난'같은 말은 꺼낼 구석도 없었다. 가격 인상도 조용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들쭉

는 않았을 텐데 말보로는 모든 담배 판매점 진열대에 2월 10일부터 2,700원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았다. 이런 뭐, 10일부터 오르니까 그 전에 열심히 사재기라도 해놓으라는 얘기로부터 위하지 않는다. 행여나 편의점 알바가 200원 덜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었던 걸까? 아마도 이 황금기의 끝자락에 말보로 새끼 열풍을 일으켜 다시 한 번 매출 그래프를 수직으로 쭉여보고 싶었나 보다. 주연의 말보로 마니아들을 둘러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듯하다. 실제로 말보로는 가격 인상 직전에 사재기 매출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이후 눈에 띄게 판매량이 줄었지만 이에 대해 필름 모리스 관계자는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사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그 물량이 소비될 때까지 일시적인 판매 감소가 있을 것이다. 가격 인상이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여유를 부렸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말보로를 사재기하면서 마음속에 되뇌인 말은 아마 아직 모를 거다. "내 인생 마지막 말보로"

사회 공헌? 먹는 거임?

자본주의에서 회사는 자사의 운명을 걸고 자유롭게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담배 가격은 허가제야 아닌 신고제에 의해 정해진다. 쉽게 말해 얼마로 팔지 나왔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로 팔겠으니 그리 아시요' 하고 나라에 통보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토록 공부하는 이유는 '담배'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이다. 담배는 육체의 건강을 해친다. (정신 건강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중독성도 있다. 그 유해성과 중독성은 이미 보편적으로 검증되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담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 같은 존재이기(당장 담배 판매 금지하면 다음 달 MAXIM도 인나올 걸?) 더 엄격한 통제하

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내는 담배 사업에 보통의 산업보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막대한 이익금 중 얼마만큼을 사회에 환원할까? 2010년 기준의 조사를 따르면 필름모리스가 낸 기부금은 0원이었다. (다른 다국적 담배 회사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산 담배 제조사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문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비해 다국적 담배 회사들의 사회 환원이 인색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필름 모리스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다.

세상 담배가 다 2,700원 될 것도 아니니 200원에 흔들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다국적 담배 회사들의 200원짜리 기부수가 과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 이제 앞으로 더 고민진행할 거다. ☹

이 인상은 나는 찬성일세

Welcome to Hell



※ 저금통이 아님

S+TUFF

멀리 보는 남자가 멋진 남자!

소니 쌍안경 3D 캠코더

남자의 숨겨진 로망을 채워주는 소니 매직

BY 송종민 COOPERATION 소니 코리아(www.sony.co.kr) DESIGN 전은영

3D TV와 3D 캠코더는 이제 더 이상 신기한 물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촬영 렌즈가 두 개여야 한다는 3D 캠코더의 속성은 소니에 또다시 프린터가 정선(누구보다 앞장서서 토라이 짓을 하는 것을 지극했다. 세상에 렌즈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쌍안경! 어차피 렌즈 두 개가 필요한 3D 캠코더를 만드는 길에 쌍안경의 망원렌즈와 합체하면 장거리 촬영이 가능한 데다가 3D 녹화까지 되는 제1안 하이브리드 캠코더가 되겠는걸? 소니 R&D 센터에서 실제 이런 대화가 오갔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판매량이 보장되지 않는 실험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단순히 재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납다 상용화해버리는 소니의 덕후 정신 덕분에 초유의 쌍코더(…) 소니 DEV-5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가격 200만 원대 문의 소니코리아(www.sony.co.kr)

× 소니 DEV-5, 이렇게 사용해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아무리 고서도 우리에 붙어박혀 포궁구멍만 후벼 파던 호랑이 손톱에 킁 코딱지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공유의 즐거움! 캠코더 명가 소니의 명성 그대로

쌍안경의 휴대성과 캠코더의 DV 테이프는 공한이 최적이었지만 이제 손톱만 한 메모리카드에 수십 기가씩 저장되는 새터가 아닌가 배터리의 무게가 아직 걸림돌이긴 하지만 무거워서 손이 피로로 떨리더라도 광학 스테디스택 액티브 모드가 흔들림을 보정해준다. 일단 목표물에 겨냥한 채대로 하라!

공원장에서

요즘 아이들 가수 공연장에서 카메라를 꺼내다가는 경정 양복 입은 아저씨한테 후드려 맞고 메모리카드를 압수당한다. 하지만 쌍안경은 그 무시무시한 감시 속에서도 안전! 이제 녹화가 되는 건지는 공에도 들렀는지. 이제 티파니의 색시 댄스를 볼 뻔으로 내 하드에 넣어볼 수 있게 됐다. 하얏하얏.

죽~죽~ 끊어 당겨
쌍안경의 놀라운 zoom 배율

광학 10배 zoom이라고 써 있지만 일단 줌
코더 10배 zoom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곧
린 광학 500mm 망원렌즈는 9km
밖에 있는 피사체도 코앞에서
처럼 볼 수 있다.

경기장에서

초대권으로 갔더니 이런 구석 자리를 주네. 지금 링에서 싸우는 사람이
효도르야. 호들야야? 하지만 소니 DEV-5와 함께라면 C석이 순식간에
R석으로! 라운드 끝의 색시만 뒤에 근접 촬영은 덩이다.

집에서

위험한 생태계 관찰이 시작된다. 대상은 아파트 앞 등 주민들 무안경 3D
뷰피간더로 3D TV나 안경 없이도 입체감 넘치는 라이브 3D 관찰이 가
능하다. 나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나가 차린 음식(음
식~), 나가 넣은 그 아이까지도 모두가 내 것이었어야 한다는 박진영 씨
에게 추천.



울트라 북 과연 지금 사도 될까요?

노트북 신과 네 C+ 학점이 B+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가빙이라도 가벼워야지 BY 송승민 DESIGN 서용경

울트라 북은 두께 20mm 이하에 고성능 차세대 샌드브릿지 인텔 i5, i7을 탑재한 노트북을 통칭하는 말로 가벼운 무게와 빠른 구동 속도, 긴 배터리 시간 등의 장점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노트북 플랫폼을 말한다. 인텔을 위주로 한 윈도우 진영이 아이패드와 밀려 위기에 빠진 노트북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발표한 특단의 전략 플랫폼이다. 넷북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도 한참 잘못 잡은 것에 비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다. 넷북은 스마트폰보다 싸지도 않고 더 나은 컴퓨팅 환경을 보여주는 데도 실패했다. 결국 노트북이란 물건의 값어치만 떨어뜨린 꼴이었다.

인텔은 싸구려 제품이 통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고성능, 고가 제품을 내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프로세서를 강화하는 한편 두께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물론 그 맨 앞줄에 맥북 에어가 있다는 것이 뼈아프지만 '이거도 병신 정도 병신'이라던 이기는 병신이 되라는 옛 성인들의 말씀처럼 최고 잘 나가는 제품을 만들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이 시장 논리 아니겠나. 넷북 시절처럼 중국 애플까지 뛰어들이기 전에 옥석을 가려서 나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제품을 고르면 된다.

울트라 북 고르는 법

귀찮아도 제조사에서 제공한 스펙을 꼼꼼히 살펴보자.

1. 휴대성: 무게, 두께

휴대성은 포터블 기기의 속명이다. 하지만 노트북이 간지가 안 나는 이유는 도저히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없을 것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거리면서 나 일론 가볍고 들고 마우스랑 어댑터를 꺼내서 쪽 눌러 놓는 모습은 그리 스마트하지 않잖아. 울트라 북은 인텔 기준 최대 20mm 이하의 두께와 1.4kg 이하의 무게여야만 한다. ASUS의 zen북은 최소 3mm, 최대 9mm로 가장 얇다. 무게도 1.1kg로 현재 가장 가벼운 도시바 포테제 Z8300의 1.09kg과 겨우 20g 차이일 뿐이다.

3. 스크린 해상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상도는 높을수록 좋다. 하지만 시야각과 반사율이 실제 사용에서는 훨씬 당신을 거슬리게 할 수 있다. 참을만한 수준인지 반드시 매장에서 직접 비교해 볼 것. 가장 많은 11인치, 13인치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1366 x 768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ASUS zen북은 가장 고해상도인 1600 x 900을 지원한다.

2. 부팅 스피드

LG Z330 시리즈가 9.9초로 현재 최고속이었으나 지난 2월 중순 발표된 삼성 뉴시리즈 90이 9.8초로 0.1초 앞당겨서 갑을 빼놓은 상태다. 하지만 삼성은 뉴시리즈9를 울트라 북이라 부르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서 아직도 울트라 북 1등은 엑스노트다. 현재 더 분발하라!

4. 배터리 지속 시간

포터블 기기의 두 번째 속명이 바로 배터리 지속력. 이 경쟁에서의 1등은 HP 폴리오13(9.5시간)다. 레노버의 아이디어패드J300s과 도시바 포테제 Z8300이 8시간으로 그 뒤를 따른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지속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HP 폴리오 13는 18mm에 1.49kg으로 두껍고 무거운 축에 속하는 모델이다. 선택은 당신의 료. 참고로 4cell, 8cell 배터리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인 경우 숫자는 높을수록 좋다.



잘 빠진 울트라 북 4종 소개

2편을 제외한 아래 모든 제품의 사양은 i-5 1.7GHz, 13.3인치, 128GB SSD이다.

1. 오리지널의 여유 맥북에어



애플이 또 한번 PC 생태계를 바꿨다. 아이패드등의 등장으로 크고 두꺼운 노트북들을 옛 역일 때는 언제고 다 망해가던 노트북 시장에 맥북에어를 투척해 또 다시 울트라 슬림 노트북 시장을 활활 불태우고 있다. 이젠 워 스탠다드다. 그런데 참 높은 스탠다드다. 이를 뛰어넘을 울트라 북이 과연 몇 개나 될까? ios 계열 디자인사와의 완벽한 호환성과 강력한 앱스토어 등 오랜 시간 쌓여온 모바일 생태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 이미 완벽.

1440x900 / 128GB 플래시 메모리 / Mac OS X Lion / 1.35kg / 블루투스 4.0 / 썬더볼트 포트 / 최장 사용 시간 7시간, 대기 시간 30일 / 최대 두께 17mm / 실 구매가 140만 원대

2. 전설의 후발주자 삼성 뉴시리즈 9



삼성 노트북 라인업 중 시리즈 5를 보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별 메리트 없는 스펙임을 알 수 있다. 시리즈 9 정도는 되어야 견적이 나오는데 절대 시리즈 9를 울트라 북이라 부를 생각이 없었다. 프리미엄 라인이라... 근데 가격이 무개념.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한 제품보다 100만 원이나 비싸던 어떻게. 전자 제품에서 프리미엄 마케팅은 생각보다 안 먹힌다. 숫자로 얼추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드럽게 욕 먹는 수가 많다. 유일하게 먹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애플. 애플 정도는 되어 이런 프리미엄 마케팅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젠 뭐... 애플이 되고 싶은 삼성의 마음이 엿보인다.

i7-2637M (1.7GHz) / 1600x900 / 256GB (SSD) / 7 유프러미엄 / 1.16kg / HDMI / 블루투스 3.0 / USB 3.0 / 최대 두께 12.9mm / 실 구매가 250만 원대

3. 누구보다 빨라, 부팅이... LG 엑스노트 Z330



현재 국내 노트북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구매가와 스펙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다만 맥북에어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디자인과 패널의 색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고 마감도 아쉽다는 등 실 사용자들은 불만이 조금 있다. 하지만 그런 것 만큼 많이 팔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싸봐야 불만도 생기는 거니까.

1366x768 / 120GB (SSD) / 7 유프러미엄 / 1.21kg / HDMI / USB 3.0 / 9.9초 초고속 부팅 / 최대 두께 14.7mm / 실 구매가 130만 원대

4. 애플의 질투 ASUS 젠북



역시 맥북에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디자인이지만 상반에 원형 헤어 라인을 추가해 긍정적인 디자인 평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최근 APPLE이 젠북의 생산 공장에 "우리나, ASUS 나" 양자 책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라 젠북 생산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애플이 욕 찍었다는 것은 제일 위협적인 적이나까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셈일 수도 있다. 가벼운 무게와 두께, 높은 디스플레이 해상도 등 울트라 북으로서의 완성도도 높다.

1600x900 / 7 유프러미엄 / 1.3kg / HDMI / D-SUB / 블루투스 4.0 / USB 3.0 / 최대 두께 9mm / 최대 사용 시간 7시간 / 144만 원대

2세대 울트라 북 전망

인텔이 오는 4월 차세대 프로세서 아이비브리지를 내놓고 울트라 북 제2세대 과정을 준비한다. 새 프로세서는 22나노 공정을 사용해 저전력을 추구하면서도, 샌드브리지보다 20% 향상된 CPU 성능과 더불어 40% 이상 개선된 그래픽 성능을 선보이고 다이렉트X11도 정식으로 지원할 예정. 일반 노트북용 최상위 프로세서 3중은 오는 4월에 발표되지만 울트라 북 전용 프로세서는 아직 공개 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 6개월이 멀다 하고 신제품이 나오는 것이 이 바닥이니까 기다릴 생각 말고 그냥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게 편하다.

TAGHEUER NEW LINK AUTOMATIC CHRONOGRAPH CALIBRE 16

+ 태그호이어 뉴링크는 S와 D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다. 스포티와 엘레강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아테나오르에게 드레스를 입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태그호이어는 용케 해냈다. 링크 특유의 S자 형태 브레이슬릿(손목을 감싸는 부분)이 팔을 가볍게 감싸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다. 감태희가 손을 잡아준다면 이런 느낌일까? 6, 9, 12시 방향에 새겨진 크로노그래프는 분 단위까지 측정 가능하며 이중 코팅 처리한 반사 방지 글라스로 광량이 심한 날씨에도 선명하게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뉴 링크 커프스링크는 덤이다.

가격 미정



THE MAGIC KEY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 같은 시계

BY 박현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조유민, 고은석 DESIGN 서윤정
COOPERATIONS 태그호이어(02-548-8020) 제니스(02-128-8225)
브라이틀링(02-3448-1230) 위블로(02-540-1356) 주리(02-540-5270)
포에즈 캠퍼인 홀드(02-776-6385) 이시케이(02-3274-5633)

커프스링크 태그호이어 뉴링크

재킷 코래즈 콤팩트 울트
여자 베이저색 코트 주크



ZENITH EL PRIMERO STRIKING 10th

✦ 조선 시대 고종 2년인 1865년 경복궁을 창건 할 때, 시계 장인 조르주 파브르 자코는 제니스를 창립했다. 145년의 역사를 자랑하듯 제니스 엘프리메로의 무브먼트는 단연 독보적이다. 일반 스위스 시계 무브먼트의 진동 횟수가 시간당 2만 8,800회 정도라면 엘프리메로는 무려 1만 회나 더 비싼게 시간당 3만 6,000회 움직인다. 엘프리메로 시계 한 개를 만드는 데는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부속품 생산, 무브먼트 조립, 약 5,500회에 이르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스위스 시계의 정인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가격 미정



HUBLOT AERO BANG BLACK MAGIC

+ 워블론은 시계 브랜드 최초로 천연고무 스트랩을 시계에 적용하며 퓨전 위치의 선구자가 되었다. 워블론 에어로방의 스트랩은 조금 더 특별하다. 고무 스트랩 위에 홈을 파서 악어가죽을 덧입힌 '레버-엘리게이터' 스트랩은 일반적인 악어가죽 스트랩에 비해 10배나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니 말이다. 블랙 색상의 시계에 무브먼트가 흰색으로 보이는 스텔리턴 다이얼을 넣는 경우는 드물어서, 유니크한 디자인에 반한 시계 마니아들이 군침을 흘리며 지갑을 열었다.

가격 미정

BREITLING BENTLEY 6.75 CHRONOGRAPH

✦ 2003년, 브라이틀링이 세계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벤들리와 손잡고 시계를 부화하기 시작했다. 벤들리 6.75 크로노그래프는 벤들리 리무진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엔진을 모티브 삼은 모델로 48mm의 큰 크기와 묵직한 무게에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풍긴다. 베젤 부분의 표면에 끝이 파인 부분은 자동차 대시보드를 본떴고, 시계 백 케이스의 특이한 문양은 리무진의 바퀴 모양에서 가져왔다. 시간을 측정하는 크로노그래프는 물론이고 운행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테코미터 기능까지 갖췄으니, 기름 넣고 주행만 된다면 진짜 자동차 겸사겠는걸?

가격 미정



WATCH OF THE MONTH



시크한 올 블랙의 마력, 티쏘(Tissot)의 T-Race 모터스포츠는 티쏘가 공식 후원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중 하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T-Race 라인인 매끈한 감성적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올 블랙으로 단정해 새롭게 출시됐다. 탁월한 열전도 특성과 가벼운 중량 소재인 카본파이버 소재를 채택해 착용감을 높였다. 바이크의 매끈한 블랙 타이어를 닮은 합성 우레탄 소재의 시계줄과 자동차 티볼러스를 제어하는 공기 배출구에서 모티프를 얻은 벅셀 디자인이 독특하다. 올 3월, 신학기자의 설계를 열정을 표현하고 스피드인 T-Race에 합승해보자. 가격 76만 원 문의 www.tissot.ch(티쏘)



그랜드세이코(Grand Seiko) 리미티드 에디션을 꿈꾸라!

리서치 워치 브랜드, 국제 크로노미터 기준보다 높은 정확성과 품질의 기준, 숙련된 장인들의 기술력에 첨단 기술을 더한 워치 브랜드. 이는 모두 그랜드세이코를 수식하는 문구다. 세이코에서 분칭 130주년을 기념해 핸드 와인딩 방식의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그랜드세이코 리미티드 에디션 SBGW033 모델을 출시한다. 명성에 걸맞게 오차 범위 -3~+5초의 뛰어난 정확성을 자랑한다. 국제 표준 시간을 손목에 휘감을 수 있다는 뜻. 1960년 최초 모델의 다이얼과 버클, 사자 문양을 그대로 도입해 첫 작품에 대한 호모주를 담고 있다. 그대, 자존심이 느껴지는가?
가격 600만 원대 문의 02-454-8400(세이코부티크 스타사티점)



타임포스(Time Force)의 호날두 컬렉션

스포츠 스타들의 개성과 트렌드를 브랜드에 녹여내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타임포스 스포츠 맨 컬렉션에서 최신 라인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을 발표했다. 로즈 골드도 도금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스포맨의 정열을 느끼게 해주고 브라운 컬러 다이얼과 가죽 스트랩으로 거친 감성에 세련미를 더했다. 시분 초까지 표시 가능한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기본. 디자인에 기능, 세련미까지 갖춰 마치 그라운드 위의 호날두를 보는 듯하다. 등장할 때마다 공명증을 일으키는 타임포스 스포츠맨. 이번 새 라인도 주목해봐. 가격 42만 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mlimwatch.co.kr)

루미녹스(Luminor)

F-22 Raptor™, 충격 준비 끝!

제5세대 마스터 피스 최고의 비행 능력과 비일 기술을 결합한 F-22 Raptor™, 그 아름다운 전투기를 닮은 Luminor F-22 Raptor™ 시리즈가 비행 준비를 마치고 매장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F-22 Raptor™의 블랙 PVD를 코팅 처리한 44mm 티타늄 케이스는 비행기의 소재와 모양을 본뵈었다. 또 크라운은 비행기의 엔진을 방망했고, 다이얼의 수와 색깔을 맞춘 라이트 판은 F-22™의 실제 대시보드처럼 디자인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최첨단 모델로 비상을 꿈꿔보자.

가격 1,379,000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rwatch.co.kr)



화이트데이, 브라운(Braun) 커뮤 시계로 사랑과 실속을 행기자.

브라운에서 화이트데이를 맞아 블랙&화이트 매치가 돋보이는 0021 시리즈를 선보인다. 남성미 넘치는 블랙 가죽 스트랩의 남성 시계와 순백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화이트 스트랩의 여성 시계로 구성했으며,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모두 갖추어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또 모던한 디자인의 문자판과 눈에 띄는 초침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거노코퍼레이션의 온라인 직영점 타임토피아를 지금 방문해보자. 문의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timeopia.co.kr)

작업의도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권영준
DESIGN 서윤정



“타고 나지 않은 이상 연습하라”
괴담아티스트 그들이 말한다.

남녀상업지사에 관해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1. 입문



AFC
(Average Frustrated Chump)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과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대다수의 수컷을 일컫는 말이다. 이젠 내 얘기가 싫지?



PUA(Pick Up Artist)
픽업 아티스트.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의 선수들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코치'가 되어 연애를 컨설팅해주는 고급 인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구루(Guru)
최고의 픽업 아티스트. 구루 레벨에 도달하면 언젠가서 황기가 나며 행동을 취할 때면 꽃잎이 흩날린다고 한다. PUA 사이에서는 선구자, 교수님이라 불린다.



윙(Wing)
작업을 도와주는 파트너. PUA를 보좌하는 PUA의 날개 같은 존재. 혹은 PUA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수제자를 일컫는 말.



방해물, 장애물(Obstacle)
당신이 노린 타겟의 친구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집에 가자"를 연발하며 더 된 밤에 재를 뿌린다. 이 같은 방해물은 윙(wing)이 처리한다.



바운스(Bounce)
여자와 함께 장소를 옮기는 것.
Ex) 클럽에서 술집으로 이동하는 것

무브(Move)
현재 장소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자를 이동시키거나 한 장소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함
Ex) 나이트 룸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

HB(Hot Body)
끌내주는 여자. PUA는 구장에 들어 서자마자 타겟의 외모를 6점(그냥 봐 줄 만하다)부터 10점(와, 세발 진짜 편다)까지 점수를 매긴다. 6점 아래는 HB라 부르지 않는다.

세트(Set)
이성들이 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
Ex) 화장실 앞 테이블을 HB 3SET (화장실 앞 테이블에 켜있는 여자 세 명이 있다)

필드, 구장(Field)
여성을 유혹하는 장소
Ex) 클럽, 길거리, 술집



오르비터(Orbiter)

추종자들. 여자 주변만 빙빙 돌기 때문에 속칭 '인공 위성'이라 부른다. 속으로는 여자와 자고 싶어 미치겠지만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겟에게 쉽사리 접근하지 못한다.



스프링(Spring)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헌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하는 것. 속된 말로 '뺨찌 먹었다'고 한다.



홀런(One Night Stand)

원 나이트 스탠드. 한국 PUA 용어로는 '홀런'이라 부른다. 하룻밤에 두 명의 여자와 관계를 했다면 투런. 세 명은 쓰리 런이다.

2. 실전 응용



그라운드(Grinding), 기초공사

타겟에게 현재 자신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허세를 부리게거나 혹은 너무 구박하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로킹 프루프(Lock-in Prop)

타겟이 세트를 떠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소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거나 시계를 채우는 행위는 그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쉽게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든다.



어프로치(Approach)하다

여자에게 접근하는 행동. 길거리 헌팅, 클럽에서의 부비부비 등이 어프로치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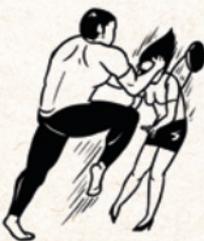
키노(Kino)하다

여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쉽게 말해 스킨십을 일컫는 말이다. 키노는 남녀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축에 역할을 한다. 말할 때 팔과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며 친밀감을 높이자. 키노 친도(kino Escalation)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나 키스해도 돼?" 제발 이렇게 병신같이 물어보지 말란 말이다.

1. 가슴 터치하기



2. 무릎에 키스 하기



3. 백허그



※ 진짜 고수는 상대를 만질 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키노해야 그녀를 사로잡을 수 있다.

3초룰

타깃을 정하고 3초 이내에 그녀에게 접근하라.
더 오래 끌면 여자는 뻘히 쳐다보는 남자의 존재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
남자도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생각이나 자신감 상실로 긴장하게 되어 실패하기 쉽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다면



3초안에 뛰어가서



그녀의 마음을 낚아챈다.

3. 변칙공격 대처법

shit 테스트(Shit Test)

여자가 당신에게 호감을 보이지 전에 동인지 된장인지 간을 보는 것을 말한다. shit 테스트는 이 남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무시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Ex) "원래 이런 거 많이 하죠?".
"선수죠?". "여자 진짜 말을 것 말인데" 등



아모깅(Amoging)하다

PUA가 타깃을 유혹하는 것을 다른 남자가 방해하는 것. 그녀의 남친 같은 일행, 또 다른 PUA가 주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녀의 남친이나 일행일 경우에는 포기하고 다른 타깃을 노리는 편이 신상에 이롭다.

※여자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는 이유

당신이 그 여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친이 있으면 어떤가.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쉽게 비명을 피운다.



블러링(Blurring)

구장에서 여자들이 받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를 주는 경향. 번호를 받은 자리에서 즉시 전화를 걸어보는 것으로 블러링을 막을 수 있다. 제대로 된 전화번호는 '번호가 탄탄하다'고 한다.



니디(Needy)

남자가 HB를 너무 가지고 싶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연락을 너무 자주 하거나 칭찬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이 남자는 여자가 글하다" 혹은 "이 남자는 오래 굶주렸구나"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HB의 반감을 사게 된다. 니다가 지나치면 비호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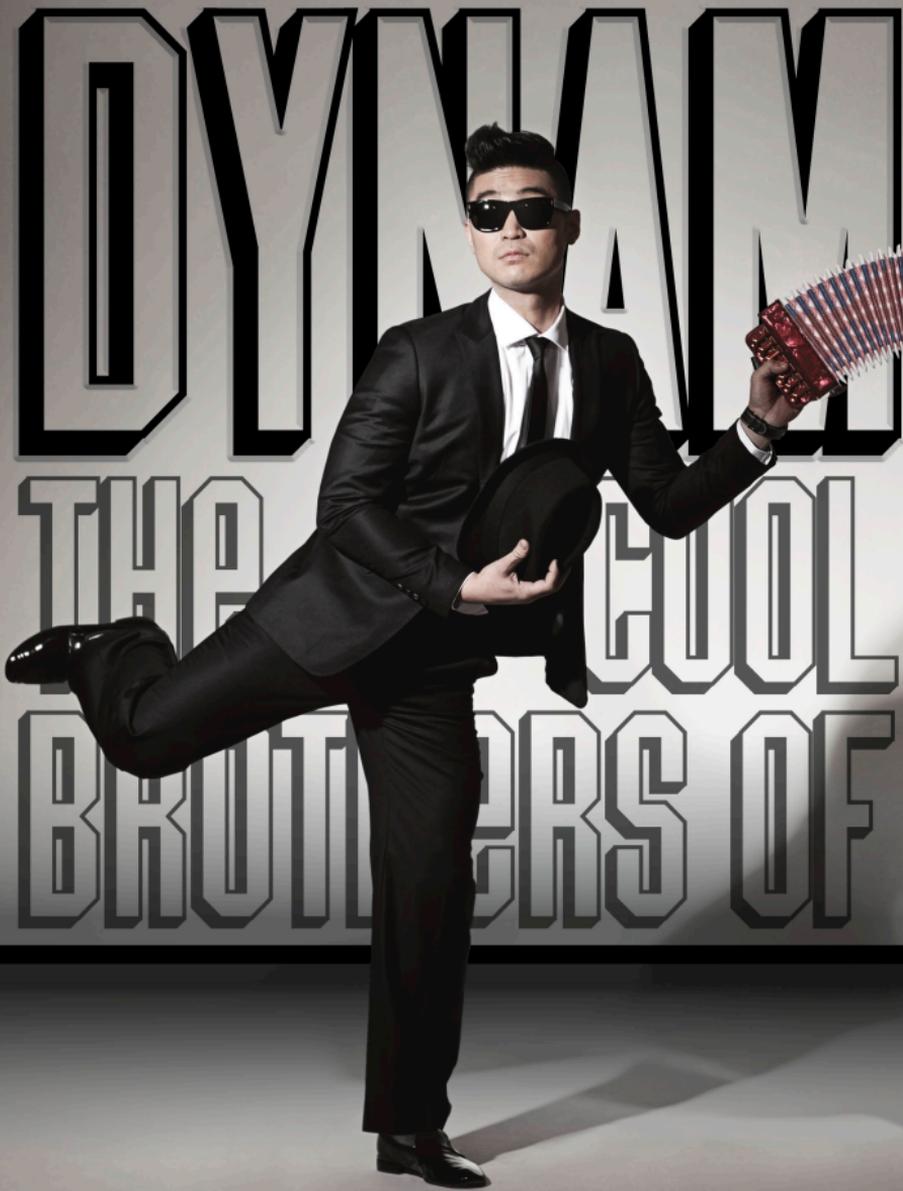
고양이 노곤 이론 (Cat Theory)

말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노곤을 매달아 놓으면 고양이는 그럴 걸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고양이가 노곤을 쫓는 것처럼 PUA도 여자에게 나를 가질 수 있을 듯 말 듯 모호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애를 태워야 한다. 적절한 밀고 당기기. OK?



픽업아티스트 7계명

1. 인기 있는 남자는 결코 어려운 남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제대로 무뎠숙하게 있지 마라. 말주변이 없으면 인기도 없다.
3.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부담스럽다.
4. 부드럽게 명명하라. 상대는 우유부단한 사람도 강압적인 사람도 싫어한다.
5. 모호한 예언을 해라. 기본 좋은 미래는 상대의 마음을 연다.
6. 선택의 폭을 제한하라. 약속이 있는지 묻지 말고, 자체 메뉴를 고르게 만들라.
7. 대화 속에 상대방이 말한 핵심 단어를 다시 넣어 말하라.





BY 송종민 PHOTOGRAPHY ARC STUDIO
MAKEUP 곽영은 HAIR 이도우 STYLING 조다현 FILM 박한빛두리 DESIGN 산속희
COOPERATION 예스24등등
t/ 다케이(02-717-3990) 열라씨(02-3367-7100)
대니사디자인(02-3397-7100) 고채즈샵바인 율리(02-776-6385)
세메트(02-551-7038)

전국 투어 콘서트 중단에도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개코) 군대에서 친구가 되어준 MAXIM인데 당연히 나와야지 했다.

지난달 만난 정범규 씨는 연예 병사들은 너무 바빠서 MAXIM 볼 시간이 없던데?
(최자) 무슨 소리가? 제일 열심히 보던데? 요즘 잘나 간다고 이미지 관리한 거 아니야?

군 제대 후 다이나믹 듀오의 활동 현황이 대안됐다.
(개코) 자원을 넣히는 데에는 진짜 치루다. 이제 마트 아주머니들도 알아보신다.

예전 같으면 '합합 정신이 죽었네' 하고 난리 날 일 아니었나?
(최자) 리얼 형들이나 썸다가 잘 해준 덕분에 이미지 가 정말 좋아졌다. 프리임 타임에 메인 게스트로 제일 잘나가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니까. 합합파의 이미지가 항상 굳은 오프에서 친근한 동네 오프로 바뀌어서 합합 음악도 한결 편안하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능에 재능이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 일요엔 예능보다는 음악 만드는 게 더 낫다.(웃음)

〈무한도전〉의 '나를 가수다' 순위가 낮아서 실망한 건 없었나?
전주에 (블루의 명곡)을 녹화했는데 온 종개 마지막 순서를 뽑아서 1위를 했다. "우리 1등 제조기야" 하고 만능에 사로잡혔다. (개코: 교만했죠.) (최자) PD님들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팀은 없다고 비평을 너무 잡았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어 했는데 그게 차명 타였다. 당일 날 리하설을 했는데 진짜 안 되겠다 싶었다. 그리고 총칭이 형이 노래를 너무 못했다.(웃음)

(개코) 1등 아니면 7등 해야 하는데... 맛있는 것도 아니고, 웃긴 것도 아니고.

이에 본격적으로 〈나는 가수다〉에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나?
(최자) 사실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피 튀기는 경쟁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야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개코) 우리가 힘들어할 것 같다. (블루의 명곡)이나 다른 것도 해왔는데 신경 안 쓴다고 해놓고 신경 쓰는 우리가 싫었다. 음악 하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요즘 개코의 노래 실력이 부족 눈에 띈다. 보컬 초창 비용 절감이 시급했나?
(최자) 사실 일대 전에도 '죽일 놈'이란 곡에서 노래

를 했는데, 녹음까지는 가능한데 라이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이브할 때는 전 직원이 두리워줬다. (개코: 나도 내가 두리워줬.) 군대에서 견뎌온 노래 연습만 진짜 열심히 하더라. 위문 열차들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헤드폰을 벗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더니 이제 제법 라이브에서도 통하는 가수가 됐다. 아직도 인이어 없이는 못하더라.

어떤 곡을 그렇게 연습했나?
(개코) 존 레전드의 첫 번째 앨범이 너무 좋아서 가장 많이 듣고 연습했다.
(최자) 그렇게 연습하더니 아직 형 리도 방송에서 노래를 불러 적이 형이 직접 소울 가수로 제치고 싶을 정도라는 칭찬을 받았다. (개코: 그때 존 레전드 노래 불렀다.) 진짜 가수한테 인정받은 이후 자신감이 엄청 불렀는지 그 후 가이드 녹음을 자기가 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서로의 부분은 남겨 두는데 어느 날부터 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냥 불렀다고 하는데 화음까지 다 되어 있고, 절대 그냥 불러본 게 아니었다.(웃음)

최자는 왜 노래 안 부르냐? 듀엣 욕심 안 나냐?
(최자) 나는 일단 연습을 너무 안 한다. 개코는 어느 정도 대중적인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는 너무 진하고 마이너하다. 언젠간 내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 어차피 음악 일개 거너나.(웃음)

앞으로의 도전을 꼽아본다면 빌라드 앨범인가 아니면 아예 솔로 앨범?
(개코) 아직은 다이나믹 듀오 앨범이다. 빌라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카니에 웨스트처럼 합합을 베이스로 한다면 좋다. 우리 음악은 언제나 합합 정신 움직일 것이다. 우리도 리메이크 앨범을 내놓거나, 보컬 앨범을 해볼까 생각이 많이 하는데 둘 다 너무 무거워하기 때문에 3~4곡 만들다가 질서있게 그냥 그런 노래가 들어간 정규 앨범이 나올 거다. 우리에게 콘셉트 앨범은 무리다.

가시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 노래가 많다. 이것은 〈택시 드라이버〉 때부터 당시들의 특징이었다.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는 건가?
(개코) 이번 앨범의 막간곡 나길게는 먼저 후렴 부분이 완성되어서 스토리를 발전시켜볼 경우다. 직 직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상상하고 느낀 점을 담았다. 우리 형도 대가진 직원한테 대화하면서 힌트를 얻었다. 뉴스도 큰 도움이 된다. 결국 복합적인 경험이다. (개코) 직장인 아야?자만 결국 모든 사람이 가지

고 있는 공통의 정서라고 생각된다. 일과 여가의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염원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거기서 거기'에서는 발 연기를 연기한 건가 아니면 정극 연기였나?
(최자) 우리 의도는 '남들이 보기에는 병맛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지한 것을 만들어보겠다'였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의도대로 딱 맞겠다 싶었다. 결국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뭔가 웃긴데 보면 볼수록 찡꺼든. 어쨌든 8분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것 아닐까.

둘 다 연기 욕심이 있는 건가?
(개코) 욕심이?라고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캐메오 조연으로 나오는 것을 옛날부터 동경해왔다. 감독님을 만나면 포지션이 오프닝으로 나오고 싶다고 매번 어필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해 어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력 있는 감독님은 단편영화 한번 꼭 찍어보고 싶다. 10년 동안 카메라와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한다. 선댄스 영화제도 한번 가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좋은 사나오로 가진 감독님을 연락 좀 많이 해주세요!

리쌍과 UV 중에서 자신들의 인기를 위협할 듀오를 지목한다면?
(개코) 군대에서 UV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알찼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총내란 내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최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랑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아구나 싶었다.

이번에 같이 작업한 '남산 위안에서 유세운 씨의 왕돈가스 밥을 먹기만한다면?'
(최자) 우리가 한 병 먹었다. 우리 너무 잘 하려고 했는데 유세운은 자신의 피트를 단 한 테이크에 끝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번만 하면 너무 성의 없다고 욕할 것 같아. 하지만 이거 쓸 것 같아'라고 말하는데 정말... (웃음) 아이디어도 많고 예나자가 대단한 친구다.

최자에게 묻겠다. 언제까지 최자질 것 같은가? 결론 할 생각 있나?
(개코: 이름값 좀 해.) (최자) 결론 없이도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생각이 없다. 개코가 결론 생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굳이 따라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사건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니까 서로 중점 잘 앉아서 할 이야



가는 아닌가?(웃음)

개코가 결혼하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최자) 특별히 변한 건 없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수면 시간이 부족했는데 머리카만 대면 자고 닥서슬이 탁까지 내려온 모습이 인스라웠다. 그런데도 집안일로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괜히 안 피곤한 척하는 모습이 더 뻘뻘했다.

(개코) 음악 외적인 부분이지만 클럽에서 공연하면 끝나고 놓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일 끝 나면 다들 맥주 한잔 할 타이밍이라도 집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만 최자는 맨날 놀다 간다.

예전에 이적 씨가 결혼 후 가사를 쓰는데 망설임이 많았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 어떤가?

(개코)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 별로 그렇지 않다. 이별 이야기, 아한 이야기를 써도 표현이 재미있다는 등 모니터도 잘 해준다. 일단 노래가 잘돼야 가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웃음) 그래도 '참고 살아' 같은 경우는 어떤 년이냐고, 어떤 년 때문에 참고 살았냐고 그러더라.

(최자) 듀오라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서로에게 떠넘기면 되는 거지.

요즘 두 사람 모두 페이스 북과 트위터에 재미 붙은 모습이다. 최자가 특히 열심히 하던데, 개코가 안 좋아워서 사이버 세계로 눈을 돌린 건 아닌가?

(개코) 최자가 한입으로 두말을 했다. 예전에 SNS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연예인이라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뭐 SNS까지 하면서 자기 사생활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냐고 했는데.

(최자) 군대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개코는 트위터로 부부싸움까지 한다. "우리 남편 자린 건 너무 짜증나." 그러면 리트윗으로 "귀여운 우리 부인. 뿌잉 뿌잉..."

(개코) 이제 그만하라고...

둘이 뭐 하고 노냐? 노래 끝나면 바로 각자 침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 관계인가?

(개코)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는 육아에 신경 쓰느라 같이 못 논다. 요즘에는 스케줄이 있을 때 일하러 나간다는 생각보다 친구들 만나 놀러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자) 개코가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인터뷰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정신을 아예 딴 떼 두고 잊기 일쑤고, 맨날 지각했다. 예를 들면 내가 한참 기다리다가 전화해서 어드나고 하면 "응 지금 가고 있어"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티리리랑" 하고 컴퓨터 끄는 소리가 들리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30분 먼저 와서 기다린다.



“
하지만 사건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는 법이니까.
”

항남동의
유쾌한 흥젓





뒤에서 일지만, 예쁜 애들 다쳐

(개코) 집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약속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자) 마무리도 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굉장히 성실한 아티스트가 되었다. 후훗.

10년을 매일 붙어 다니는데 싸운 적은 없나?

(개코) 치고박고 싸운 적은 없다. 음악과 관련해 아웅다웅하는 일은 많다. 취향은 비슷해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서로의 눈치를 본다. 그래도 한 명이 진짜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그래 한 번 해봐" 하고 쿨하게 양보하고 그다음에 조영히 결과를 지켜본다. 그리고 잘못되면 끝장나게 돌려주는 거다. "거봐,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내가 분명히 이거 아니라고 했어." 이렇게.
(희자)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서로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개코가 합함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역자로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낀다.

친구가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정말 뿌듯하겠다. 아닌가? 기분 별로인가?

(개코) 이 상황에서 내가 희자를 또 칭찬하면 분위기가 이상하겠지?

이제 부산 콘서트만 끝나면 6집 활동이 끝나는데 뭘 할 생각인가?

(개코) 예전처럼 활동이 끝나면 나만의 의식처를 게임 하나를 진득하게 클리어한다. 이번에는 <언차티드 3>를 클리어했다. 엑스박스랑 위도 있었는데 다 친구들 주고 PS3만 한 대 남겨줬다.
(희자) 둘 다 <클 오브 듀타: 모던 워페어> 시리즈의 팬이다. 이 시리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클리어한다. 둘이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와우하다가 다이아믹 듀오 2집 못 나올 뻔한 적도 있다.

게임을 좋아한다니까 생각했는데 5집 마지막 트랙에 "서른 살 넘어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고 한 대목은 루리웹의 바로 그 사건을 메리디한 건가?

(희자) 맞다.

무려 두 장의 앨범을 연속해서 발표하고 유례없는 예능 활동도 하고 예능지가 많이 소진되었을 것 같다. 그동안 안 못 있었던 것 어떻게 볼 계획인가.

(개코) 아, 영국과 스페인에 놀러 갈 계획이다. 항공권 예매도 해됐다.

(희자) 친한 친구들하고 베를린에 갈 계획이다. 이제 뉴욕보다 베를린이 훨씬 뜨고 있다고 들었다. 이 동네는 새벽 7시가 술 따르고 한참 시작되는 타임이라고 들었다. 천국이 아닌가? ☺

*루리웹 사건 게임 커뮤니티 루리웹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 연속으로 같은 아이디가 당첨자 목록에 올라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유저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3조 분의 1 확률로, 로또 당첨 확률인 8000분의 1보다 37만 배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자 운영자가 "저희들로서도 믿기 힘든 일입니다. 확률적으로도 매우 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라고 회대의 개드립을 날린 사건 한동안 전 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최자 (최재호)

생년월일: 1960년 3월 17일

학력: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

주목하는 유저스: 애일리.

노래를 너무 잘 한다.

취성이 부딪히고 가서

그러는 건 아니다.



개코 (김윤성)

생년월일: 1981년 1월 14일

학력: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주목하는 유저스: 제이봉.

실력도 있고 색깔도 있다.



최자
신규라스 예스티튜드 by 디케이
시계 데나시 디자인
신발 레퍼토

개코
신규라스 예스티튜드 by 디케이
시계 앨리네
수트 코에즈캄바인 움르
신발 레퍼토

OFFICE FAN

Ninemuses

Sera



나인뮤지스의 세라가 MAXIM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신이 한 번쯤 꿈꿔왔을 판타지가 오늘 완벽하게 실현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WORDS&FILM 박한빛누리와 STYLING: 홍혜원
HAIR: 최현영 MAKEUP: 이혜민(예스24 02-3448-3007)
ASSISTANT: DESIGN 신숙희
COOPERATIONS: 러그마켓(www.rugmarket.co.kr, 02-2675-9093) 일모(02-3446-9949)

TASY



임미소, 권현주
킴미, 구두, 현소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





류세라

생년월일 1987년 10월 3일

남자를 볼 때 중심이 보는 세 가지

목질, 눈썹, 팔뚝의 흰줄

세라의 독특한 취미

만화책 보기.

싫 댄 인화방에 가서 산다.

나에게 화장이랑??

나를 감추는 것

나만매지스에서 받고 있는 것

리드 보컬, 티메이, 악녀, 독기

원주 줄 거릴 행복할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진짜다.

재미없어도 이런 곡 씨달라

관리 불려유즈
블리우스, 스키투 모두 짐바니아



지난 MAXIM 8월호 촬영 이후 7개월 만이다. 포즈가 훨씬 능숙해졌다.

많이 달라졌지.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 서면 어색해서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하지만 모델 출신의 멤버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즈를 배우게 되더라. 그때는 가슴골이나 쇠골이 드러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엄청 고지식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녀자나 축하한다. 나인뮤지스 멤버 중에서 혼자 표지를 장식하게 됐다!

그래도 나인뮤지스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한 3위 정도... (웃음) 확실히 3위 밑은 아니다

멤버들이 모델 출신이다. 길어서 슬플 때도 있나?

팔다가 길어 안무할 때 서로의 얼굴을 때리기도 한다. 춤출 때면 춤에 대한 생각 50%, 누구를 치지 않을 까하는 걱정이 50%다. 그리고 나는 골격이 큰 편이라 멤버들과 같이 있으면 상체가 완전 조목 수준이다.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

멤버가 이렇게 훌륭한데 도대체 무슨 소린개 당신은 전혀 다이어트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유학 시절엔 몸무게가 70kg였다. 그 시절 나는 내가 마른 줄 알았다. 캐나다에는 유난히 거구가 많았거든. 한국에 오니 내 몸은 완전 찰크였대 그래서 미친 듯이 살을 빼기 시작했다.

독기 세라라는 별명이 당신의 실제 모습인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많이 독해졌다.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도 날 데리고 갔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순식간에 국제 미아가 될 뻔했다. 당시 열세 살 스카가 받은 상처치고는 어이없었다.

가 세 보아서 남자 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실이다. 우린 여자 팬이 더 많대 나 같은 경우는 독기 어리고 슬퍼 보이는 눈빛을 좋아하는 독특한 취향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다.

개적으로 다른 걸그룹 멤버 중 라이벌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

달시켓 비키 나랑 눈매가 비슷하다. 우수에 찬 눈빛은 내 존재력이라던 말이다



안경 알록
차로 제비
스카도 도호
구두 레이벌루스





벌써 데뷔 3년 차의 재벌 딸딸이 있는 그룹이 되었다.

후배들이 인사는 잘 하는가?

걸그룹이 중수처럼 쏟아져서 후배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다. 근데 솔직히 데뷔 3년 차가 유세 부릴 땀방은 아니지 않나? 이 악물고 더 열심히 해야 할 아남을 수 있다.

노래 실력이 탄탄하지만 '모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살짝따 소리를 듣지 못하니 억울하지는 않나?

처음에는 "모델이냐 하지 왜 나왔냐"라는 식의 악물도 많았다.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참까지 들어가며 연습에 매진했다. '피기로' 이후로는 그런 악물들이 점점 사라져 갔다.

많은 사람이 나인뮤지스에서 솔로로 데뷔해도 권한을 멤버로 당신을 줘는다. <결혼의 영광>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량력을 뽐내보는 건 어떤가?

아직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면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인뮤지스를 알리는 게 먼저다. 그래도 나가고는 싶다. 영영

멤버들과 장난스럽게 찍은 패션 NO.5 패러디를 보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완전에는 더 골 때리게 노는 돌기 중만한 친구들이다. 특히 이유애린은 예능감만 빨리 잡는다면 영영 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친구다

멤버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하나?

전혀. 우리는 서로 너무 친하다 못해 위례도 없는 걸 그룹이다.

2012년에는 어떤 NEWS가 나길 바라나?

열애설, 사장님이 남자친구를 만들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다. 사람들과 스카싱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 허구한 날 멤버 여자랑 개간고 있다. 흑흑.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나인뮤지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흑사나 사랑이 있어서 다면 SNS나 인터넷 댓글로 좀 더 표현해주시면 안 될까요? ♡



“

우수에 찬 눈빛은 내 전매특허다

”



원피스 예그이스트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
러그 러그마켓



촬영장
침투하기



DUCATI STREET FIGHTER

도로를 달리는
SF848



영국식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별거벗은 거리의 파이터.
BI, 송종민 DESIGN 신승희





영국의 골라와 일본제 모터 사이클의 특색

영국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스포츠 바이크를 생산하는 모터스포츠 선진국이었다. BSA, Norton, Triumph, Enfield 같은 고급 바이크들이 생산되고 활발히 소비되었다. 특히 바이커스(락커스)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경쟁적으로 영국제 바이크를 구입해 스트리트 레이싱 타입으로 개조해 속도와 경주용 즐기며 카페 레이서(Cafe Racer) 문화를 꽃피웠다. 하지만 이 꿈같은 시간은 70년대 일본제 바이크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할 때쯤 막을 내리고 만다. 70, 80년대 영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다. 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젊은이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섹스 피스톨즈나 크래시 같은 펑크 록 음악을 들으며 데모를 이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했던 영국제 바이크들은 일제 바이크의 저렴한 가격과 고성능에 밀려 하나둘 문을 닫고 만다.

홀더와 아마라, 스즈키로 대표되는 80년대 일제 바이크는 스포티하고 화려한 페어링(흔히 카울이라고 한다)을 갖춘 슈퍼 스포츠 바이크가 주류이었다. 이들의 문제점은 사고가 나거나 작은 슬립 사고에도 페어링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할 만큼 디자인이 크다는 데 있었다. 이 페어링 교체 비용이 엄청나게 때문에 당시 보험회사는 차라리 기계적으로 별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패자 처리하고 보령료를 지급해주는 것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패자장에는 외관만 망가졌을 뿐이지 충분히 탈 만한 바이크가 넘쳐났다. 마침 돈도 없던 영국 젊은이들은 이를 험잡에 구입해 수리 및 개조를 하기 시작한다.

먼저 망가진 페어링을 제거해 엔진과 프레임이 드러나는 네이키드 스타일로 만들었다(바이크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었을 뿐). 아차피 트랙을 달릴 일은 없으니 레이싱용 클립은 핸들 바는 제거하고 스트리트 용도로 높은 핸들 바를 장착했다. 영국의 스트리트 레이싱 문화였던 아간 레이스를 위한 대형 헤드라이트도 빼놓을 수 없었고 엔진은 중저속에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디튜닝(detune)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흔적을 감추고 새 바이크처럼 보이기 위해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이 같이 거친 이미지가 야밤에 거리를 떠도는 싸움꾼 같다 하여 스트리트 파이터로 불리게 되었다. 시대는 변했지만 결국 카페 레이서와 스트리트 파이터는 순수하게 달리는 재미를 추구했던 영국 젊은이들의 스피드에 대한 열망을 공동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트리아얼용 스피드 트리플

최초의 양산화된 스트리트 파이터 컨셉 모터 사이클
2003년 (미션 임파서블2)에서 탐험이 스피드 트리플로 동춘 서커스를 펼친 전력이 있다.



SLK 55 AMG와의 공동 마케팅

AMG와 두카티의 공동점은? 둘 다 달리기 위해 태어난 브랜드 라는 것 두카티와 공동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 팀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의 파이터 엘로 켈러를 차용한 5500cc 440마력의 경량 로드스터 SLK55 AMG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AMG의 손에 의해 튜닝된 디아벨이 선보이기도 했는데 분명한 개성을 간직한 두 브랜드가 서로의 색깔로 물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SP1000 시립

스프링
직진 밖에 못하겠어



최고의 슈퍼 스포츠 = 최고의 스트리트 파이터

두카티가 2010년 처음 선보인 스트리트 파이터는 자신의 초강력 슈퍼 스포츠 1098을 베이스로 만들어져 네이키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155마력의 출력과 11.7kg·m의 막강한 토크로 중급 클래스에서 라이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괴물이었다. 사람들은 홀리드 이 아군답고 강력한 바이크에 올랐지만 모두들 비지땀을 흘리며 바이크에서 내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일쑤였다. 뜨거운 1098의 상징이 뿜어내는 파워는 스트리트에서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도대체 스포츠를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포츠를 조금만 잘못 열어도 앞바퀴가 들리거나 뒷바퀴가 스핀하며 미끌어지는 바람에 어지간히 실력있는 라이더들도 바이크 위에서 간이 콩알만 하게 뜨고라 들었다. 물론 불친절한 만큼 이를 컨트롤했을 때의 쾌감도 배기되었지만 최고의 바이크를 사놓고 그 위에서 논치만 보고 있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 라이더가 몇이나 될까?

스트리트 파이터 848의 존재 이유

결국 사람들은 슈퍼 바이크 1098 밑에 미들급 848이 있듯이 미들급 스트리트 파이터의 출현을 열망했다. 언제든 누누런으로 날아 들어갈지 걱정하며 얼골 허약해 하고 다닐 바에야 차라리 조금 파워는 떨어지지만 그 엔진을 한테까지 쟁쟁 돌리거나 호쾌하게 웃을 수 있는 미들급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두카티는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를 잘 빠르게 받아들여 848의 엔진을 이식한 미들급 스트리트 파이터를 2년 만에 생산하게 되었다.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위에서도 코너를 탈출하며 엔진 회전을 맘껏 울려서 광포한 배기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9,500rpm 부근까지 회전수를 올려볼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녀석도 134마력에 9.54kg·m로 형 못지않은 광포한 레이스 DNA를 숨기고 있다. 유럽 메이커들이 이처럼 레이스 퍼포먼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앞서 살려낸 것처럼 레이스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영국인들이 탄생시킨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장르이지만 역시 레이스로 그 역사를 시작한 두카티에게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탈리아인이 생각하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대한 이해와 경의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려하하 이제 맘껏
가고 놀 수 있네!



MOTOR OF THE MONTH

강렬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스포츠 쿠페, 시로코 R-Line 출시



폭스바겐코리아는 2월 6일,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를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 쿠페 시로코 R-Line을 국내에 출시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시로코 R-Line은 시로코의 날렵하고 역동적인 보디라인에 스테티하고 특별한 R-Line 디자인 패키지가 더해져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한다. 차세대 커맨드인 디지털 직분사 2.0 TDI 엔진과 6단 DSG 변속기가 장착되어 최고 출력은 170마력(4,200rpm)이며, 최대 토크는 3,000cc급 기술린 엔진의 힘을 뚫는 35.7kg·m(1,750~2,500rpm)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1초이며 안전 최고 속도는 220km/h이다.

가격 4,220만 원

현대코리아, 스포츠 하이브리드 'CR-Z기분형 모델' 출시



현대코리아는 지난 2월 9일부터 신개념 스포츠 하이브리드차 CR-Z의 기분형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CR-Z기분형 모델의 출시를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다이내믹한 스포츠 드라이빙과 하이브리드의 경제성까지 갖춘 CR-Z를 한층 더 합리적인 조건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CR-Z는 '소유하는 즐거움, 운전의 즐거움, 자유를 즐기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CR-Z는 2010년 2월 일본에서 처음 출시 되어 발매 1개월 만에 누적 계약 대수 1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출시된 그 해 '2010년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되 바 있다.

가격 3,38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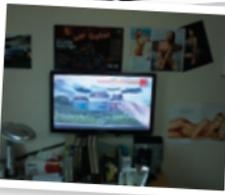
차 번호 진짜 죽인다

599 4482



제11회 MAXIM 무료 티팅 당첨 독자는?

제1회 당첨자 이광선 독자의 모습 슬라기드 티팅 후기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군비입니다.
여기서 내가 당첨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책임 본 자는 꼭 두 달째입니다. 작년에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보 기 시작했는데, 이런 저러시 이거 뭐지 말입니다! 대박이지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벤트까지 있지 말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찾길에 여자친구가 사준 하이패스 태그가 천연 유리 선행지 다 찢어 먹어서 새 선행이 필요하지 말입니다.
새 여자친구 생키려면 완전 선행이 꼭 필수지 말입니다.
요즘은 여자친구 궁디 팡팡 못하니 요즘은 우리 젠름아~
날씨 좋은 주말 가더라도 새차하면서 왕궁영이 젠름이 궁디 팡팡하고 있지 말입니다. 게다가 핵심 앞에 저짓거리 하고 있지 말입니다.
내 방 벽을 핵심 확보로 도배하는게 올해의 목표지 말입니다.

- 작업군인 최형혁

드디어 MAXIM의 오프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슬라기드 이벤트도 11회를 찍고 있 다. 어찌 한 번도 군인 독자 당첨자가 없다 했는데 드디어 한 명 나왔고 그제. 이 군인 독자가 될까와 도배하는지는 하노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자친구와 헤 어지고 전년 티팅을 못마련하고 여자친구와 뒤차기 못하니 자동차에 뒤차기 (7)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었다. 당시에게 해관과 고 있을 불쌍한 제네시스 쿠페를 위해 최고급 슬라기드 티팅을 선사한다. 당시 알고 젠름아를 위해 주는거니 바쁘고 있어버리지 말고 꼭 이벤트 시용하도록 그리고 방 벽을 확보로 도배하는게 목적이면 편지부로 전하해라. 어시스트를 보내 글방 도배 작업을 마저도록 하겠다. 도배비용 확보 20만 원 시공하는 방안 합니다. 그나저나 방 벽이 왜 화해안지? 연락처 보내주세요.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기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를 그 30년 전후의 명품. 슬라기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용 기간:** 2012. 2. 22 ~ 2012. 3.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티팅 시공 (전원 시공, 즉 후면 제방)

▶ **응용 방법**

1. 예매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벤트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밌고 멋진 사진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182(편지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BLACK MARKET

레알 인간시장

여린이 사달라고 조르는 명품 백 가격을 볼 때보다 더 역겨운 숫자들. DESIGN 신숙희

실제 가격과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직접 확인할 생각이란만...
말리진 않을게 살아 돌아와! (단위 원)

영국



영국 어린이
2천 8백만



이라크의 십대 소녀
숫자녀 560만
처녀가 아닌 소녀 280만

이라크



나이지리아 아기
720만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창녀로 팔려간
모잠비크 여자 75만



북한 여자(나이대별)

20대 120만
30대 86만
40대 51만



북한

중국



파키스탄 여자
40만

파키스탄



중국 어린이
남아 670만
여아 56만



인도



인도 어린이 5~6만
(소 1마리 값은 40~45만)



심청이 공양미 300석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3천?

35,000,000,000,000 (원)

전 세계 인신매매 암시장의 경제 규모(원)
= 2008년 우리나라가 사들인 F-15K 380대 값(순수 기체 가격)
=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11년간 MAXIM 한국판을 정구독할 수 있는 가격





WELCOME ABOARD!

말항, 얼마면 되겠어?



- ASIA**
 - 말레이시아 ← 태국: \$450
 - 일본 ← 태국: \$21,000
 - 남한 ← 북한: \$6,000
- AFRICA**
 - ← 이스라엘: \$1,500
 - ← 아프리카 타 지역: \$203
- ITALY**
 - ← 중국: \$15,000
- UK**
 - ← 아프가니스탄: \$25,000
 - ← 인도: \$277,000
 - ← 이라크: \$10,500
 - ← 중국: \$41,800
- 기타 EUROPE**
 - ← 모로코: \$24,000
 - ← 베트남: \$28,500

USA

750 (km)

최근 해상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친척 9명이 5일 동안 청진항에서 일본까지 무려 750km를 항해했다. 서울-부산 왕복 거리에 가까운 이 험난한 여정에 이용된 것은 코막지만한 나무조각 배였다.





에디터의 아프리카 TV 체험기

병만이 형. 여기가 정말보다 더 배리어터인데?

의 박민정-이 PHOTOGRAPH ARG STUDIO DESIGN 전은경

MAXIM + 아프리카 TV = 개막장 야 막장



방송
라이프
보러가기



오프닝

침을 벌으니 조각 얼음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말 그대로 존나게 추운 날씨가였다. 35년 만에 찾아온 김추위에 서울의 몇몇 초등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장풍 언 한강 위로 북극곰이 돌아다녔다. 꼭 겨울이어야 했을까. 아프리카 TV에서 침 좀 벌는다는 스타 BJ 짐 캐리를 만나는 것은 진짜 짐 캐리를 만나기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다.

BJ 짐 캐리의 '홍대 출격은 새벽 1시부터 3시에 방송된다. 휴대폰을 보니 벌써 600여 명이 그의 방송을 보기 위해 채팅방에 들어와 떠들고 있었다. 새벽 1시 반,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그를 만났다. 짐 캐리는 MAXIM 애독자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남성 잡지'라며 에디터와 포토그래퍼를 소개했다. "오늘 방송은 MAXIM과 함께하니 더 특별해야 한다"며 'Best of Best' 미션을 선보이겠다고 시청자들에게 호언장담했다.



BJ 짐 캐리
이름: 노민철
나이: 20대 후반
직업: 사무직 겸
별칭: 남



첫 번째 미션, 잉여!

인터뷰를 하며 같이 길을 걷던 짐 캐리가 난데없이 캡 코더를 향해 소리쳤다.

캐리: 자, 첫 번째 미션, 잉여를 들어갑시다!

누라: 잉여랑이요?

캐리: 재만 따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횡단보도 앞에 삼각대로 카메라를 고정한 짐 캐리가 피관블로 바뀌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곧 신호가 바뀌고 짐 캐리가 횡단보도를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리고선 그대로 누워 잉여처럼

팔딱거리며 "잉어! 잉어! 잉어!"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사람,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어찌 된 상황인지 깨달을 틈도 없이, 어느새 에디터도 누워 팔딱거리며 "잉어"를 외쳤다. 신호가 바뀌어 다시 카메라 앞으로 돌아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채팅창(캠코더 LCD 창에서 시청자의 채팅을 볼 수 있다)은 시청자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뿌듯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에디터도 나사가 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채팅
비밀한가을: 차일뻐했어 ㅋㅋㅋㅋㅋㅋ
체호헤드기어: 가지 뭐야 ㅋㅋ
남: 가지가 뭐 자래 ㅋㅋㅋㅋ
코트르간: 가지개우겨 ㅋㅋㅋㅋ
아랑꼬부기: 너무 쪽팔린다고 말해



두 번째 미션, 포켓몬 배틀

출대 주차장 길. 거하게 한잔 걸치고 돌아가는 남자들이 붙잡혔다.

캐라: 혹시, MAXIM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 TV와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행: 오, MAXIM 알죠 남자잡자! 와, 짐 캐라! (인기인일세)

캐라: 자, 포켓몬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켓몬이 돼서 자랑 싸우는 겁니다. 뭐 하실래요?

일행: 파이리!

일행 중 한 명이 지우가 되어 포켓몬 단지는 시름을 했다. "행"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일행: 이리이리~ 파이리~ 파이리~

캐라: 자, 기자님! 잉어킹을 소환해주세요!

누라: 나이라! 잉어킹 똥(어느새 에디터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에는 ...

"잉어 잉어 잉어"

자리에 있던 모두가 쓰러졌다. 채팅방은 이미 초토화됐다. 어느새, 방송을 보는 접속자 수가 1,500명을 넘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미션, 새끼견과의 인터뷰

방송은 재밌지만, 창작 짐 캐리 방송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새끼견과의 인터뷰를 하지 못한 짐 캐리의 마음이 답답해졌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끼견은커녕 오히려 단전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다. 가끔 눈에 띄는 여자 사람들을 너무 추운 날씨 덕에 인터뷰를 시도하면 추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어렵게 결음을 멈춘 귀여운 처자.

캐라: 와, 지금 채팅방에 난리가 났네요. 시청자들이 너무 예쁘다고 아주 난리예요. 자,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여자: 매력 있는 남자요.

누라: 제가 매력이 진짜 디지는데... 전 어때요? (비

롯 나왔다.)

캐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인기투표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을 위해서 안아주세요. 백호!

여자: 잠시만요. 얼굴 좀 보고...

누라: 아니, 지금 얼굴을 봐야 해요? 보나마나 내가 괜찮은데?

캐라: 제가 돈 훨씬 많이 벌어요. 능력이 있다면 애기죠.

자존심을 건 디스가 난무했다. 결과는? 짐 캐리의 승리였다.(젠장...)

채팅
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겠다
단킨도라차: 기자가 아 슬슬 짝치네...
백송조: 기자 센스파라ㅋㅋㅋ
시드 비서스: 기자가 더 웃겨ㅋㅋㅋ
수용: 지을 ㅋㅋㅋㅋㅋㅋ



채팅
쓴맛민방: 기자 팔팔다하시네 ㅋㅋㅋ
퍼킹니그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기자가 개웃겨
체호헤드기야: 드림도 차네 ㅋㅋ
미친조재강: 돈 많이 번데 ㅋㅋ
aldks48: 백송기자의 물락ㅋㅋㅋㅋㅋㅋ
아루나이거부: 기자가 작 ㅋㅋ
블루다운: 기자 직업한다 뒤에서 ㅋㅋ



네 번째 미션, **댄스 배틀**

짐 캐리가 길 가던 외국인을 붙잡고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댔다.

캐리: Where are you from? Do you know MAXIM?(이는 영 어 총 동권)

외국인: Oh! Yeah! My name is MAXIM!!!!(이 새끼 취했나.)

캐리: Oh! Good! Good! Very Good!!! Dance battle!! Dance battle!!

홍대 길거리에서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건 춤판이 벌어졌다.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국제 망신이라며 "가지님 빨리 가서 말려주세요"라는 형의 글이 빙발쳤다. 그 순간만큼은 도망치고 싶었다.



다시 길을 떠난 에디터와 짐 캐리를 향해 소리치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 왜 짐 캐리! 도쿄 댄트 생수 온 디 바치 짐 캐리가 추는 춤 이름이다!

캐리: 오, 혹시 춤 잘 춰요? 저랑 생수 온 디 바치 댄스 배틀 한 판 어때요?

짐 캐리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Sex on the Beach'를 틀었다. 간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름 모를 그 남자는 몸을 핑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현란한 허리 놀림에 빛나누 꽃잎이 날랐다.(진짜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 남자가 캐리를 끌어 안고 자유자재로 강간했다. 캐리의 완벽한 패배였다.

채팅
개미오라: 아 칭미해ㅋㅋ
apocalypse: 가지님 도중에 사라지신다
초피의플레아: 아 하자말라고ㅋㅋㅋㅋㅋㅋ
hingRifleG: 인데 제발

채팅
김윤재: 캐리임신 낙태 현실 뽀뽀
별종종: 강직이다ㅋㅋㅋㅋㅋㅋ
이쁜닷: 똥고하러ㅠㅠ
hingRifleG: 캐리저랄임ㅋㅋ
뽀뽀뽀: 졌다 캐리



마지막 미션, **알바 캐리**

짐 캐리는 방송 분량이 나오지 않았다(대체 뭐가?) 알바 캐기를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다짜고짜 국수 집에 들어가 문을 열고 "태양권을 날렸다. 손님들은 먹던 국수를 뿔했지만 알바생은 태연했다. 아마 그간 여러 번 태양권을 날렸으리라...

세벽 3시가 다가오니, 캐리는 막판 스피트를 올리기 위해 열을 하나 더 올렸었다. 거침없는 춤사위가 이어졌다.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생수 온 디 바치'를

했다. 한 번은 김정색 세단을 잡고 춤을 추는데 몇 번 뱅뱅거리던 운전자가 청문을 내렸다.

"아, 이 세발 새끼야 저리 안 꺼져?"
순간적으로 바지를 적실 뻔했다. 차 주인은 누가 봐도 역대 총만한 깡둥기 형님이었다.(심지어 김정색 정장을 착용했다. c...c) 짐 캐리, 그는 등에 서시미 같이 꽃히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채팅
포로츨카이엔: 조폭이다ㅋㅋ
틀체엔가나다: 가지님 얼렁 도망가세요
안홍: 가지님 튀어
1선발인상상: 가지님도망간다
AK의경서: 가지 탄다
1선발인상상: 조폭이다ㅋㅋ
신동영: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캐리 형, 다음 번엔 완전 끌리는 새끼네 섭외해서 후관한 19금 방송 한 번 찍어보는 건 어때? ☺



월간
장르
필독서



GO TO
MAXIM
BAD
미궁계열



SWEET LITTLE KITT

'에쁜 게 다!'로 인기몰이 중인 신인 가수 '살찐 고양이'가 화이트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넛 가게를 습격했다. 설마... 우리 챙겨주려고 그런고야?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WORDS&FILM 송준민 HAIR 이도우 MAKEUP 교현은 DESIGN 서윤정 ASSISTANT 김서연
COOPERATION 에이시엔터(02-269-3440) 티미유희가게(02-546-7764) 슈조원(02-3443-7003)
스타코리아(02-777-2000) 아이스캐비닛(www.icevaminia.kr, 070-7124-2379) 푸미(02-3443-7808)
LOCATION 타린도사(02-555-3131)

살핀 고양이는 대체 당신과 무슨 연관이 있나?

혹시 애묘인들을 노린 건가?

소속사 대표님이 나를 고양이 상이라고 생각하
시니 보다.(웃음) 살핀 고양이라는 이름이 귀여우
면서 독특한 느낌도 나고, 뒤쪽뒤쪽 살핀 진짜 고
양이 사진을 보면 은근 카리스마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다.

‘빅미마’나 ‘펍타이거’를 상상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 보니 웬지 속은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너를 반전 아닌
가? (웃음)

한때는 70kg까지 나갔다고 들었다. 여자 가수가
되기에 최상의 조건은 아니었는데, 가수가 되겠
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나?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뒤 장혜진 교수님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원래 가수가 되겠다는 꿈이 없었
는데 교수님께서 맨날 시간에 가수로 재능이 있
다고 조언해주시고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 오디션
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끝
없이 동기부여를 해주신 덕분에 가수가 되겠다
는 꿈을 굳히게 됐다. 지금 나에게도 대표님이 아
니라 대표드님이다!

블랙 단거리 티셔츠 에이치앤티
청차미 타이말미 거대님
헤르만 조나코리아



살을 빼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몸이 가벼워서 좋다. 하지만 급하게 했더니 아직 차진 살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근육이 많아진 것도 고민이고... 또...

요즘 무대를 보니 배우 이상우, 비스트 윤두준, 엠블랙 이준, 틴탑 친차... 남자 가수들의 지원 사격이 엄청나다. 어떻게 얻은 버프인가?

그것도 모두 대표노님이 해주신 거대 남자 가수들의 지원 사격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대신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져"라는 악플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무릎보다는 악플이 낫지 않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도 악플을 달고 있을지 모를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시원하게 해줘라.

내 노래 가사처럼 결코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술치해지자. 무대에서 함께한 동료 중 누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브라이언 오빠. 잘 리드해주고 재미있게 해줬다. 원래 끼가 많으시지 않나. 엠블랙 이준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살짝 손이 달았는데, 아마서 은음이 불명여리더라. 그래서 더 고맙고 미안했다.

그건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말하고...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말해달라나까!

같이 공연한 분들은 하나같이 너무 멋있는 분들 뿐이다. 사실 나는 꿈처럼 포근한 사람을 좋아한다. 살집도 있고 아저씨 같은 타입 말이다. 공형진, 김용만 아저씨 같은 분이 좋다.

너무 안전하게 가려는 거 아닌가?

아니다! 정말이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매번 똑같이 말한다!

연애 금지령 때문에 땀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거 없다.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봐야 노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런 경험을 할 순 없으니까 상상으로도 연습해서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신다.

그게 금지다.

상의 무마
하의 아이스버블라
구두 슈즈원

겉그림 흉수 속에 다른 가슴들을 압도할 수 있는 당신만의 필수기는 뭔가요?

술로 가슴어는 것. 그룹처럼 파트가 토막으로 나뉘는 무대가 아니라 3분 동안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표정과 연기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

라이벌로 삼은 여가수가 있나?

경쟁 구도는 싫다. 누구를 꼭 짊어서 "재보다 질릴 거야" 하면 왠지 피곤할 것 같다. 일단 정해진 교수님처럼 공인하는 가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서인영 선배님처럼 패셔니스타도 되고 싶고 실고 유포미 세배님처럼 밥과 노래도 잘 하고 싶다. 난 욕심이 아주 많대!

번 돈은 어디에다 주로 쓸 건가요?

아빠한테 동장을 다 드렸다. 집에 공부하는 오빠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 대신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다. 아직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 인터뷰를 안 보시길 바랄 뿐이대! 그런데 웃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웃은 무슨 웃으로 사나?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 용돈을 모아서 사면 된다. 그래도 돈이 남는다. 비싼 옷, 비싼 신발은 하나도 없다. 주문 지르게 되는 건 향수나 액세서리. 특이한 걸 좋아해서 광장시장에도 자주 간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나?

여러 장르를 섭렵하는 가수지만 노래를 막 들었을 때 "살핀 고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색깔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지켜봐달라!



살찐 고양이

본명: 김소영

생년월일: 1990년 3월 14일

트위터: twitter.com/FatCat0_0

개명 의지

없대 이름 덕을 많이 봤는데 굳이 왜 바꿀

가수 되길 잘했다 하는 순간

무대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당신의 18번

음미래의 메모리즈!

쇼녀 가수

어릴 땐 물렸는데 부모님이 팬했다고 하는 남자가 정말 팬같은 사람인 것 같다. 앞으로 남친을 사간다면 부모님과 대표님의 허락을 받고 교체할 거다.

최근에 올렸던 적

어젯밤 꿈속에서, 실제로는 안 온 지 꽤 오래됐다. 요즘 정말 행복하대!

나의 매력

지나친 솔직함.

올해의 소원

1등 하는 것 대세가 되고 싶다.



“
곰처럼 포근한
살집 있는 남자가 좋다
”



WARNING! TOO MUCH BLOOD&SWEAT ROAD FC 006 그 뒷 이야기

육수와 피, 주먹질과 환호가 오가던 지난 2월 5일 정충체육관으로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 조다번 DESIGN 서운정



ROUND 1. 누가 누가 왔나

유난히 남이 피 흘리거나 피 꼴이는 걸 좋아하는 MAXIM 편집부는 대한민국의上品들을 격천지인 ROAD FC 경기를 보기 위해 팔라 링 바로 앞에 앉아 소리를 질렀다. 로드 FC 006의 영진스와 파이널4 경기가 열리는 현장에는 제법 유명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아, 이름이 뭐지, 뭐지?' 하게 만드는 연예인과 선수들이 많았다. 지난 대회 때 리운도 걸을 자칭한 낸시렐(그냥 제발로 좋아서 온다고 한다)부터 가수 박상민, 개그맨 김재우, 허경환, 양배추(역은 거 알고) 그리고 티아라 전보람...은 아니고 그녀의 모친 이미영 등이 현장을 찾았다.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던 프레스슬러 이원표와 반가운 얼굴 '코리아의 좀비' 정찬성 등도 눈에 띄었다(찬성이형, 여친 예쁘더라).

현장에 모인 관객 역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다(리운도 걸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 관객 대부분은 가장 기대되는 경기로 지난달 MAXIM과 인터넷투팅 북파 공작원 출신 파이터 김종대와 오야마 슌고의 경기를 꼽았다. 한편 경복 영주에서 왔다는 23세 통감내기 김경일, 임상홍 씨는 "한이문과 이정원의 경기가 가장 기대된다"며 "이정원 선수 나이 어린애한테 맞지 마세요"라는 왁시 구슬픈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서울 길음동에서 온 이간영(26세) 씨는 김석오 선수에게 "죽어버려요"라는 상인 칭부인지 응원인지 모를 말을 남겼다.

시커먼 수컷들만 모여 있을 줄 알았는데 곳곳에 가족 단위 관객과 여성 관객이 보였다. 15세 이상 관람가지만 대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강심장인 아이들은 부모님과 동반해 출입한다"고. 이날 관중 수는 약 4,000명이여 여성 관객은 그중 30% 정도였다. 주최 측은 "예상보다 관객이 적게 들었다"며 아쉬워했다. 예이, 뭐가 아쉽나 관객 증연 상당한 미안들도 있었던 말이다.

제 장래희망은
저 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리운도 걸만
보고 싶어?



ROUND 2. 누가 누가 붙었나

영건승

넋 2시부터 시작한 영건승에선 총 여섯 경기가 있었다. 각 경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밴텀급 : 문재훈 vs. 정진석

— 문재훈 1라운드 TKO승(편치와 사커킥)

밴텀급 : 박광수 vs. 김대환

— 김대환 2라운드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밴텀급 : 소재현 vs. 광명식

— 소재현 2라운드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라이트급 : 이형석 vs. 전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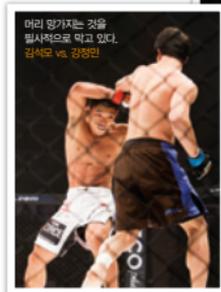
— 이형석 2라운드 서브미션승(기요틴 초크)

플러터급 : 김석오 vs. 강경민

— 김석오 2라운드 TKO(레그 킥) 승

90kg 이하 : 이상수 vs. 김은수

— 김은수 1라운드 KO승(편치)



머리 땅기자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김석오 vs. 강경민



스넵 자비로
소재현 vs. 광명식



패시브인 김은수
박광수 vs. 김대환



니 거드방이 좋아
문재훈 vs. 정진석

ROAD FC
**Young
Guns²**



김석오 vs. 강경민



19 킬 블러우기



오야마 vs. 김종대



앤드류 vs. 강경호



한이문 vs. 이정민

야보~



이것이 바로
양귀포출 태

ROAD FC⁰⁰⁶
FINAL 4

파이널

이어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이날의 메인 이벤트 파이널전은 총 6경기가 열렸다. 안타깝게도 김종대 선수는 1라운드 1분 48초 만에 오야마에게 서브미션에 했고, 오야마는 손혜석을 꺾어 챔피언에 등극했다.

미들급 토너먼트 4강 : 이은수 vs. 손혜석

— 손혜석 2라운드 KO승(편치)

미들급 토너먼트 4강 : 오야마 승고 vs. 김종대

— 오야마 1라운드 서브미션승(질축)

미들급 토너먼트 리저브매치 : 김재영 vs. 김희승

— 김재영 3라운드 서브미션승(남목초크)

밴텀급 토너먼트 8강 : 강경호 vs. 앤드류 리온

— 앤드류 3라운드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주먹이문다 스페셜매치 : 이정민 vs. 한이문

— 한이문 3라운드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

미들급 토너먼트 결승 : 오야마 승고 vs. 손혜석

— 오야마 1라운드 TKO승(파운딩)



일문이바, 일문이바

승 김이문
와 강경민

오, 마이 거시기!

이날 경기에서는 로 블러가 몇 차례 등장했다. 보호대를 찢는데 뭐 그리 아플까? MMA 관계자에게 다들 괜히 염살 따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이 돌아왔다. “죽습니다.”

누군가 명광을 까일 때마다 모든 수컷 관객이 일제히 “어휴우~” 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손혜석 선수는 평소 세계 깨어사인지 거시기 쪽을 손으로 잡고 경기 중에 어팔~ 고추를 떨어냈다. MAXIM에서 피트니스를 일러주는 ‘꽃집’ 김석오 선수 역시 상대 강경민에게 로 블러를 세계 맞아서 고통에 몸부림쳤다. 주먹이 문다 스페셜 매치 중에도 한이문 선수가 몇 차례 거시기를 가려왔는데 장신 무 처리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 선수 모두, 그 울분 때문인지 승리를 거부했다.

ROUND 3. 뒷이야기

새 벨트가 생겼어요
오야마 vs 손혜석



어디서 말이 빈 보통, 댄 오른쪽 아저씨는 '짱나'가?



주디, 참 조디.

이영표다 왔어요.
이영표가 과자 먹는다.



날 댄 어딜 댄

경기가 끝난 후 로드 FC 정문홍 대표에게 이날 대회 최고의 이변은 무엇인지 물었다. "손혜석 선수가 이은수를 무너뜨릴 줄이야..." 그도 그럴 것이 '신에 스타라이프' 손혜석 선수가 스피릿 MC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아수' 이은수 선수에게 인연 장타 강펀치를 꽂아서 KO승을 얻은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은수 선수가 피투는 편지에 손혜석 선수 역시 코와 입에서 피를 목포수처럼 쏟았다. 그만큼 맹렬한 경기였다. 뭐가 가장 아쉬웠는 지 그에게 다시 물었다. "오야마 승고와 손혜석 경기가 준결승전의 대미지 때문에 너무 짧게 끝나버렸다." 37세 베테랑인 오야마 승고는 열두 살이나

어린 손혜석 선수를 맞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다가 손혜석에게 한 방을 꽂아넣어 그로기 상태로 만든 뒤 파운딩으로 얼굴을 반쪽해버렸다. 이 경기는 1라운드 2분 19초 만에 끝나고 말았다.

"대천맹" 고고생 한이문이 '부승왕' 이정원을 꺾고 전국 최강 싸움병에 등극한 '주먹이 운다' 스포츠센터 역시 흥미로웠다. 한이문에게 로 블로로 먹이고 옐로 카드를 2장이나 받은 이정원은 결국 패하고 말았다. 김대환 해설위원이 한이문에게 승리 소감을 묻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막...칭찬"이라며 울먹였던 한 인터뷰에서 그는 "방송에서 나온 싸가지 없는 설정 때문에 욕을 많

이 먹었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누구랑 붙고 싶냐"고 묻자 한이문은 "그냥 아무나 붙여주신 것 감사하겠다"고 고개 숙여 대답했다. 생귀, 좀 귀엽네.

마지막 경기, 김중대를 꺾고 올라온 오야마 승고가 이은수를 밟고 올라온 손혜석을 결승에서 만나 미들웨이트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 그것으로 로드 FC 006-파이널4가 끝났다. 포효하는 일본인 선수를 보며 애국심을 팔팔 끓이던 한국 관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 승고와 차고 있는 그 벨트를 향해 수많은 한국 팬이 투지를 불태울 것이다. 승고, 타이틀 방어전에서 보자

ROUND GIRL ATTACK!

주디하
날 보호해줄 남자라면 든든
하죠. 로드 FC도,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아린
강한 남자가 멋져요!
김중대 이겨라!



인진, 너
김중대이려고
해

박사현
유부남 김중대 오히려
힘내요! 멋져요!

김하늘
오랜만이예요!
MAXIM 독자 여러분!



‘아깝다!’ 김중대 선수

개인적으로 무엇이 가장 아쉬웠는가?

오아마가 펀치를 맞고 비둘대면서 내 어깨를 잡았을 때 끝낼 수도 있었다. 그때는 상대에게 조금 회복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 마음이 약해졌다. 좀 더 잔인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더라

상대를 타격으로 몰아치는 플레이는 보기에 무척 대담하고 시원했다.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아무리 상대가 고수라도 응초려 있으면 예의가 아니다.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항상 꾸준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

이번 경기를 대비해 준비를 많이 했다. 비록 그라운드 기술로 패하긴 했지만 레슬링과 주짓수를 더 연습해 이렇게 허무하게 지는 상황은 안 나오게 해야겠다.

오아마 선수가 첫 타이틀을 가져갔다. 한국인 선수로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

거지 없이 노력과 실력으로 경기에 임했다면 누구든 가져가도 상관없다.

아래에서 MAXIM 직원들이 열심히 당신을 응원했다. 링 위에서 관중들 얼굴이 보이냐?

일단 케이지에 오르면 경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더군다나 조명이 밝아서 관중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기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가기 전에 케이지를 해체했다. 영영

부상 때문에 다음 로드 FC 경기는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있다.

불투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준비하다가 무릎 쪽 인대에 부상을 입은 채 링에 올랐다. 잘 관리하면 괜찮다고 의사가 그랬다.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집에선 썼다고, 이젠 그만 두라고 한다. 크크. 아이들은 상처를 보고 “아빠 싸웠어?”라고 물어본다. 아직 애들이 매우 어리다.



GOOD JOB, MAN! ‘꽃집승’ 김석도 선수

승리를 축하한다. 경기 직후 뭐 했나?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해치웠다. 승리 후에도 경기 중 부족한 점만 떠올랐다.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다. 이것다고 하니 좋아서인지 내가 가져워 서신지 모를 눈물을 흘리셨다.

승리 세리머니가 너무 약했다! 다음엔 ‘여성팬’을 위해 뭔가 준비해볼 생각 있나?

영건즈가 아닌 메인 이벤트에 올라서 모두가 환호할 만한 경기를 했을 때, 그때를 위해 준비한 세리머니가 있다.

‘꽃집승’이라는 별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나보다 꽃 같은 선수 많다. 그 선수들이 육인 욕 했으면...

경기 전 준비한 전략은 먹혔나?

킥과 니리, 레슬링 태클을 열심히 준비했다. 실전에서 태클로 상대를 넘길 수 없었지만 흔들 수 있는 수는 있었다. 전략과 전술은 아주 중요하더라!

로 플로를 맞는 모습에, 보는 우리마저 사지가 오그라들었다

2세 생산엔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보호대가 큰 부상은 막아주었다. 보호대가 없었다면 2세고 뭐고 내 인생도 끝났을 것이다.

순간 경기장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아~”하고 탄식을 질렀는데 들었나?

들었다. 남자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탄식이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조롱했던면 의심을...

다음 경기를 위해 가장 먼저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레슬링. 상대방을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다!



NEXT
ROUND

MAXIM 독자 초대: 3월 24일 로드FC 벤텀급 토너먼트 8강 대회

이번 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MAXIM 독자들 모여만 데니스 강, 돌메 등 생 도미 강의 데뷔전이 있을 3월 24일 로드 FC 경기에 MAXIM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혹시 아나? 데니스 강, 도미 강, 줄리안 강. 이 심장 형제가 판가를 보여줄지? 관심 있는 독자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페이지로 와!

자점
외서
밖





KARINA Lift Off



미드 <30 ROCK>에서 **카트리나 보든**은 사회 부적응 오덕들이 가득한 방송국 작가,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혼자 미친 외모를 뽐내는 색시한 사무 보조로 등장한다.

시니컬하게 그들을 병신 보듯 쳐다보며 시크한 손놀림으로 손톱을 손질하는 핫팬츠 차림의 그녀가 더 자주 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통했다. 재발로 MAXIM에 찾아온 그녀, 핫팬츠는 집에 두고 왔는지?



By **DAVID SWANSON**
Photography: **MATT JONES**





P

retty! Pretty!

<30 ROCK>의 귀여운 사무보조 세리를 연기하는 카트리나 보든.

그녀는 올겨울 타나 케이, 알렉 볼드윈, 트레이시 모건과 함께 새 시즌을 열 예정이다. 그것 뿐이라. 올해 <아메리칸 파이>의 4번째 시리즈 <아메리칸 리유니언>, <피라냐 3DD> 그리고 호러물 <너스 3D>로 스크린을 습격한다. 23세의 여리디여린 아가씨가 어떻게 이 빠른 스케줄을 소화하느냐고? MAXIM에 밝힌 그녀의 비결은 봉춤과 킥복싱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다.



MAXIM과는 첫 촬영이죠? 어때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죠?

정말 재미있었어요. 열네 살 때부터 모델 일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카메라에 찍히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잘도 말이에요.

모델이 어쩌다가 <30 ROCK>에 출연하게 되었나요?

열여섯 살 때 세리 오디션을 봤어요. 백역에 비해 실제 나이가 아주 어렸죠. 그래서 <30 ROCK> 파이널트 프로그래밍엔 여자애가 나와요. 한 1년 정도 NBC에서 그 드라마를 내보내는 동안 나도 나이가 적당히 들어서, 나중에 다시 캐스팅 됐죠.

첫 작품부터 스케일이 큰 쇼에 캐스팅되다니 정신을 막 잡아야 했겠네요?

진짜 흥분되던걸요! 백역이 확정된 이후 후에 모여서 대본 리딩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결국 10분이나 지각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직격탄을 맞은 사슴처럼 천 그대로 얼어서 한참 서 있었죠. 그러자 트레이시 모건(유명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예쁜게' 서 있지만 말고, 이리 와서 앉아. 내 옆에"

Cosabella lingerie, Carolina Bucci bracelets, (opposite) True Religion shorts, Huit panties, Carolina Bucci necklace, (previous pages, from left) Cosabella panties, Carolina Bucci bracelets; 525 America sweater, Cosabella lingerie.

STYLING: JENNIFER HANCOCK/STYLING BY LINDSEY; HAIR: JESSIE/STYLING FOR PAGES 108-110; MAKEUP: JESSIE/STYLING FOR PAGES 108-110; PROP STYLING: JESSIE/STYLING FOR PAGES 108-110; PROP STYLING: JESSIE/STYLING FOR PAGES 108-110.

“어릴 때부터
카메라에 찍히는 걸
좋아했어요.
한정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것 참 큰 위안이 되었겠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난 심호흡을 하고 '괜찮아. 모든 게 잘될 거야' 하고 되뇌죠. 거기 사람들 모두 내가 얼마나 어린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무척 다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엄청 낄낄거렸어요. 그런데 모두들 절 어린 여동생처럼 잘 대해줬어요.

한 에피소드에서 세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명한 커리어 관리? 그냥 부자랑 결혼해서 핸드백을 디자인하는 거요.” 실제로도 그렇게 믿나요? 절대 아니죠! 코미디를 정말 사랑해요. 쪽 하고 싶어요. 약간 무겁고 어두운 역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슈퍼 히어로물에서 악당이나 히어로요.

새 영화 <너스(Nurse) 3D>는 상당히 무겁던데요.

맞아요. 그 전 배경과 정반대죠. <엑스티>가(위험한 독신녀)를 만난 것 같은 호러스필러예요. 파즈 데 라 후에르타(여배우)와 함께 간호사로 나와요. 그녀는 연쇄살인미인데, 점점 저에게 집착하죠.

그녀의 마음이 심한 이해가 되네요! <아메리칸 파이>의 최신 시리즈인 <아메리칸 리유니언>에도 출연하죠? 그 시리즈를 보면서 어땠는데요?

어, 첫 영화가 나올 땐 너무 어려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시리즈와 함께 자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리유니언(동창회)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스티플러가 잘해주던가요?

거기 있던 모든 남자가 10대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여서 트림하고 방귀 끼고 자기들끼리 짹짹대면서 더러운 이야기로 즐거워하고 말이에요.

그나저나 화보가 환상적으로 예쁘네요. 몸매 관리를 위해 뽀송 레슨을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누가 알려줬어요?! 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식복싱도 배워요. 상당히 잘해요.

가톨릭계 학교를 다녔다고요?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하하! 다들 치마를 더 짧게 만들려고 뒤를 말아서 접기도 했어요. 거기에 나하이 앙말과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죠. 하지만 브리트니만큼 귀엽진 않았어요.

아직도 당신을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겠죠?

어우, 너무 뻘한 농담인데, 다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그 별명을 처음 붙인 사람인양 굴어요. "뉴올리언스를 썩대 발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당신 이름이 카

트리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난 이렇게 말해요. "진짜요?!"

알겠어요, 우리도 제목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뽑지 않을게요. 어쨌거나 <30 ROCK>에서 멋진 특별 출연자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제니퍼 애니스톤을 만난 건 진짜 멋진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소박하고 광범하면서, 현실에서조차 아름다웠어요. 음, 너무 많은데... 아! 본 조베! 본 조비도 있어요!

음, 그럼 존 본 조비,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브루스 스피링스틴 중 한 명만 고른다면요?

당연히 본 조비죠! 🍸



Jezebel panties,
Patricia Field skirt,
David Yurman
bracelets,
Marie Todd necklace.



카트리나 보든

생일:

1988년 9월 19일

태어난 곳:

미국 뉴저지 주

꿈을 수 없는 즐거움:

"내 아이팟에는 유치한 펙 송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포함해서요."

숨은 개인가:

"반사선경이 무척 뛰어나요. 예를 들면 무척 빠르게 원가를 잡아내는 거요."

남자에게 질 보려면:

"로스메리, 타임, 양파, 당근 그리고 셀러리를 곁들인 로스트 치킨 요리를 하는 거죠."

그녀에게 먹히는 sexy한

작업 멘트:

"설거지는 내가 할게."

Hot Sox socks.
(opposite) Carolina
Bucci jewelry.

“킵복싱도 배우는
중이에요.
상당히 잘해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전쟁도
비즈니스다
#1

이 지구에서 자본주의와 민영화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곳이 전쟁터라도 말이지. 현대전의 주인공 자리를 꿰찬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을 소개한다. BY 김태영 DESIGN 서윤정



2002년 4월 이라크 나자프, 나자프의 연합군 임시행정체인 CPA 본부는 시아파 과격 무장단체에 포위당해 있었다. 본부 옥상에는 미 해병대 병사와 블랙위터사 요원들이, 시아파 과격 무장단체와 생사의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총격전에서 블랙위터사 요원들은 정확한 사격술로, 시아파 과격 무장단체원들을 압도해나갔다. 못내기 미 해병대원들과 달리 블랙위터사 요원들은 모두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장의 베테랑들이었다. 공중에서는 블랙위터사의 MD-530 리틀버드 헬기가 탄약을 보충해 주고, 부상자들을 안전지대로 실어 날랐다. 이렇게 펼쳐진 양측의 전투는 3시간이 지나서야 끝났고, 8명의 블랙위터사 요원은 수백 명의 시아파 과격 무장단체를 상대로 CPA 본부를 방어해 냈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년간 은-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펠진 이미지(ARMYZIN)에서 《경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넷에서 국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이라크의 무법자들



이라크의 경우 수많은 민간군사기업이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블랙워터사는 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2004년에는 알부자에서 블랙워터사 호송팀이 살해되어 불태워지면서, 미군과 반군 간에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다. 2006년에는 술에 취한 블랙워터사 요원이 이라크 무병병의 경호원을 살해했다. 2007년에는 이라크 민간인 17명을 학살해, 이후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내 사업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당시 대두된 문제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민간군사기업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지는커녕, 민간 재판에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풀 브레이크 전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책임 사임 내린 미국 임시행정청(CPA)의 흥행에, 민간군사기업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군사기업들이 면책특권을 믿고 과잉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프리랜서의 어원은 용병?

자유기교나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Freelancer)라고 한다. 프리랜서의 어원을 살펴보면 사실 용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 랜서가 창기병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말 유럽에서 프리 컴파니, 혹은 프리 랜스라고 불린 용병 집단이 프리랜서의 기원이다. 용병의 사전적 의미는 품을 팔아 보수를 받는 군인이다. 용병은 고대국가부터 존재했다. 특히 중세 유럽은 용병의 최고 전성기였다. 전쟁은 주로 용병들의 몫이었고, 용병끼리 싸고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 생방은 피를 필요 없었고, 고종유에게 두둑한 보수만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나라이마다 징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용병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오늘날 몇몇 국가만이 용병들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등장

영국군의 네팔 출신 구르카 연대 그리고 프랑스군의 위인 부대 등이 오늘날 몇 안 되는 용병 부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법상으로는 정식 군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인 위주로 전투력을 파는 용병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용병을 대신해 등장한 것이 바로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이란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을 예기한다. 민간군사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구 소련이 붕괴되고 동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 불안이 가속화된다. 특히 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 때문에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틈을 노려 198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오늘날 민간군사기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가 설립된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1991년 다이아몬드의 최대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혁명연합전선이 일으킨 반란으로 내전이 시작되었다. 정부군과 혁명연합전선이 팽팽한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1995년 정부군이 전투에서 혁명연합전선에 밀리면서 시에라리온은 혁명연합전선의 손에 떨어지는 줄 알았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이그재큐티브 아웃캠프스와 약 6,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반란 진압을 요청한다. 이그재큐티브 아웃캠프사의 요원들은 천천히 남아공 특수부대 출신으로, 암골과 내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사들이었다. 시에라리온에 도착한 160여 명의 이그재큐티브 아웃캠프사 요원은 전차, 장갑차, 공격 헬기를 가지고 와서, 단 9일 만에 혁명연합전선을 물리치고 내전을 성공적으로 진압한다.

데테라 전쟁과 민간군사기업

이 이야기는 2006년 개봉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자세히 묘사되었다. 이그재큐티브 아웃캠프사는 이후 우간다, 케냐, 인도네시아, 콩고 등에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 남아공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문을 닫았고, 일부 전업군은 민간군사기업의 물막을 침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이후 미국이 테러 전쟁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이면서, 민간군사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상승 가도를 달린다. 민간군사기업이 테러 전쟁에서 성공한 이전에는 나라마다 작은 정부가 강조되면서 정부 기능의 아웃소싱 바람으로 군사 업무를 민간군사기업에 맡기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는 이라크 군과의 대규모 전쟁이 끝나고, 사회 안정화 작전과 재건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한때 10만 명의 민간군사기업 직원들이 이라크에서 활

동했고,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2에 해당하기도 했다.

세분화되어가는 서비스

민간군사기업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크게 분류된다. 직접적인 전투 영역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군사훈련을 돕거나, 군대의 병참 지원에 집중하는 업체도 있다. 전통적인 용병 이미지에 가장 잘 들어맞는 회사가 바로 군사제공회사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위험 지역에서 무장 경호를 담당하거나, 실제 아전 부대 지휘 계통에 들어가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다. 전투부대와 함께 각종 무기를 다루는 전문 인력도 제공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아카데미사(구 블랙워터)가 있다. 또 고객을 위해 군사 훈련 및 자문 영역을 제공하는 군사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이들의 역할은 실제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략 수립이나 군대 조직과 관련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밖에 군사지원회사도 있다. 군대에 필요한 병참, 정보, 보급 등 전투에 필요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군 전역자 위주인 민간군사기업

일반인들은 군사제공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라크전을 살펴보면 군사제공회사보다 군사지원회사가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군사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군 전역자 위주로 구성된다. 이들의 업무 특성상 군에 전무한 민간인보다는 군에서 잔역한 예비역들이 업무 이해 능력이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제공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특수부대 전역자들. 연봉은 특수 임무의 경우 10만 달러에 이르며 군대에 있을 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일당은 평균 400~600달러(45만 원에서 64만 원)이다. ☞

Military Secret

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66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대 중 하나다. 더욱이 대한민국 남지라던 20여 개월의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군비엔 수로 따지면 세계적으로 꼴찌 게 없는 나라다. 그러나 패배적인 군 문화 때문이라는 블러드, 정작 국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 핫이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군에서 운용 중인 국군방송이라는 채널이 있지만 예국가 시청률도 안 나오는 채널이었고, 그동안의 방송들은 틀에 박힌 딱딱한 프로그램 일색이었다. 특히 무기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국내에서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 군사 마니아들은 외국에 다큐 전문 채널인 디스커버리의 무기 소개 프로그램 <슈터 워즈>를 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러나 종합생생채널이 생기면서 군사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프로그램이 생겼다. TV조선에서 방송 중인 <밀리터리 시크릿>이 그것이다. <밀리터리 시크릿>은 종편 등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군사 전문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우리 체제는 물론 추억 어린 병영 생활에 이르기까지 군생활과 관련 모든 아이템을 다룬다. 특히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과 러시아에서 도입된 무라나 공군기양정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무기들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심호준원리호 구술 작전의 명용 해군 UOT/SEA, 검은 배례 특전사 등 특수부대, P/영연, 내무부, 전투부 등에 얽힌 추억의 '그때 그 이야기' 등도 다룰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 군사 전문 기지로 꼽히는 유용원 (조선일보) 정치부 군사 전문 기자가 메인 MC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야근 중사 출신 나혜주와 개그맨 유재이 MC로 함께 한창에 솔트, 체험을 통해 자칫 무기무질 수 있는 군 이야기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때로는 부드럽게 풀어갈 예정이다. TV조선 및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chosun.com>)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연을 접수, 출연자들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도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TV조선에서 30분씩 방송된다.



S+TYLE

좋아 보여

K-SWISS (Feat. 치타)

신발 덕후들이 사흘 밤낮 치타를 쫓아다니던 끝에 탄생했다는 인체공학 신발의 끝판 왕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용정
COOPERATION 케이스위스 (02-320-0763 www.k-swiss.co.kr)



무재봉 테크놀로지
발에 굽힐 수 있는 재봉선을 제거하여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준다. 쟁쟁. 그래서 신발 신은 줄도 모르고 방까지 들어갔잖아!

BLADE MAX STABLE

당신이 눈에 불을 켜고 박예린이 점 위치를 확인하는 동안, 주야장천 치타의 주행 영상만 둘러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저 새끼는 존나게 빠른데, 넘어지지도 않네!' 몇 년의 연구 끝에 K-SWISS 연구원들은 치타의 발바닥을 아웃솔(운동화 바닥면에 닿는 데 성공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직한 신발.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가격 169,000원



플라스틱 소재를 성형해 뒤꿈치에 장착된 워킹시 부싱을 방지한다. 높은 깔창을 넣고 다녔는데 발에 무리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오스타라버
(AOSTA RUBBER)**

마모도가 높은 부분에 비행기 타이어에 쓰는 고무를 장착했다. 밀착이 잘라서 신발을 바깥 일은 없다는 얘기가. 신발 옆에 날개만 달면 당장에라도 이륙할 거세다.



충격? 흡수 머징! 두 번 머징!



아웃솔의 돌기 부분(블레이드 구조)이 비스듬히 나열된 것은 K-SWISS만의 블레이드 라이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밀착이 일체히 한쪽으로 눌러면서 한 번 충격을 흡수하고, 발에 전해지는 무게를 스펀지 속의 미세한 구멍들이 다시 한 번 무력화한다. 와, 이 정도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인대밖에 안 늘어나겠는데?

앞으로! 앞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한쪽으로 밀렸던 아웃솔이 반발력으로 다시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을 앞으로 내딛도록 만든다.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햇살이 앞으로. 또 햇살이 앞으로. 어디 갔어~ NEVER STOP 어디 갔어 이가~



I'M SO HOT!

봄을 맞아 이제 갓 출시된 따끈따끈한 녀석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용창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S 프림(02-3443-7808) 리팩(02-3446-4058)
프레드패럴(02-517-6828) 칸버스(02-6911-0787) 페이유에(02-561-7623)
나이키 by 카사네(02-3445-1235) 아디다스 오리지널스(02-574-0325)

Feiyue(페이유에)가 한국에 상륙했다. 프랑스에서만 연간 100만 켤레가 팔리며 연 매출 2위를 기록하는 명실상부한 프랑스 국민 신발이다. 스니커즈뿐 아니라 선글라스, 양말, 벨트 등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속속들이 배 타고 넘어 오고 있다니 올 봄은 파리의 인목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신어보니 어땠나고? 예뻐라 밤바람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드는 느낌일걸까.



흰색 하이톱 운동화
119,000원 페이유에

1. 어디에나 어울리는 심플한 기본 단화
128,000원 프레드페리

2. 오륜기가 현상되는 런던 올림픽 한정판
219,000원 리복 퓨리

3. 빈티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레깅화
94,000원 퓨마 TX-3

4. 자중해줄 떠들리는 에메랄드 빛 신발
109,000원 아디다스

5. 속이 들여다 보이는 메시 하이탑
149,000원 나이키 by 카시나

6. 지퍼로 포인트를 주자.
109,000원 컨버스



사냥터에 던져진 그들의 사냥 복장

클럽 입문 초보자들은 지금 당장 흉대 거리로 뛰쳐나온 사냥꾼들의 복장에 주목하라.

BY 조다현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Q 자주 가는 클럽 / 이성을 꼬시는 나만의 기술 / 이상형

손미주 (22, 대학생)
강남 / 비주얼 / 마른 남자



재킷 오브리제
니트 바지 신발 모두 빈티지
가방 비비안헤스트우드



재킷 티셔츠유저
목도리 빈티지
바지 유니클로
신발 레드윙

노익환 (22, 군인)
흉대 / 비주얼 / 무조건 예쁜 여자

마음이 예뻐? 이해 대신은 '그
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는구먼

박중권 (29, MD)
이태원 / 눈웃음 / 마음이 예쁜 여자



안경 올리브피플
재킷 버버리
목도리 반올
바지 유니클로
신발 엘엘빈
가방 헤리티지 레더 컴퍼니

정재학 (26, 대학생)
강남 / 차아 / 눈웃음



재킷 발렌시아가
니트, 셔츠, 신발 모두 빈티지
바지 누디친
가방 지방시

박하늘 (20, 대학생)
흉대 / 눈웃음 / 특대성



재킷 바지 가방,
신발, 머리카 모두 빈티지



재킷 바지 모두 206웬드
라이더 재킷 빈티지
티셔츠 지방시
신발 하태
가방 엄마 거

박종익 (23, 대학생)
흉대 / 여자친구 있음 / 여자친구



이비 (23, DJ)

홍대 / 남자친구 있음 / 남자친구

모자 빈티지
재킷 포에버21
목도리 남자친구 거
바지 아디다스
신발 제레미스캇
가방 구피

정지용 (26, 대학생)

강남 / 향수 / 클래식

재킷 코데즈컴바인
저지 집업 아디다스
청바지 다벨
신발 뉴발란스



박상용 (22, 대학생)

홍대 / 여자친구 있음 / 여자친구

모자, 재킷, 목도리, 가방,
장갑, 바지 모두 빈티지
신발 나이키

김하양 (20, 대학생)

홍대 / 춤 / 키 큰 남자

재킷, 바지, 가방, 모자 모두 빈티지
신발 뉴발란스



윤은희 (20, 대학생)

홍대 / 남자친구 있음 / 남자친구

모자 란글
재킷 바지 모두 빈티지
신발 나이키
가방 멜로클래넷

이원진 (22, 수의간호사)

강남 / 눈웃음 / 깔끔한 스타일

재킷, 가방, 원피스, 구두,
장갑 모두 빈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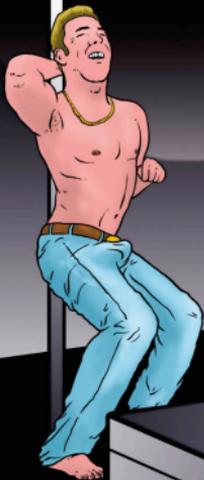
아기씨 어여춘 실력을
보여주시게~



GO TO
MAXIM
iPAD
미공개 셋



갈색 재킷 398,000원 커스텀멜로우
하늘색 셔츠 109,000원 트루젠
파란색 바지 79,000원 코데즈컴바인 포맨
갈색 워커 288,000원 알도



STYLE
CLUB

불타는 금요일

주말 클럽은 화끈해야 재밌다. 클럽에서 방명록 제대로 갖춰 입고 '리베라 메' 한번 찍어보는 건 어때?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권영준 DESIGN: 신숙희 ASSISTANT: 조다현



네이비 카디건 79,000원 코데즈컴바인 포맨
흰색 셔츠 109,000원 트루젠
갈색 체크 바지 178,000원 커스텀 멜로우
검정색 신발 189,000원 컨버스

빨간색 카디건 129,000원 커스텀멜로우
검무디 니트 39,900원 볼스토리
청바지 333,000원 악리바이랩
신발 119,000원 아디다스

COMPETITION: 프로젝트비인 홍보, 프로젝트비인 포켓(02-776-3383), 2인드름 포켓(02-367-4573), 02(02-3443-7638), 스토어비인(02-516-0778), 내미 by K&N(02-3445-1235) 제니스, 시스튜디오(02-546-7764) 프로젝트비인(02-517-4823) 아레바(02-3443-7636) 스토어비인(02-5446-9649) (스튜디오) (02-546-7768) 아레바(02-3447-7701) 플리트(02-3709-9194) 이디스(02-3479-5102-574-0035) 지스타북(02-2020-3663) 아이비크리크(02-772-3766) 리베리움(02-915-1519), P.S. STUDIO(02-844-7719), 02(02-3459-9061) 엔스(02-6911-0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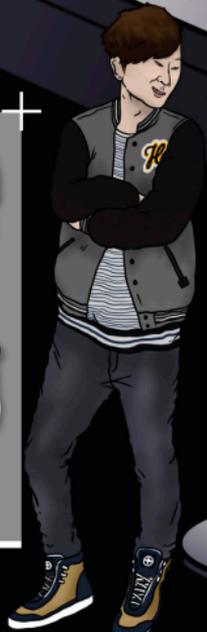
카키색 재킷 620,000원 시스튜디오
줄무늬 티셔츠 40,000원대 아레바컨츠
자주색 바지 189,000원 플리트
갈색 데이지 부츠 168,000원 프레드페리



패딩 베스트 219,000원 코데즈컴바인 울민
니트 가격 미정 셀러드롬 표현
한색 팬츠 가격 미정 스토어비인랜드
신발 94,000원 푸미



아구 점퍼 328,000원 해지스
줄무늬 니트 198,000원 프레드페리
청바지 268,000원 아레바
하이톱 신발 가격 미정 스토어비인랜드



CLUB





프거운 파티
속으로



SEMIF AFTER PARTY

SEMIF(서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2012의 애프터 파티에서 에디티가 정줄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BY 김학성 COOPERATION 사분달려 부밴드 모리아 유행회사 DESIGN 권운경

SEMF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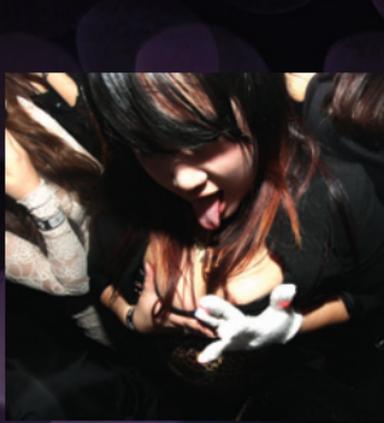
잘 만든 뮤직이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나면 여운이 남지만 그래도 뮤직 페스티벌의 여운만큼 강한 게 또 있으려. 지난 1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너무 기니까 SEMF라고 줄여 부르기로) 하자도 강력한 여운을 남겨 우리에게 참 못 이루는 겨울밤을 선사했다. 징리는 일레이요, 겨울이라 실내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이었으나 초초초초대형 클럽이 따로 없었지 뭐.



SEMF AFTER PARTY

이번 SEMF에서 맘 빼고 논 사람들은 아주 잘 알겠지만, 딱 한마디만 된다. 진짜 짱인데! 그러나 SEMF 애프터 파티는 대박일 수밖에 없었다. 미처 SEMF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사람들, 그날 SEMF에서 정중 놀고 놀던 사람들 모두가 이 파티를 찾았으니 말이다. 게다가 SEMF 입장권만 있으면 이날 파티 입장은 무료였으니 지난 1월 28일, SEMF 애프터 파티가 열린 CLUB ANSWER 앞은 길게 늘어선 줄로 insan(인싸)을 이뤘다.





DJ OF THE DAY

SEMF 애프터 파티니만큼 DJ는 SEMF에서 한 상적인 공연을 선보인 팀으로만 구성됐다. 이날 우리를 반갑게 만들어준 DJ는 MAXIM PARTY를 한껏 달궂이기도 한 아스트로보이즈, CONAN, INSIDE CORE 등 국내에서 네오리하는 실력을 자랑하는 이들이었다.



IT'S JUST THE BEGINNING

이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SEMF 때의 흥분이 되 살아있는지 각자 자신의 재력의 끝이 어디인지를 시험하려는 것 같았다. 차리의 몸값이면 좋았을 걸, 괜히 봤다고 걱정 마라. 이번 파티를 기획한 밀리 맥주 관계자가 "이런 시점에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다. 밀리의 2012년 첫 파티가 이 정도라면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밀리 파티만 기다리고기다리게 될 것 같다.

채 책임제 

MAXIM BUYER'S EDGE



박지성 화장품 보닌 JSP 스포츠 스킨

보닌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과 공동 연구·개발해 탄생한 피부 한식화 화장품 JSP 스포츠를 출시한다. 보닌 JSP 스포츠 라인은 아웃도어 활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용 위한 제품이다. 축구 스타 박지성이 자신의 경험과 신체 활동이 많은 선수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바탕으로 개발 단계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피부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지친 피부에 에너지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큼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부미남 박지성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가격 오퍼마켓 위클리오션 28,000원
문의 보닌(080-023-7007,
www.vonin.co.kr)



레종 에어로(Raison Aero)가 에어그립 필터를 장착한 이유

지난 10년간 세롭과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애호가들에게 사랑받은 레종에서 에어그립 필터를 장착한 신제품 레종 에어로(Raison Aero)를 출시한다. 에어그립 필터는 필터 끝에 공간이 있어,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입속이 건조하지 않게끔한 기분을 선사한다. 또 필터를 단단하게 제작해 찢어도 무너지지 않아 흡연 후에도 주변이 깨끗하다. 2월 말 출시 예정으로 절끔함에 적합한 가격이 당상을 유혹할 것이다. 가격 2,500원/테라 1mg/5mg



K-SWISS, 러닝화 신제품 블레이드 맥스 스테이블(STABLE)

케이스위스(K-SWISS)가 내구성 및 통풍성이 뛰어난 러닝화 블레이드 맥스-BLADE MAX 시리즈를 선보인다. 그중 강고함이 특징인 블레이드 맥스 스테이블(STABLE)은 제품 인공에 단단한 소재를 사용해 발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며, 발이 안으로 휘는 내진 현상을 막아준다. 신발 뒷부분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성형해 걸착, 뒤꿈치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줘 뒤꿈치 부상을 방지하는 배려심 가득한 신발 과학을 담았다.

가격 189,000원
문의 www.k-swiss.co.kr

호가든, 오감을 깨우는 특별한 화이트데이 프로모션

화이트데이를 맞아 3월 한 달 간 전국 주요 바와 맥주전문점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모션은 호가든 4병, 또는 생맥주 4인 이상 구매 시 하얀 종이 꽃비누 시틀지 않는 장미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시틀지 않는 장미는 연인들의 영원한 만남을 기원하는 호가든의 특별한 선물로 방한제와 비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쁜 상자에 포장되어 있으니 선물용 준비도 행거나 급하게 현장에서 직접 들어갈 때 유용할 거다. 급조된 티가 달 날 때~!~!



패셔니스타 '소희', 타임 힐피커 데넵의 매력속엔 뒤대 회복 공개

모던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타이 힐피커 데넵에서 패셔니스타 소희를 무즈로 선정해 매력적인 뒤대가 돋보이는 2012년 타임 힐피커 데넵 화보를 공개했다. 여성스러운 보디라인을 드러내는 경쾌한 기쁨의 데넵 재킷과 스카니한 핏의 타이 팬츠를 통일감 있는 닷 블루 컬러로 매치해 깊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여기에 소희의 능숙한 포즈와 당당한 눈빛 연기가 더해져 완벽한 영동 데넵 화보가 완성됐다. 청차지 한 발로 새로이 여자를 소개 화처일 변신할 수 있을 것일 좋겠네~ 정말 좋겠네~
문의 타이 힐피커(02-546-7764, www.tommy.co.kr)



CRAZYBONE, 30분 만에 마르는 기능성 언더웨어 출시!

남성 패션의 완성은 당연히 언더웨어다. 그러나 기능성과 스타일을 한 번에 잡는 제품을 만드기는 무척 어렵다. 크레이지본에서는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세탁 후 30분 이내에 건조되는 골본 소재를 채택해 기능성을 살리는 한편, 감각적인 아웃밴드를 적용해 패션 미학까지 고려한 신개념 언더웨어를 출시했다. 소포한 터치감으로 자꾸 손길어 간다. 속까지 멋진 날씨가 되길 원한다면 선택은 역시 크레이지본! ENJOY WITH CRAZYBONE 문의 크레이지본(080-911-8879, www.crazyboneshop.com)



이제 홍심을 상큼하게 즐기자!

한국인생상의 생활홍심 브랜드 큐베이스에서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상큼한홍심담은 후레쉬 3종을 출시했다. 블루베리와 조합한 홍심담은 자연 블루베리 후레쉬 향기를 넣은 홍심담은 자연히췌췌 후레쉬, 흑마늘을 첨가한 홍심담은 자연히마늘 후레쉬로 구성된 제품군은 홍심의 맛을 가볍게 바꿔 줌은 흥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했다. 가격 1,500원(80ml) 문의 www.kac.or.kr



페이유에(Feiyue) 창달품을 들썩이다.

앞으로 날아간다는 뜻의 브랜드 페이유에가 한국에 상륙했다. 프랑스에서 연간 100만 켤레가 팔리며 스니커즈로 연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프랑스 국민 신발이다. 스니커즈뿐 아니라 샌들, 슬리퍼, 양말, 벨트 등 다양한 페이유에 제품으로 프랑스 푸아티에 에스카르그롱의 패션왕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02-561-9886



시스템 홈, 뉴 멀티포켓 백팩 출시

슬림&스타일리시를 표방하는 시스템 홈의(SYSTEM HOME)에서 내일엔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좋은 착용감을 선사하는 뉴 멀티포켓 백팩을 선보인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죽 디테일은 캐주얼한 느낌뿐 아니라 블레이저와 매치해 프레미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탈착이 가능한 측면 포켓은 스타일 변화에도 용이하고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주말 여행에도 활용할 수 있게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가격 395,000원

문의 한성(02 3416 2552, www.bestbrandbag.com)



엠도씨(M°C) 프라이드 케어 앤 미스트

샤워 후 수분 유지와 피부 진정에 탁월한 미스트 제품이 출시되었다. 엠도씨의 프라이드 케어 앤 미스트는 건조, 작열, 찬풍, 땀지 등 7가지 한방 성분엔 트레할로스 성분을 함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을 유지하게 한다. 멘톨 성분이 들어 있어 청량감을 선사하며, 360도 회전 필름을 사용해 손에 닿지 힘든 부분의 수분 공급과 국소 부위의 불쾌한 냄새까지 잡아준다. 남성의 피부 문제, 예컨대 염도시와 상의해보지.

가격 16,000원

문의 엠도씨(080-334-3780, www.mdcc.co.kr)



커피의 감성 채널, 커피라디오 시음 행사

비싸고 맛있는 잘 모르겠다 그런 원장 커피를 넘어 마시나 그저 따라 할 뿐이려고? 커피라디오에서 감성 가득한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커피 맛을 찾아보자. 전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바리스타의 메카이자 감성적 카페 문화 창출 브랜드인 커피라디오에서 따끈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한다. 매주 토요일 커피라디오 방배점에 가면 바리스타가 직접 시연하고 추송한 커피를 시음할 수 있다. 문의 커피라디오 방배점(02-585-9229, www.coffeeradio.co.kr)

여성형 유방증 진단과 받고 아메리카노도 즐기자!

실무염 성형외과 여성형 유방증 클리닉(원정 유양점)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예약하는 환자들에 한해 무료 진찰과 함께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대접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병원을 카페와 같은 분위기로 바꿔 병원이러한 거부감이 들어 꺼리던 이들도 입구정역에 놀러 나왔다가 들리 쉬고 가도 좋을 듯. 봄나들이로 실무염 성형외과는 어떨까? 전화 예약하고 커피 한 잔

문의 실무염 성형외과
(02-3443-1180,

www.gynecosmastia.co.kr)



캘리포니아의 초록 물결, 원더풀 피스타치오

바루르지 않은 막주 안주로 견과류만 한 것이 또 있을까? 그중에서도 피스타치오는 담백하고 고소해 인기가 높은 견과류. 원더풀 피스타치오는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재배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해 얻을 수 있다. 기름 없이 부드러운 맛이 특징.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피스타치오, 안주나 간식으로 어떨까? 가격 25,000원 문의 www.korea.wonderlupstachios.com



현대카드, 드디어 레이디를 모시고 오다!

현대카드 슈퍼콘서트의 16번째 주인공으로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선정됐다. 레이디 가가 슈퍼콘서트는 4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며, 레이디 가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 월드 투어의 대장정에 나선다. 추석이 필요 없는 그녀의 공연을 보려면 2월 27일 낮 12시 현대카드 프리뷰이 사이트에서 두는 크게 뜨고 광고를 준비할 것 문의 Phivahyunicsard.co.kr



내 것을 소중하게, 히든 아젠다(Hidden Agenda)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법이다. 언더웨어 브랜드 히든 아젠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JEROME 시리즈는 면 실 소재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편안하며, 힘입 기능과 3D 패턴으로 남성의 색다른 실루엣을 살려준다.

문의 히든 아젠다(02-518-4190,

www.hiddenagend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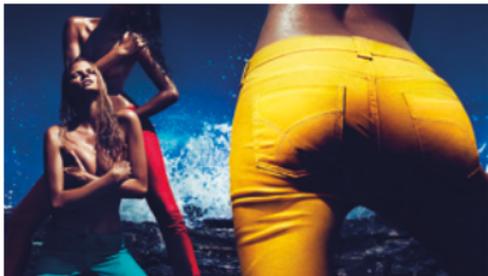
남성복 갤럭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상 지원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별의견교환(DLDO)을 비롯한 행사 지원 요원 700여 명에게 의상을 지원한다. 남성복 갤럭시는 2010년 남야공 월드컵 국가대표팀과 서울 G20 정상회의에도 의상을 지원한 바 있다. 국가대표급 남성복이라 불릴 만하건
문의 02-547-2771



다이어트를 위한 디저트, CGV 오리엔탈 헬빙푸드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에서 CJ 제일제당의 한끼수 두 잔과 팝콘으로 구성된 오리엔탈 헬빙푸드 세트를 선보였다. 청량음료 대신 포플럼 CJ 컨디션 한끼수는 열량이 0kcal이다. 게다가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도 들어 있지 않아 다이어트를 이유로 영화관 디저트를 꺼리던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음료는 그렇다치고 팝콘은 어쩔 건데 너님 다이어트 좋아하며?
문의 www.cgv.co.kr



캘빈 클라인 진, 2012년 글로벌 캠페인 대공개

캘빈 클라인 진이 2012년 S/S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유명 포토그래퍼 아드 알라스와 마르쿠스 피곳이 촬영한 이번 캠페인은 생 바르텔레미섬의 과나히나 비치에서 진행했다. 선명한 컬러의 여성 스트레치 스카니 크롭트 팬츠와 스트레이트 컷의 남성 더블 디넵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강하고 예지 있는 비주얼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애 저 노란 튀는데 참으로 훌륭하구래
문의 02-3218-6254



신인사원 초한지, 브릭스와 함께

봄이 오면 신입생보다 더 설레는 부류가 있다. 상반기 공채가 시작됨에 따라 붓물 타지듯 쏟아져 나오는 꽃뭉치 신입사원이 바로 주인공. 단조롭고 지루한 수트 색상으로 멋진 포인트를 잡으려면 적절한 스타일링 전략이 필요하다. 해답은 수트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인 브릭스 라이프 브릭스 라이프 케이스로 간지 사원이 돼보는 건 어떨까?
가격 50만 원대 문의 02-548-0903



MSM Friends Live in SEOUL 클래식 공연

기부러워 내가 더 몰두하며 더 오래만 지지 말자. 재능 기부용 통한 기부 방식도 있다. 뉴욕 맨해튼 음악대학과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심장형 행차를 돕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MSM Friends 멤버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용 가까이 접하지 못했던 대중에게 쉽고 흥미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 음악도 듣고, 기부의 후덕함도 느껴보자
문의 010-2575-2737



해장도 깔끔하게! 잇푸드 숙취 해소장미린

일본의 라면왕 카와하라 시게미가 이끄는 라면 브랜드 잇푸드에서 일관하고 뜨끈한 국물의 해장리엔을 권한다. 신산동 기동수집에 위치한 잇푸드 베스트 도어의 베스트 램뽕은 풍성한 채소와 매콤한 잇푸드 어우러져 그 맛이 뛰어나며, 특히 알코올 분해에 탁월한 숙주로 숙취 해소에 그만이다. 락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 사람이 락이 될 수 있으니까 약하면 좋겠지?
문의 02-517-0668

이달의 도전 과제

저 사람, 엉덩이로
걸어 다녔나봐.

말풍선
달라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그분의 것은 이만했어요!"

- 군인은 역시 핵심



그분의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말인가. 세상 배기 이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담당 에디터는 그 어떤것이 케이트 페리의 갑탄을 자아냈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분의 차? 아랑? 혹은 그가 가진 그 어떤 희귀한 물건일까? 독자가 군인 신분인 걸 보니 자신의 상황에 빚대어 장교의 간행에 섞여 있던 엄청난 '별사탕'을 이야기 한 것이었을지도...

용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니
- 2 응모는 우편으로 (02-84)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밝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tesk O2 액티브 모이스처라이저**를 선물로 주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이걸로 말았어요

ID 4리인

뭐...뭐불?

MAXIM

내가 왼손을 풀면 너는 오른손을 들어.

ID 리즈오

지금 오른손이잖아!

MAXIM

저 핵심 시러 갔다올게요!

ID 복이형

추운데 멀리 나가지 마시고 경기구독하세요.

MAXIM

MAXIM INSIDER

MAXIM 곳곳에 숨은 선물을 득템할 절호의 기회! 아니, 이렇게 따쥘도 되는 겁니까?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플라로이드 사진을 원한다면 푸우현행!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2012년 3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3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침부한 이미지가 빠질까? 내용이 알맞을수록 플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 4 블로그나 SNS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2012년 4월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2012년 3월 호의 승리자는 부경출판 기사에 김동받아 직접 다녀왔다는 최동민 독자들. 후기도 같이 써줘야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날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 퍼줄 때 가져가라!
GIFT LIST

언더웨어 300M by 빈/ 시세이드 우노웍스 울트라 슬리드/ 맨즈클래식 더블이펙트 아이세일/ 루미카 클리어스 닥팬이 세간제 소유스킨 순수 남성 청결 제 소플린 클린저/ 빈디이 프롬오일/ 슬라기드 차란 텀링 체험권/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슈기포인트 비 나8로보복/ 연극 (라이아)티켓/ 마우스 그림 컬렉션 (뚜꺼운 바)/ 로드 FC 관람권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들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따내니 즐겨찾기 하세요!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영화 시사회 이벤트

영화 <크로니클> 독자 특별 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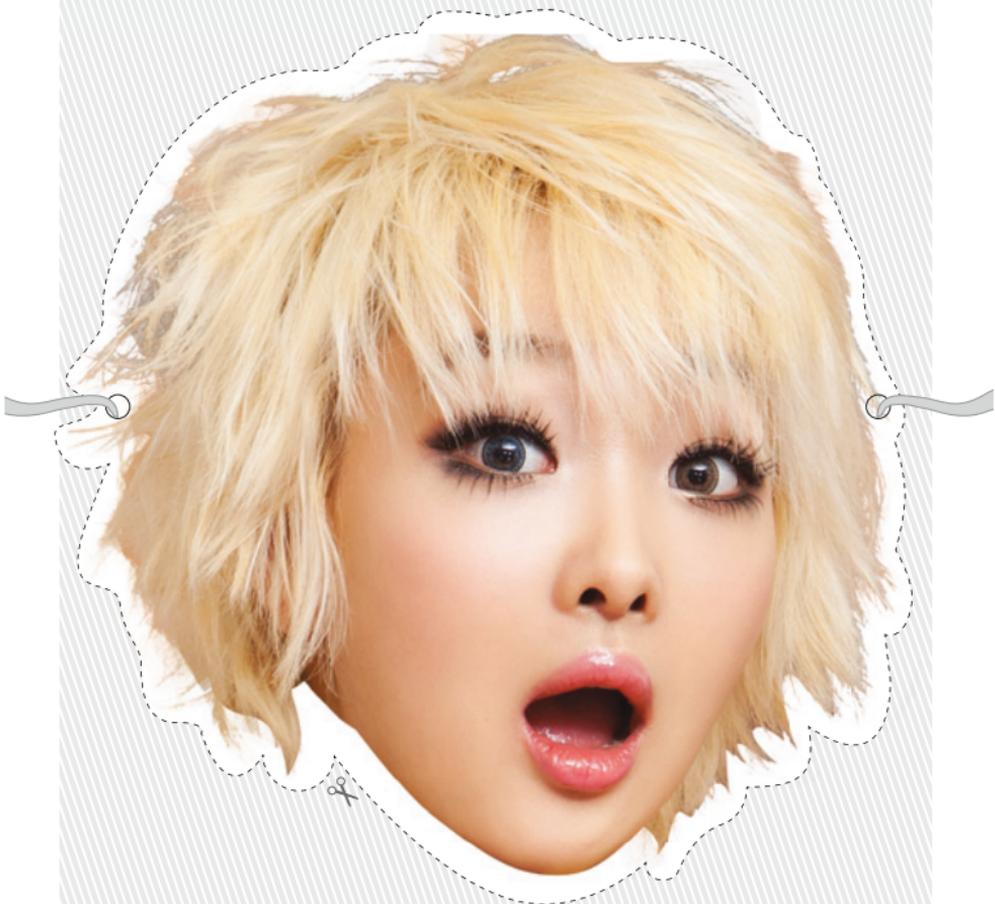
지난 독자 초대 이벤트의 열화와 같은 성황은 힘입어 3월에도 준비된 시사회 이벤트 이번에는 초능력자다! 과연 초능력을 가진 자들이 모두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일까? 악당이 될 가능성까? 평범한 고등학교생들이 수퍼 파워를 손에 넣으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크로니클>은 영화 개봉기인 3월에 9명짜리 팬들의 다른 목적을 채워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번 나 도 아직 못 봤어. 이벤트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www.maximkorea.net)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크로니클 이벤트 게시물이 내가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면 된다. 당신의 재치 있는 댓글 기대하겠대! 위 QR 코드를 찍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

라이아 초대 이벤트

어떤 거짓말이 가장 질책하?

당신은 어떤 거짓말로 애인을 속이고 친구들과 놀러 나 가는가? 어떤에게 플라로이드 그럴싸한 핑계를 알려달라. 최고의 거짓말쟁이! 독자 15명에게 연극 (라이아)티켓을 쓴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www.maximkorea.net)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근대 이 이벤트도 거짓말이런 어떡하지?
공연 날짜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장소 코엑스 아트홀

살찐 고양이 같은 예쁜 여친 만드는 법



사용법 점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 여친 얼굴에 씌웁니다. 효능 행복 지수가 상승합니다.

부작용 행복이 아주 일시적으로만 유지됩니다. 여친이 가면을 벗는 순간 시궁창 같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친에게 뽀빠대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MAXIM

KOREA

ICON: DYNAMIC DUO

미드 30 ROCK
**KATRINA
BOWDEN**
우주 제일의 힘

TRAVEL

지나치게 자세한
일본 메이드 카페 체험기

GAME

좀비 잡는 수영복 걸: 오네찬바라 Z
호러의 원조: 바이오 해저드 6
미소녀 열전: 인스턴트 브레인
아이폰에서 만난 천사: 아이엔젤

안구정화 보장
KATE UPTON

WAR
민간 전투 기업 #1

MUSIC
화이트데이
작업송 BEST 5

STYLE
먼저 신고 유행을 선도하라
완전 갓 나온 개신상 슈즈
여자 속옷 브랜드 완전 정복

MARCH 2012



www.maximkorea.net